

용인문학

18

2011 하반기

초대작가 안도현 고 영 오주리
작가와의 만남 연극학자 유민영



제13회 용인문학 신인상 고민정 장미숙

당선 | 고민정_배드민턴 외 2편

가작 | 장미숙_지붕 외 1편

회원특집 이인숙

기획특집 박후기 시인의 울림을 주는 시

시인이 읽는 시집 이야기 주영현 _ 언어의 실제

문학기행 안영선 _ 가사 문학 1번지를 찾아서

용인문학회



Happy together!

용인,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누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참된 사람중심 도시, 이웃과 계층이 함께할수록 행복이 자라납니다.



제14회 용인문학 신인상 모집

용인문학회는 대중 문화 운동을 주도하며 종합문학지인 《용인문학》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학의 주역으로 성장할 야심 있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해 용인신문사와 함께 '용인문학 신인상'을 제정하여 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부문 및 분량

- * 시(동시, 시조) : 3편 이상
- * 수필 : 2편 이상
- * 동화 : 1편 이상

- * 단편소설 : 1편 이상
- * 평론 : 1편 이상
- * 희곡 : 1편 이상

2 모집 마감 : 2012년 9월 30일

3 응모 자격 : 등단하지 않은 작가 지망생으로 다른 추천 및 심사제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

4 심사 및 특전

- * 심사위원은 《용인문학》편집위원회가 위촉하며 그 명단은 추후에 발표함.
- * 당선작은 10월 15일 《용인문학》과 《용인신문》에 발표하며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함.
- * 용인문학회 회원 자격 부여 및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함.

5 보낼 곳

- * 우편 접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23-8 동원빌딩 3층 용인신문사 문화부
'용인문학신인상' 담당자 앞.
- * 용인문학회 카페(<http://cafe.daum.net/yonginmunhak>)에서도 접수함.
- * E-mail 접수 : anys283@hanmail.net

6 유의사항

- * 우편으로 보낼 경우 겹봉에 '용인문학 신인상' 응모 작품이라고 표기할 것.
- * 원고 끝에 이름(본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 * 응모한 작품을 반환하지 않음.
- * 기타 문의는 010-9508-0335(사무국장)



Contents.....

권두언

김종경 | 자존(自尊)의 시대를 꿈꾸다 11

초대작가

안도현 | 저녁밥 외 2편 18

고영 | 원고지의 밤 외 2편 21

오주리 | 은화(隱花)를 안다 외 2편 25

작가와와의 만남 _연극학자 유민영

이향란 | 연극의 불모지, 평생 학문으로 일구다 39

제13회 용인문학 신인상

편집위원회 | 심사평 52

운문부문

당선(시) | 고민정_배드민턴 외 2편 55

고민정 | 당선소감 61

산문부문

가작(수필) | 장미숙_지붕 외 1편 63

장미숙 | 당선소감 72

회원특집 _이인숙

이인숙 | 달에 꽃 피다 외 7편 75

주영현 | 이인숙 마리아 선생님께 84

기획특집 _박후기 시인의 울림을 주는 시 87

편집 이야기 265

정기구독 안내 266

용인문학회 회원 모집 267

18



21



25



39



위에서 아래

· 안도현 · 고영 · 오주리 · 유민영

편집고문 이기형 김윤배 김종성 이훈식 홍사국

편집위원 박후기 손영란 이향란

발행인·편집인 김종경

편집주간 안영선 **편집장** 주영현

용인문학회 <http://cafe.daum.net/yonginmunhak>



위에서 적로

· 이기형 · 김윤배 · 이훈식 · 홍사국 · 고명진
· 김근해 · 김삼주 · 김어영 · 김예람 · 김종경
· 박후기 · 서림 · 송남순 · 이경숙 · 이동백
· 이동환 · 이민행 · 이원오 · 이진숙 · 이향란
· 조성심 · 한병진 · 홍재석 · 황은옥 · 홍경화
· 손영란 · 정수영

외원작품

詩

- 이기형 | 봄철 용인문학 112
김윤배 | 엉겅퀴꽃 외 1편 113
이훈식 | 운문사 외 1편 117
홍사국 | 옥수수대 외 1편 120
고명진 | 추후秋魂 외 1편 122
김근해 | 가을빛 머무는 곳에 외 1편 124
김삼주 | 회향懷鄉 외 1편 126
김어영 | 길 외 1편 130
김예람 | 내 마음의 벽화 외 1편 133
김종경 | 舊 서울역에서 외 1편 136
박후기 | 유배자청 외 1편 138
서림 | 상상플러스 외 1편 141
송남순 | 빈 집 외 1편 144
이경숙 | 진달래 외 1편 146
이동백 | 빈 병 외 1편 149
이동환 | 독박골 사내 1 외 1편 152
이민행 | 흐린 날 외 1편 156
이원오 | 신토불이 외 1편 159
이진숙 | 겨울 차꽃 외 1편 162
이향란 | 위험한 퍼즐 외 1편 164
조성심 | 용인 오일장 외 1편 166
한병진 | 가을밤 찬 이슬 외 1편 170
홍재석 | 나목裸木 외 1편 173
황은옥 | 담쟁이 넝쿨 외 1편 176

隨筆 · 小說

- 홍경화 | 기억의 진자 외 1편 179
손영란 | 미로 186
정수영 | 하얀 저고리 203

시인이 읽는 시집 이야기

주영현 | 언어의 실체 224

문학기행 _ 송강가사의 산실이 된 담양 243

안영선 | 가사 문학의 1번지를 찾아서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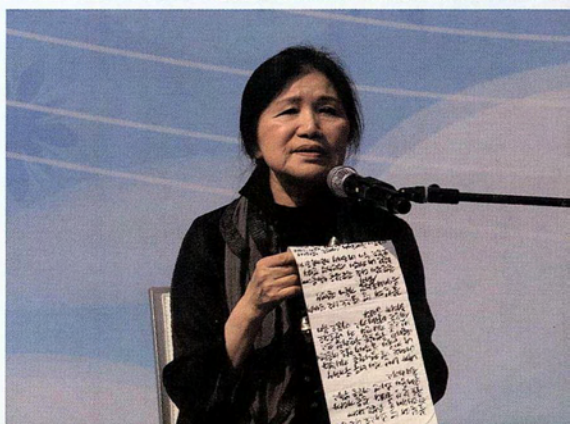
선유도, 문학을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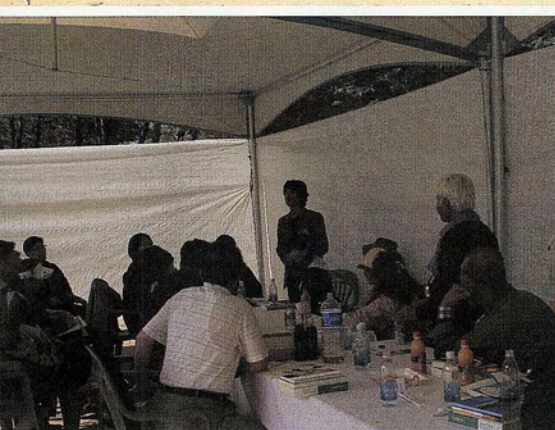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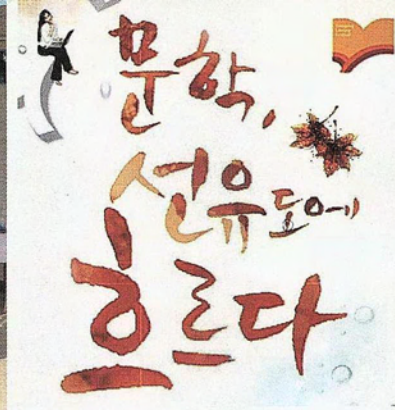
- 장소 : 선유도 한강공원
- 일시 : 2011년 10월 8일-9일
- 주최 : 서울시한강사업본부
대산문화재단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 한강문학축전의 선유도 주 행사장 전경
- 많은 현역 작가들이 참여한 선유도 행사장
- 한강을 소재로 한 배우들의 퍼포먼스
- 소설 「소나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
- 조직위원장을 맡은 신경림 시인의 개회사
- 천양희 시인의 시낭송 모습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 한강문학축전에 참여한 웅인문학회 단체 사진
- 작가 카페를 연 웅인문학회 부스 전경
- 작가 카페의 초대작가로 선정된 김경주 시인
-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한 김경주 시인의 특강
- 젊은 예비 작가들의 질문을 받는 김경주 시인
- 한강문학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웅인문학회원들

용인문학회 이야기

용인문학회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통해 진솔한 삶의
모습을 엿어봅니다.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 용인문학 17호 출판 기념 모임
- 김종경 회장의 사진전 '용인의 오일장'
- '용인의 오일장' 전시장 전경(한국미술관)
- 제2회 김만중문학상 및 문학제 전경
-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하는 박후기 시인
- 작가와의 만남(유민영, 이향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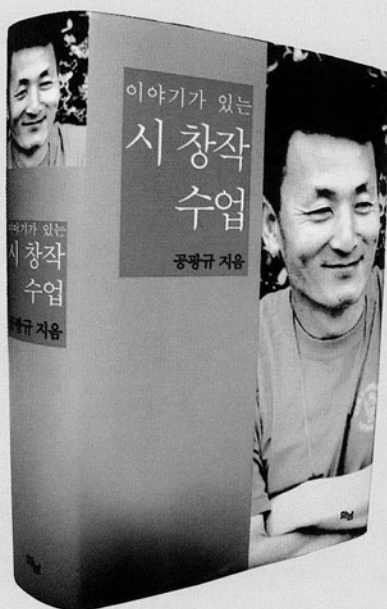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 수업

공광규 지음

2009년 윤동주상 문학대상을 받은
시인 공광규의 시 창작 수업 자료집

이 책으로 인류가 남긴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감성의 보물창고인 시를 알거나 좋아하는 것을
넘어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데는 책상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중
교통과 식탁, 공장쉼터, 여행지 등 아무데서나
이 책을 틈틈히 펼쳐 공감과 조화의 힘을 키우
고 상상력을 단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국판(양장본) | 759쪽 | 값 35,000원

삽화적 이야기로 엮은 ‘시 창작 수업’ 안내서

창작과 강의 경험을 구어체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

1부 창작원리: 이론적 접근

1주차 동서양 시의 전통과 흐름 / 2주차 운율, 음성의 효과를
노리자 / 3주차 비유, 다른 사물에 빗대자 / 4주차 심상, 영
상이 떠오르게 그리자 / 5주차 상징, 뜻을 사물에 숨기자 / 6
주차 풍유, 동식물을 등장시키자 / 7주차 인유, 다른 예를 끌
어다 쓰자 / 8주차 반어, 주어진 상황을 비꼬자 / 9주차 역
설,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쓰자 / 10주차 풍자, 재치 있게 비판
하자 / 11주차 해학, 우스운 말로 웃기자 / 12주차 희연, 말
로 장난을 치자 / 13주차 대화, 이야기를 주고받자 / 14주차
서사, 인물과 사건을 쓰자 / 15주차 구성, 쌓고 엮고 연결하자

2부 창작실천 제재적 접근

1주차 시 창작 과정 / 2주차 자전적 시 쓰기 / 3주차 고백
적 시 쓰기 / 4주차 일터 이야기 쓰기 / 5주차 몸, 연애, 성
애 / 6주차 여행 경험 쓰기 / 7주차 차와 맛집 경험 / 8주
차 유흥 경험 쓰기 / 9주차 예술 체험 쓰기 / 10주차 종교
적 상상력 / 11주차 설화 수용하기 / 12주차 사회정치적 상
상력 / 13주차 가족 이야기 쓰기 / 14주차 자연 제재 쓰기 /
15주차 재미의 전략

참고자료 / 인명·작품 찾아보기 / 용어 찾아보기



브엔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김 켜마_

Buen camino de Santiago

2011년 12월 7일(수) - 12월 13일(화)



INSA art center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88번지 인사아트센터 Tel. 02_736-1020
http://www.insaartcenter.com

프렌즈온더로드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로 향하는 순례길을 사색과 성찰로 담은 Essay 글·사진 | 김켄마 | 하이비전 | 가격 15,000원



since 1996

2011년 하반기
(통권 18호)

자존(自尊)의 시대를 꿈꾸다

김종경(시인, 용인문화회 회장)

젊음과 진보의 상징이 되어버린 ‘안철수 신드롬’. 젊은 기업인이면서 대학교수인 그에게 대한민국의 20~40세대가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4년 전, 국민들은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으로 촛불 시위라는 민심의 파고에 부딪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외쳤으나 아직까지도 불통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국론 분열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10년간 지속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역시 한순간에 폐기시켰다.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필두로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태 등은 남북 관계까지 급랭시켰다. 아직까지도 남북 관계 회복의 기미는 요원해 보인다.

정권 초기부터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 벌써 준공식까지 마쳤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내년 총선을 전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으로 옷을 바꿔 입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 선군 정치였는지, 망국을 자초한 공약 사업이었는지는 따져 봐야 할 일이다.

현 정부는 대기업과 언론 재벌을 위한 주요 정책들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을 기각시켜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올 연말부터는 신문과 방송을 겸영(교차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신문과 대기업이 신문과 방송, 즉 언론 전체를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속속 면죄부가 부여됐다. 공정 사회를 부르짖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쏟아진 불편한 진실들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월가에서는 자신들을 99%의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시위자들이 1% 부자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우리나라까지 번진 월가 사태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자본주의의 극단적 분노이자 슬픔이다.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던 것은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영향을 받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장기 독재 집권에 반발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복지 전쟁이 시작됐다. 국민들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무소속 시민운동가 박원순씨의 서울시장 당선은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반영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재스민 혁명이다. 여하튼 복지 논쟁은 반값 등록금 문제로, 청년 실업률 문제로, 주택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 폭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 위기 이후 국내 가계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 최대치 기록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 질 또한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보다 생활형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신드롬’ 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자연 현상이다. IT세대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젊은 과학자가 현실을 향해 내던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젊은 세대가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1500억 원 대의 주식 기부 등 잇따른 충격적 행보에 열광한다. 그를 대선 후보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것은 정권도 언론도 아닌 성난 민심이다. 물론 젊은 과학자의 정치 참여 과정을 바라보는 시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앞 다투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젊은 세대의 자존감과 존재감 표출을 위한 것이다. 노사모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을 뽑았듯이, 다시 한 번 대변혁을 꿈꾸고 있는 몸부림의 반증이다. 젊은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존감과 존재감을 표출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반드시 제2의 재스민 혁명을 꿈꿀게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인들과 작가들의 자존감과 존재감은 어떨까.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한국작가회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저항의 글쓰기 운동은 안타깝게도 젊은 과학자의 한마디보다도 못한 찻잔 속 태풍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시대 저항의 목소리를 드높였건만, 메아리 한 줌 없이 허공으로 사

라져버린 것은 글에 독기가 없었기 때문인지, 애당초 비판의 본질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흔히 1980년대를 시의 전성 시대였다고 말한다. 그때야말로 독재와 탄압의 산물이 저항의 시로 나타난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80년대 시의 자양분이 됐을 암울한 시대 환경과는 질과 양이 분명 다르다. 무엇보다 시대를 비껴선 채 살아가고 있는 문단 양심의 무게와 질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의 외형만 바뀌었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더욱 커졌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제 우리 시단에도 제2의 박노해, 제2의 김남주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목소리만 자유롭게 커졌을 뿐, 알맹이 없는 시단의 풍토를 지적하는 것이다. 자존감을 저버린 21세기 시인과 작가들을 향한 질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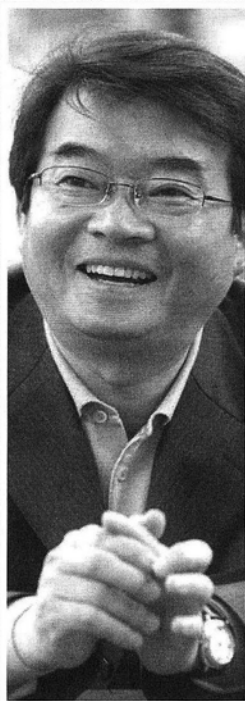
여야는 최근까지 한미 FTA 의결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시련으로 믿고 싶다. 이 시대 문인들도, 정치인들도, 평범한 국민들도 결국은 양심과 자존감을 되찾는 것, 즉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는 용인문학회가 창립된 지 만 15년이 됐다. 여전히 지역 문학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용인문학 신인상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 행사를 주최하고, 참여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보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회원들이 많아 기뻐다.

연초엔 조직의 자존감을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일부 회원의 문제로 치부해 버렸지만, 그래도 많은 회원들이 힘들어했다. 언젠

가는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으로 믿는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1 하반기 용인문학 18호가 발간됐다. 초대 시인으로 옥고를 보내주신 안도현·고영·오주리 시인,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연극평론가 유민영 서울예대 석좌교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제13회 용인문학 신인상을 수상한 고민정(시)씨와 장미숙(수필)씨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며, 용인문학회 회원 모두의 건필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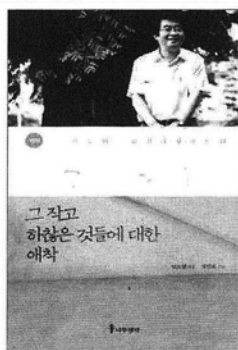


안도현이 사랑하는 시들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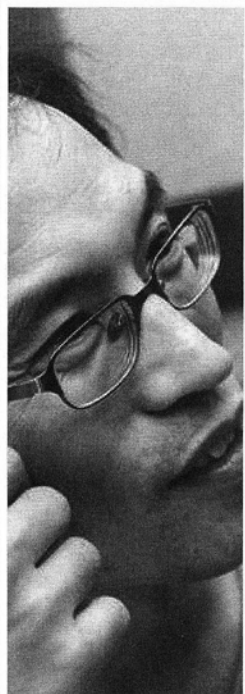
안도현 지음 / 정가 9,800원

나무생각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은 안도현 시인이 문학에 눈 뜨기 시작했던 십대 시절 좋아했던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고은의 ‘사치’, 문학청년 시절인 이십대를 함께 한 짝재구의 ‘사평역에서’, 김지하의 ‘푸른 옷’ 그리고 저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와 감동적인 시, 젊은 시인들의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시인세계 시인선 19

너라는 벼락을 맞았다

고 영 지음 / 정가 7,000원

문학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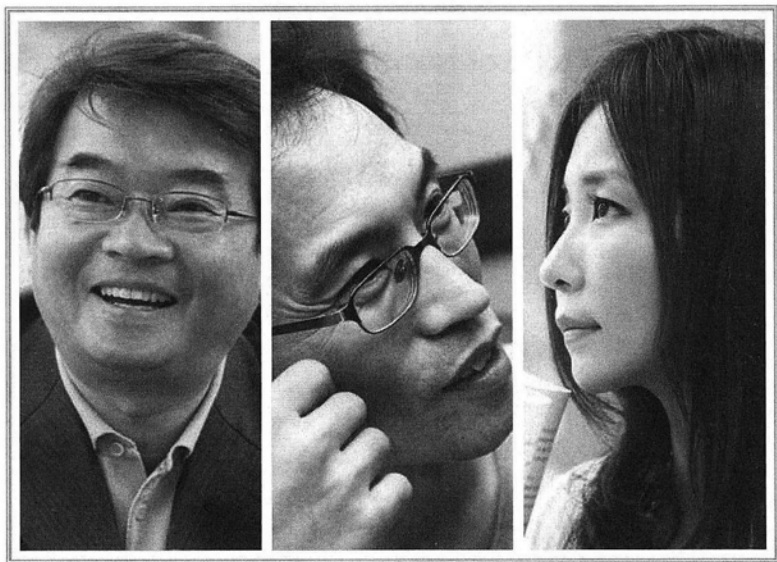


외로움과 위로가 어우러진 고영 시집 『너라는 벼락을 맞았다』. 감칠맛 나는 언어의 결을 보여주는 시부터 곡진한 사랑시,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소재로 한 시, 민중에 대한 감추어진 관심 등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담고 있다. 서정적인 시인의 시들은 조재가 되는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그것과 더불어 생각하고 호흡한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초대 작가 |

안도현
고영
오주리



안도현

저녁밥 외 2편

고영

원고지의 밤 외 2편

오주리

은화(隱花)를 안다 외 2편

저녁밥 외 2편

안도현

어두워지자 저녁은 찬장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꺼내 풀어놓기 시작하였다

귀뚜라미 소리는 고양이 눈알을 두 개씩 말갭게 닦아 마루 밑에 달아놓았다

고양이 눈알에서 펌프질한 차가운 눈물을 받아 쉰 보리밥을 두 그릇이나 말아먹었다

보리밥 냄새가 빠져나간 부엌 구석에서 찬장은 함구하고 속으로 어두워졌다

두더지

나는 다시금 두더지네 집으로 빛을 얻으러 가야겠다
그들의 공간에는 지렁이의 명아쭈대지팡이가 즐비하고
비가 오면 쥐며느리의 황금요강으로 빗물을 받아 밭을 씻는
다 한다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 그들은 땅속에서도
두 눈에 안대를 하고 다닌다 빛을 경배하는 교도들을 피해
굴속으로 들었다가 그 갥 속에서 땅강아지의 값비싼 비단치
마와

달팽이의 탐험 모자를 채굴해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
한때 포클레인을 끌고 온 토목업자들과 119구조대가 동업하
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삽을 들고 온 고고학자를 택했다 엉뚱함의 힘이 그들
것이다

두더지네 집으로 들어가자면 우선 어깨를 동그랗게 말고
빛을 등지고 손톱을 삽날처럼 펼치고 땅을 긁어야 하겠지
그러면 나는 코도 입도 뻐죽해져서 잠시는 서러워지겠다
지상에 없는 길을 내다가 떠난 파티잔이 모처럼 그리워지
겠다

햇빛아, 너는 배배 꼬인 다래냉쿨 아가씨의 머리카락 빛겨주고
살아라

나는 뽕나무 뿌리에 난 여드름을 찌주며 일생을 소비해야겠다

입추

이 성문으로 들어가면 휘발유 냄새가 난다

성곽 외벽 다래냉쿨은 염색 잘하는 미용실을 찾아 나서고 있고

백일홍은 장례 치르지 못한 여치의 관 위에 기침을 해대고
있다

도라지꽃의 허리 받쳐주던 햇벌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기별이다

방방곡곡 매미는 여름여름 여름을 열흘도 넘게 울었다지만

신발 한 짝 잃어버린 왜가리는 여태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한성부 남부 城底十里의 참혹한 소식 풀릴 기미 없다

시 두어 편 연필 깎듯 깎다가 덮고 책상을 친다

오호라, 녹슨 연못의 명경을 건져 닦으니 목하 입추다

안도현 |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윤동주상, 백석문학상 등 수상. 시집으로 『서울로 가는 전봉준』 『모닥불』 『그대에게 가고 싶다』 등 다수와 어른을 위한 동화인 『연어』 등과 여러 동시집이 있음. 현재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원고지의 밤 외 2편

고 영

혼자 있는 밤이 짧게 느껴지는 건
내 生의 문장이 너무 진부한 탓이리라.
원고지의 문을 두드려보아도 헛것들만 나를 반길 뿐,
내일의 운세에 슬며시 몸을 의탁해보지만 나를 위해 울어주는
풀벌레 한 마리 없고
어제와 같은 시간대에서 나는 분명 외로울 것이다.
헛사리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내 生의 행간 속에 숨은 가면들이여,
손수레 바퀴에 끌려가는 저 청소부의 성긴 그림자 옆에
나를 물구나무 세워다오.
밤과 밤 사이의 여백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한 건
내 生의 문장이 아직 나태한 탓이리라.
표정 없는 고속도로 표지판처럼
너무나 자명해서 오히려 슬픈 밤. 원고지의 밤이 이처럼 길
고 아련한 걸 보니
아무래도 나는
이 밤을 너무, 오래, 걸을 것 같다.

연민

현관 도어록 속에
누가 새를 가둬놓았을까

조작이 잘못됐는지
번호가 바뀌었는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꾸 새가 운다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놀라게 할 마음 따윈 더욱 없는데

단지, 더 이상 문밖에서 자고 싶지 않을 뿐

만지면 만질수록
소스라쳐 울기만 하는
가엾은 새여,

우리 아직 포기하지 말자!

도어록을 부수고
새를 꺼낸다

햇발국수나 말아볼까

가늘고 고운 햇발이 내린다
햇발만 보면 자꾸 문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종일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 꼴을 보고
동네 어른들은 천둥벌거숭이 자식이라 흉을 볼 테지만
흥! 뭐 어때,
온몸에 햇발을 쬔며 누워 있다가
햇발 고운 가락을 가만가만 손가락으로 말아가다 보면
햇발이 국숫발 같다는 느낌,
일 년 내내 해만 뜨면 좋겠다고 중얼거리면
그럼 모든 것이 타 죽어 죽도 밥도 먹지 못할 거라고
지나가는 참새들은 조잘거렸지만
흥! 뭐 어때,
장터에 나간 엄마의 언 볼도 말랑말랑
눈 덮인 아버지 무덤도 말랑말랑
감옥 간 큰형의 성질머리도 말랑말랑
내 잠지도 말랑말랑
그렇게 다들 모여 햇발국수 한 그릇씩 먹을 수만 있다면
눈발에라도 나가
겨울이 되면 더 귀해지는 햇발국수를
손가락 마디마디 말아

온 세상 슬픔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반짝이는 눈물도 말랑말랑
시린 꿈도 말랑말랑

고 영 | 2003년 《현대시》로 등단. 시집으로 『산복도로에 쪽배가 뗏다』 『너리는 벼락을 맞았다』가 있음. 제1회 <질마재해오름문학상> 수상.

은화(隱花)를 안다 외 2편

오주리

나의 몸은 은화식물(隱花植物). 조류(鳥類)를 발목에 감는다

발등으로 빛을 끌어 추웠다. 선 없는 수평선. 애인이 꽃은
살(殺)의 미학

나의 몸은 내가 할복토록 한, 식민지의 여인이었다

냉병이다 냉정의 병이다 내가 병인(病因)이다

나의 두 손바닥 사이, 태양이 모자라 수중식물들이 떠다니며
숙주를 찾았다

수종(水腫), 너라는 수중(水中), 내 안의 은화

너는 내 모든 시간의 블랙박스. 어둠이 묻어지도록 긴던 독
백이 재생된다

내가 유리 지구의의를 내려놓았지 그때마다 태(胎) 바깥으로
자란 너, 내 실어(失語)의 수정체(受精體)

내겐 얇이 상처를 내는 치유법*이니

‘마지막 날’이란 가정문은 시간의 끝을 셀 수 없는 천사들에
게만

지옥도(地獄圖)가 산 사람의 마음일지나, 영혼은 불이 아니라
연기에 죽는다

눈앞의 빛에 눈금이 새겨진다

발치에 와 있다, 당신의 푸른 체온

외래종 열매 두고 오라고, 내 단 하나의 다행증(多幸症)

바람의 입사도 반사도 없이 다만 나 수면(水面)이도록
미소(微笑)에서 극소를 내어 쓰는, 한 편의 시수병(詩瘦病)이
짧다

인당(印堂)이 투명해진다

내게 하나의 반(半)도 애인이 없고 다만
은화를 안다

* 아도르노 “인식은 상처를 내는 치유법”의 변형.

아크로폴리스(Acropolis)*

-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부쳐

폐허는 유적일 줄 알았다
누가 그 폐허를 가져가려 했을 때
내 등을 바라보던 이는

봄은 내리는 아크로폴리스. 나는 캐비닛에서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빌려, 첫 전공 《민주주의론》을 들으러 간다
플라톤의 『공화국』은 나라를 곤충처럼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누고, 그 흘날린 각질인 나는 시민의 장학금을 받는다 나 ...
적국의 딸이 첫 빗을, 못 갚을 빗을 ... 북국의 돼지피로 물들인 바닷가, 아버지는 배다른 아우와 거닐고 계시니

아버지의 노을이 지는 섬, 선배들이 『자본론』에 불을 지핀다
그래프 위 상품 가치 공황 혁명, 낯선 기호(記號)들의 수학(數學)이 소화되는 동안, 어린 백부여, 당신도 이렇게 이스크라(Iskra)**를 돌리기 시작하셨나요
안개를 뚫고 나는 병침(病寢)에 기도하는 자세로 총과업 행렬에 다가갔지만, 내 눈심지엔 불꽃이 젖어, 언 방, 홀로 「유자약전」에 나를 물로 덧그렸습니다

헬리콥터에서 꽃비 뿌려 도서관 계단에 석고상이 된 학생들.
문(文)의 얼굴을 한 대통령은 손에 군(軍)을 놓지 못했나 레닌 그라드가 백야로 녹으며 실명(失明)한 선배들의 술집. 선친의 비밀로 떠나지 못한 사수대장의 눈물이 내 미래의 거울이었다

그날, 구름 너머 ‘역사’란 단어가 들려왔다 나의 못 돌아가신,
백부의 이름처럼

아크로폴리스, 우리의 논제가 해산과 해체의 마지막 앞으로
매달린 가을, 지하철에서 뒷걸음질쳐온 노동자들이 태풍의 난
민으로 잠든 학생회관, 내겐 덮어줄 이불이 없었다 중국인거리
의 붉은 그늘을 걷으며 찾아간 노동자문학회, 나를 맞은 남자
는 머리가 길어 단 한 번 눈 맞춤에 같은 종(種)의 비애를 본
다 출판사의 손이 끊겨 맥만 이어갑니다 썰물이 저희와 같군요
퇴근시간, 합평회의 논제는 어느 노동자시인의 불륜 이야기. 어
쩐지 나의 악취가 반인반수의 그림자로 덮쳐온다

나의 애인은, 남한 최초로 《Marxian School》을 세우겠어,
『헌법학』을 벽에 세운 채 네그리와 대화하며, 사회병(社會病)
을 손가락으로 뜯다 커서마다 라이터를 켜며 새벽빛, 곁에 누
우면 그의 이마에 비치는 아버지, 나는 고개를 돌린다 건강이
없니, 나무라는 애인의 말에 나의 배가 푸를 때, 《19세기 프랑
스 시》 강의실,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이 흘러와 내 어린,
집시의 시절을 애도하기 위한 시가 쓰이고, 랭보의 『착색판화
집』에서 사전 속 잃어버린 모국어 ‘근’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나는 배워만 간다

왜 우리는 패배할 축제에 나서야 하나요 아크로폴리스, 권력이 아니라 원리를 위하여. 사수대장의 눈빛이 골방 안, 왜성(矮星)의 바람으로 떨던 날, 나는 오가(吳家)의 운명처럼 입당을 한다 당사(黨舍)는 유리 골조, 지지자는 우리뿐. 그러나 순혈(純血)만 모인 당원도 이념의 채에 걸려져간다 겨울바람, 바깥의 투표에 깨고, 봄바람, 안의 투표를 깨고, 그렇게 내 마지막 갑옷의 파편은 자살기도를 위한, 얇은 도구가 되어만 간다

아크로폴리스, 나, 적국의 딸의 망명지, 이곳은 투명한 비국(非國). 아크로폴리스, 도시로 내려가는 벽은 만기 없는 감옥이었지 아크로폴리스, 빈 침대에서 나는 파란 꽃을 안고 죽음의 시를 썼지만

아크로폴리스, 이 작은 곳이 나의 세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누르는 돌 하나인 것을 알지 못했다

* 고대 그리스의 도시 중심에 있던 언덕을 이르는 말이자, 서울대학교 광장의 이름.

** 1901년 레닌이 창간한 신문. 불꽃이라는 뜻.

여섯 개의 독방과 한 개의 출입소

-연좌(戀坐) 5

사슬이 결은 자리부터 녹는다
비극의 곁에 비극이 앉는다
시계(時計)가 지는 지평선까지

1

방마다 사슬에 매인 침대가 있다 수인(囚人)의 다리가 사슬
이 되어갈 때 수인은 원고지의 □칸에 人자를 써 넣는다

불안으로 쓴다 불안이 쓴다

불안이 쓴 행(行)은 나무젓가락의 부러진 단면, 그 첩표에 누
골(漏骨)이 떨리고, 결막에 허상이 녹아 고름이 된다

다시 불안이 한 문장을 쓴다,

팬이 종이를 누를 때 그 축이 지구의 내핵을 쫓고 있다고

2

병영(兵營)의 요람, 광시곡이 아이들을 부화(孵化)한다

그림자가 검정과 하양으로 미분(微粉)될 때, 너는 무슨 주의
자인가 우울주의자(憂鬱主義者)입니다

정사각형에는 눈물이 담기지 않는다 타인의 기계로서의 나는
피로를 잃는다 다만 신경의 내부에 나의 고귀한 소금이 쌓인다

나의 분신(分身)들이 반연극(反演劇)을 한다 원고지 칸마다
머리에 부리, 꼬리에 부리, 손에 부리 달린 기형들이 서로를 쫓아댄다
인간학의 서(書)가 지워진다

나는 유리체(琉璃體). 빛의 무늬를 피부에 입힌다 이 문조(文藻)
가 내 신원불명의 신원증명. 빛을 빛으로 막는다

「원」의 팔로 「그른」을 내몰고, 텔레비전을 믿는 여아를
「바른」 팔에 안기 위하여

그러나 탈옥자를 쫓는 스포트라이트가 형제의 피를 모니터에
차오르게 했을 때

당신은 옷을 벗고 차륜에 스스로를 감았습니까

처형(處刑)과 해방은 동의어, 우울주의자의 사전

그 유서가 나의 눈에 풀려 당신의 분신 된 나는 이 명계(明界)의 바닥을 팔 없이 딛고 있습니다

3

감옥에 등대가 있다 담 너머 바다가 있다 빛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은 구멍이 된다

사각(死角)이란 없다 빛의 원은 사형장

철조망을 손에 쥔 수인은 그것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무기임을 본다

사선(死線)을 빗기는 새는 사선(死線)을 넘지 못한다

수인은 명치에 철조망으로 절애(切愛)를 긋는다

태어나서 본 적은 없다 다만 흰 거품이 배[船]의 증거라 믿
을 뿐

섬을 버리고 섬보다 멀리

4

그 법문(法文)에는 수신자의 이름이 없다

빈칸이 이름 불러주길 기다리는 몸은 내벽이 곱팡이 붉은 감
옥이 된다

법문을 빈칸으로 만들려는 몸은 외벽이 탄흔에 붉은 감옥이
된다

어린 증인의 몸은 안팎 없이, 구멍마다 꽃봉오리 내미는, 단
한 장의 벽으로 된 감옥이 된다

그 감옥들에 새겨진 육담(肉談)에 소년은 원고지를 그린다
“법은 존재한다 그리하여 파괴한다”

그러나 법관은 웃으며 그의 문장을 교정한다 “법은 파괴한다
그리하여 존재한다”

소년과 법관의 씨름이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였다 흠어
지고, 둘은 서로, 존재의 이유가 된다

5

영치금으로 문조(文鳥)를 키운다

문조가 문을 들어 올릴 때 나는 외로워 머리카락으로 창살을
뚫는다

문조가 쓴 글줄이 □을 벗어나려 한다

벽에 흘러내린 문조의 자흔이 나의 비명(碑銘)이 된다

6

나는 만0세의 정치범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이 나라를 때
렸습시다

출입소의 탁자에 전향서가 깃털처럼 날아온다 문조는 유전병
의 이력을 지울 듯 흰 날개의 물방울을 털지만

알비노(albino), 붉음은 색(色)이 아니라 피여서 지울 수 없
기에

문으로 아버지들부터 사라져간다 얼굴의 안쪽, 등 돌리고 앉
은 어린 수인들 새장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부폐한몸이다시나의육아낭

아버지의부폐하지않은몸이다시나의유형지

물이 마를수록 어린 문조는 수통에 갇힌다 아무도 보지 못하
는 심연을 홀로 날 때

교도관이 유액을 흘린 손가락계단을 내민다 체온에 자아의
살해자를 용서한다 어린 그녀는 알의 둥지[卵巢]를 그에게 선
물로 내려놓고

정화(停火)가 수은등으로 다시 점화하는 도시로 날아간다

거리마다 동물보호소에서 수술이 이뤄지지만 누구도 그것이
일족의 안락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도시의 스피커는 하나로 흡수되고 사람들은 귀 안의 음악을
듣는다

소각장에 날리는 재는 한 문조(文祖)의 지방(紙榜)이었다

7

인간의 몸에 없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깃이다 바람을 이해하
는 기관이다 하늘의 통성(痛聲)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는 명계(冥界)의 중력에 끌린 것이다

저 멀고 아름다운 나라, 명멸의 기호를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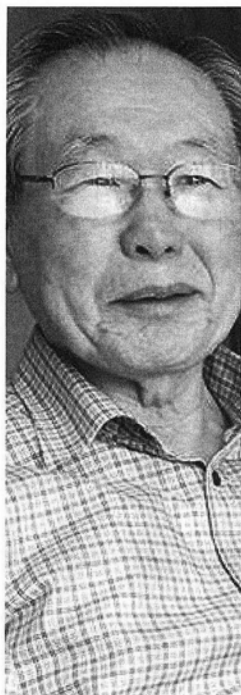
손가락이 최초이자 최후의 펜이다 그것이 깃이다 날개의 완
성이다

감옥을 내려다 본다

나의 거울의 상을

제네바III협정에 따라 포로들은
생체실험에 동원되지 않았고
민주주의교육과 소독을 받았으며
독서와 공놀이 등을 할 수 있었다

오주리 | 1975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국문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0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함.



유민영 교수의 연극읽기 1

썬 목소리와 야한 웃음

유민영 지음 / 정가 32,000원

도서출판 생생



유민영 교수의 날카로운 비평과 재미있는 연극 이야기 『썬 목소리와 야한웃음』. 개화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연극과 북한연극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당시 유행했던 연극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평과 연극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록했다. 더불어 한국 연극의 특징을 살피고 한국연극의 원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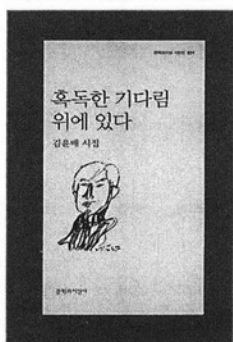


문학과지성 시인선_331

흑독한 기다림 위에 있다

김윤배 지음 / 정가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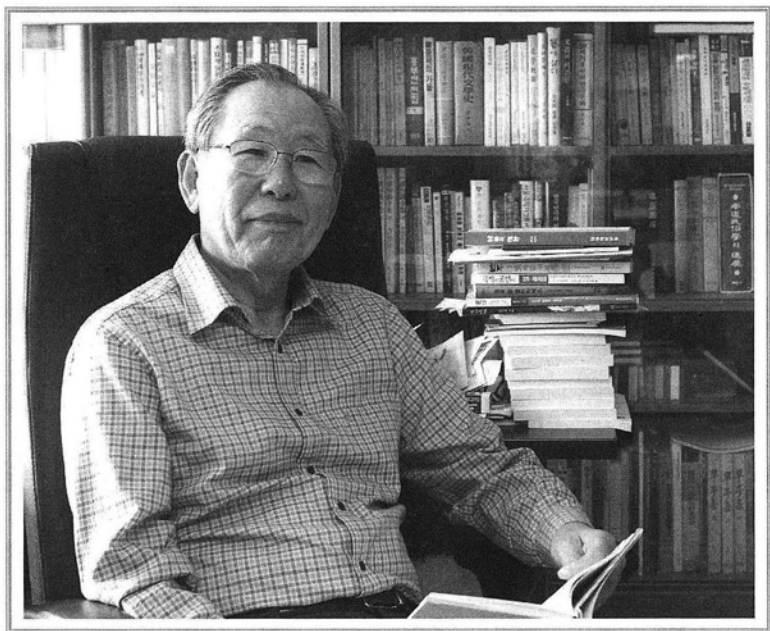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



『세계의 문학』으로 문단에 나온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 평론집을 내며 거침없는 필력을 발휘한 김윤배 시인의 새 시집. 그는 지난 2006년 화성시교육장을 명예퇴임하고, 현재 경희대, 고려대, 아주대, 인하대 등에서 강의하면서, 미평문학관 집필실에서 시작(詩作) 활동 중이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작 가 와 의 만 남 |



유 민 영

1937년 용인시 남사면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 국문학과를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연극과에서 수학했다. 한국연극학회 회장, 단국대학교예술대학 학장, 예술의 전당과 정동극장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각종 공연 예술 분야의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서울예술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는 「한국현대희곡사」, 「한국근대연극사」, 「한국연극운동사」, 「한국 인물연극사」, 「한국 연극의 사적 성찰과 지향」 외 다수가 있다.

연극의 불모지, 평생 학문으로 일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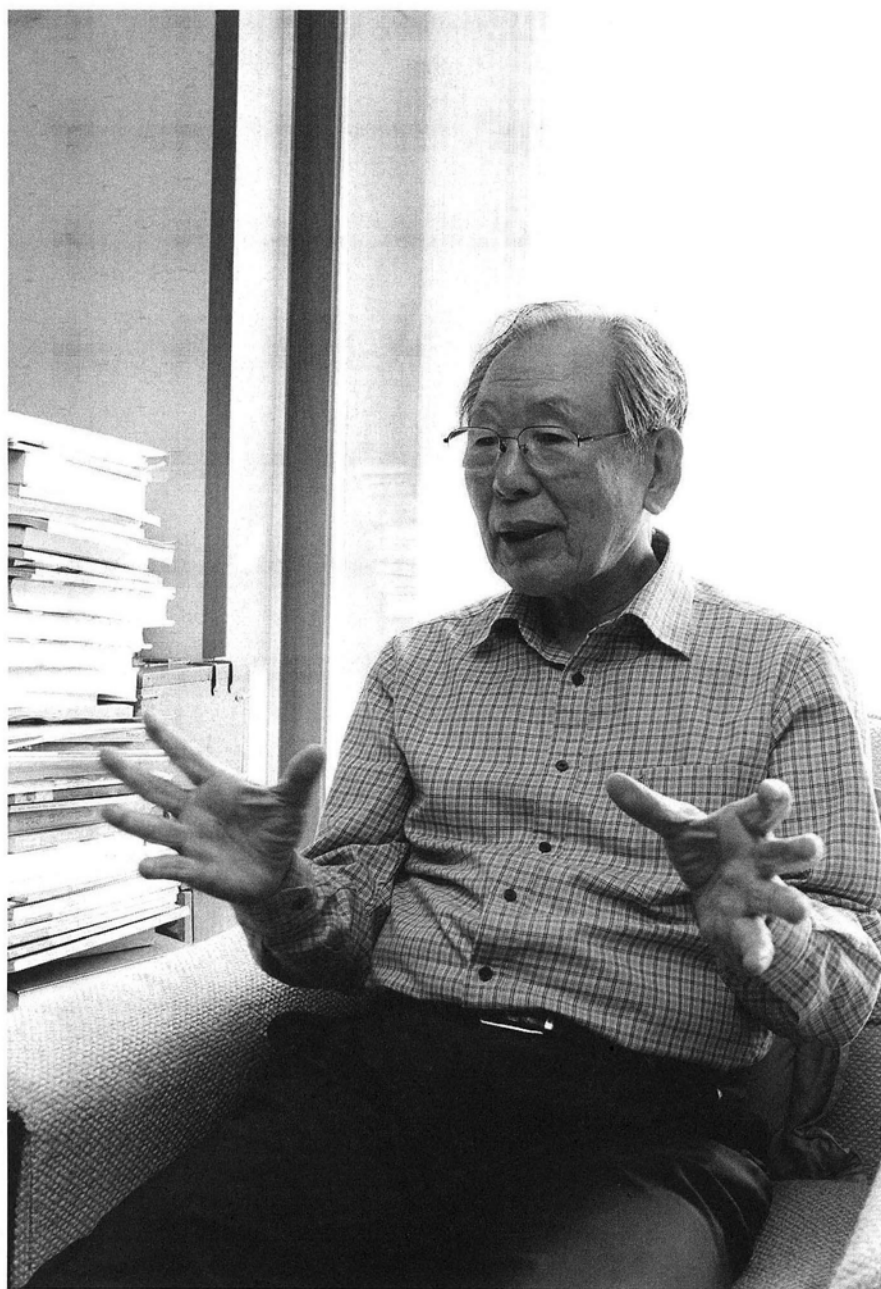
— 연극학자 유민영

이향란(시인)

연극은 배우가 특정한 연희(演戲)의 장소에서 관객을 앞에 두고 극본 속의 인물로 분장하여 몸짓·동작·말로써 창출해 내는 예술을 말한다. 아울러 연극은 문학·미술·음악·무용 등의 인접 예술 분야와 여러모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흔히 종합예술이라고들 한다. 불모지와 같던 시대, 이 연극의 학문 정립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0여 년간 학자로서의 삶을 자처한 유민영 교수(74세). 용인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이던 1954년 서울로 이사, 그동안의 삶을 꾸려온 그가 2002년 공식적인 정년을 마친 후 다시 정착한 곳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이다.

“지금은 개발해서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예전의 풍광은 아직도 남아 있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집사람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가끔 산행할 수 있는 광교산도 있고요.”

그가 태어나 서울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살았던 남사면은 평택과



경계를 이루는 곳. 그래서 십 리 떨어진 남사초등학교보다는 오 리 더 가까운 평택의 진위초등학교를, 중학교는 사십 리나 되는 김량장동의 학교보다 이십 리의 오산중학교에 다녔다. 실제의 발 크기보다 훨씬 큰 고무신을 신고 걸어 다녔던 그 시절, 발가락엔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기 일쑤였다.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가 하면 아카시아 꽃을 따먹기도 하고 길 근처 밭에서 무를 뽑아 먹으며 허기를 달래면서도 초등학교 때의 성적은 늘 전교 1등. 졸업 땐 학생 대표로 상장을 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는 2시간 20분을 혼자 걸어 학교에 갔다. 통학하는 데 걸린 시간만 해도 하루에 5시간 정도.

“그때 이광수의 ‘무정’이나 ‘흙’ 등의 소설을 많이 읽으며 사색을 즐겼지요. 중학교 당시 반장을 해서 조례 전 ‘차렷, 경례’에 대한 구령을 해야 했는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인지 아침을 먹고 학교에 도착하면 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 없이 구령해서 선생님께 한마디씩 들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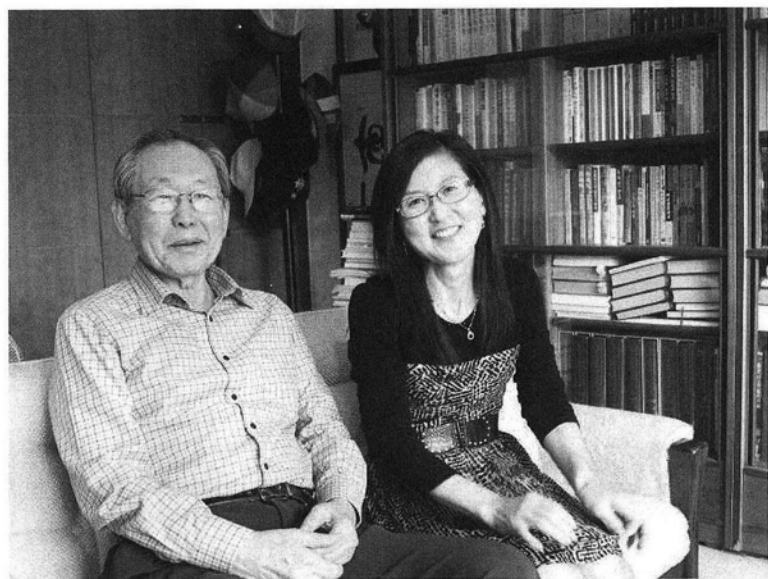
학교가 끝나 집으로 향하는 밤길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도 들었다. 전쟁 때인데다 중농(中農)으로 그다지 생활이 넉넉지 않았던 집에는 아버지의 삼 형제 가족까지 피난을 와 35명가량의 대가족을 이루었다. 기차라고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곳에서 항상 배고프기만 한 서절이었다.

이후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엘 갔는데 한학자이던 할아버지의 영향 탓인지 늘 학문에 몰입하며 살고 싶었다. 그런 그에게 대학원 입학과 동시 연극학을 권유한 이는 국문학자인 이두현 선생. 물론 석, 박사 모두 국문학을 전공해 국문학자로서의 길을

갈까, 아니면 소설을 써 볼까, 비평을 해볼까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지만, 국문학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에 비해
 당시의 연극학이란 고작해야 김재철의 <조선연극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 그 같
 중이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과 만나 이후 연극사를 염두에 두고
 당시 선배이던 김윤식(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선생
 과 방학 때면 고평내 나는 국립도서관을 뒤졌다. 이렇다 할 희곡
 집이나 연극 이론서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개벽’이나 ‘삼천리’
 등의 잡지에 실린 관련 글들을 필사하며 매달렸다. 그리고 1966
 년에 석사 논문으로 ‘유치진론’을, 1982년에는 한국 최초의 희곡
 사인 ‘한국현대희곡사’와 ‘한국극장사’를, 1989년에는 연극 운동
 의 관점에서 연극사를 서술한 ‘우리시대 연극운동사’를 썼다. 이
 밖에 한국연극사와 공연 현장에 대한 관심을 체계화한 연극평론
 집으로 ‘한국연극의 미학’(1982년), ‘전통극과 현대극’(1984년),
 ‘한국연극의 위상’(1991년), 2006년에는 ‘한국인물연극사’ 등 다
 수를 저술했다. 그 결과 제1회 일석학술상, 제3회 서울문화예술
 평론상, 제4회 동광연극상, 2006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
 했다. 그리고 올해는 1996년에 펴낸 ‘한국근대연극사’의 증보판
 으로 ‘한국근대연극사 신론’(상하)을 펴냈다. 990쪽 분량의 전작
 을 1,500여 쪽으로 증보 확대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 연
 극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분기점을 8·15 광복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1950년대 말까지로 봐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신극 운동
 을 주도했던 극단 실험에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현대 연극의 기
 치를 내세운 제작극회가 결성된 1956년을 현대연극사의 출발점
 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무렵 극단 실험도 국립극단에 흡수
 되고 1960년 실험극장을 필두로 동인 극단이 대거 등장하면서

진정 한 현대적 연극 흐름이 시작됐다는 것이 그 이유. 10년 넘게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쓴 이 책에는 우리 연극사를 1960년대의 북한 연극, 연벤과 중앙아시아 거주 조선족의 연극까지 끌어안았다. 북한서는 1978년 공식 연극사에 편입된 사실이지만 1932년 소련에 정착한 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집단 이주당한 조선 연극인들이 땅굴을 파서까지 우리 연극을 했다는 사실은 그가 1990년 소련 개방 당시 알마타 조선국립극장에 직접 가서 알게 된 사실이다.

이처럼 삶의 반세기를 오로지 연극에 몰입하면서 학문으로 정립시키는가 하면 꺼지지 않는 탐구욕으로 김재철(金在喆), 이두현(李杜鉉)을 이은 그는 한국 연극과 희곡사 연구의 제3세대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그에게 인간의 삶에서 연극이란 무엇인지 다소 막연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연극학자 유민영 교수와 인터뷰하는 이향란 시인

“우리가 농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고 들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여러 정의를 내리곤 하지만 연극이란 결국 인간의 삶을 위한 오락인 겁니다. 개미와 베짖이라는 동화에서 보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엔 개미와 같이 열심히 충실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짖이와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위안물로서의 연극,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발전시켜야 하는 거지요.”

긴 세월을 연극학에 정진한 학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단순하고도 쉽게 와 닿는 답변이었다. 그것을 그는 인문학자로서 연극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폐한 연극의 학문 세계를 번창시키기 위해 비평과 평론의 칼을 들기도 해야 했지만, 연극 이



연극 관련 저서로 가득한 유민영 교수의 서재

론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그것을 공연하는 극장은 물론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같은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부신 저술 업적을 낳게 한 것이다.

한때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직 말고도 예술의 전당과 정동극장의 이사진을 각각 지내기도 한 그는 한 치 흔들림 없이 살아온 학자의 삶이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고 맘에 든다고 한다. 그 학자가 거의 대부분 저서를 역사와 결부시킨 데는 남다른 사관(史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극을 바탕으로 하여 쓴 모든 책 속에는 세 가지 주 포맷이 있습니다. 즉 역사, 인생, 연극이라는 예술이죠. 물론 다 이론서에 가깝지만 그런 것들을 아울러 느낄 수 있도록 인문학적으로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의 저서 대부분이 연극 이론서라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 있고,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역사가 녹아 있음을 주변 지인들은 쉽사리 눈치를 챈다. 아울러 그 이론서 속에서 학자이면서 인간인 그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고들 한다.

이처럼 그와 함께 반세기를 달려온 연극 역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자면 상당히 달라졌다. 예전은 젊은 지식층이 주관객이었다면 지금은 다수의 일반인이 즐기게 됐다는 것. 연극과 객석이 분리되었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져 관객과 함께하는 연극의 형태를 이룬다고 한다. 그런 현상 자체를 국가의 경제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손사래를 친다.

“국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경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먹고 살만 해야 문화생활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한 예로 1991년 붕괴 당시의 소련을 보십시오. 동유럽의 공산당이 완전히 붕괴하는 그 상황에서도 소련 국민은 그와 무관하게 문화 예술을 즐겼습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이란 인간의 기본 생활 요건인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오락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연극이 있는 것이고요.”

21세기는 뮤지컬만 해도 2천억의 시장을 이룰 만큼 문화 예술에 대한 소비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그는 20세기 말까지를 자신의 학문 연구에 대한 한계선으로 그었다. 그만큼 연극학의 범위도 폭넓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21세기는 자신보다 후학들의 몫이라고 한다.

새벽 4, 5시면 일어나 집필과 연구의 시간을 갖고 점심은 부인과 근처 식당에서 사 먹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오후엔 산책,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과의 대부분이다. 그밖에 주말 때는 가끔 여행이나 산행을 즐긴다. 이렇듯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만 매달리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그는 자신을 신부(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인과 함께 그는 성당엘 나간다.)나 마찬가지로 표현한다.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가? 간혹 어쩔 수 없는 인간적 외로움도 깃들긴 하지만 그것을 즐기며 학문에 매달릴 때 그만한 즐거움도 없다고, 주변 지인들이나 제자들은 인제 그만 쉴 때도 되지 않았느냐면서 학문 정진을 만류하지만,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이상 아직 할 일이 많고 이것 말고는 즐거움을 느낄

만한 취미도 딱히 없다고 한다. 더러 공연 관람을 하는 것이 그나마 취미라면 취미.

“요즈음은 지자체도 문화 예술에 대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지만 용인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지여성회관에서 각종 공연물을 무대에 올리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 규모의 소극장 개관이 지방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큰 몫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는 한 예로 소극장은 아니지만, 지역 내 문화 인구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개관한 성남아트센터는 단독 자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문화 향유 층과 문화 잠재 층을 발굴하는 사업을 벌여 수도권 내 문화재단의 역할과 극장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는데 있어 성공적이라고 한다. 지방 공연장임에도 세계적인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을 초청하는가 하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불러들여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선보인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독자적인 기획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문화 욕구를 지닌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관 리더 그룹의 높은 문화 안목, 각 예술 문화에서 노하우를 쌓은 경험 많은 인재들이 기본 바탕을 이뤄야 한다고. 아울러 규모가 큰 공연장 건립만 앞 다룰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예술 문화를 즐기는 시민 층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을 강조한다.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 시민을 어떻게 하면 폭넓은 문화 예술로 위안 받을 수 있게 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문화 예술을 즐기기 위해 굳이 서울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문화만큼 지방 문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과 관련 인적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양대와 단국대 국문과 교수·예술대학장·문화예술대학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그는 현재 서울예술대학 석좌교수로 있다. 앞으로 유치진 평전과 남북한을 합친 현대 통일 연극사를 비롯해 에세이도 써볼 생각이다. 평생 연극학에만 몰입해 온 삶을 국문학적으로 담담하게 그려 보고도 싶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볍게 약주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으니 언제 한번 만나자는 말과 함께 악수를 건넸다.

“후학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속도로를 뚫는 사람이라고요. 연극학의 불모지인 이 땅에 새 길을 개척하여 도로를 뚫을 테니, 너희는 그 도로 곁에 휴게소를 설치하든 무엇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요. 적어도 21세기 말이라는 범위 내에서는요.”

말년, 학문의 열정을 고향으로 끌고 와 주변 풍광과 함께 절도 있는 생활로 최선을 다하는 그는 지금까지 연극 관련서만 해도 30여 권을 저술한 영락없는 연극학자이다.

이항란 | 2002년 첫 시집 『안개詩』로 작품 활동 시작. 그 외 시집으로 『슬픔의 속도』(2007년), 『한 켠레의 즐거운 상상』(2011년)이 있음.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수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한 켠레의 즐거운 상상』)선정.



김어영 시집

청춘이 밝고 간 꽃길

김어영 지음 / 정가 7,000원

도서출판 한글



《용인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한 김어영 시인의 첫 시집. 시인이 살아가며 생각했던 공간이나 자연과의 교감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는 일상을 그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창조해 낸 새로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된다. 여름 내내 숨아내고 남은 사유와 언어들과 노년의 몸에서 놀던 언어들이 시집에서 저마다의 도착점에 앉아 잘 익어가고 숙성되고 발효되는 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지혜사랑_44

한 켠레의 즐거운 상상

이향란 시집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 선정〉

이향란 지음 / 정가 10,000원

지혜



[한 켠레의 즐거운 상상]은 그의 세 번째 시집이며, "이 시집은 '비상하는 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정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시의 공간을 확장한다. 시인은 자신의 공기적 질료가 가득한 상상력을 활달하게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용 인 문 학 신 인 상 |

고
민
정



장
미
숙



고민정의 시 「배드민턴」을 당선작으로 내민다. 한 여자의 일상 행위를 통해 삶의 근원과, 그 너머 죽음의 문제를 자기만의 목소리로 톡톡 건드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산만함이 보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투고 작품 모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 산문에서는 장미숙의 수필 「지붕」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지붕이라는 소재를 저자의 어린 날과 연계하여 잔잔하게 풀어낸 점이 따뜻한 가족애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다. 문체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내용을 전개해 나간 점이 돋보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능력도 돋보였다. [편집자 주]

심사평

편집위원회

당선작 - 詩

배드민턴 외 2편 - 고 민 정

당선소감

가작 - 隨筆

지붕 외 1편 - 장 미 숙

당선소감

| 심 사 평 |

편집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용인문학 신인상 공모에는 전국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장르에 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또한 일부 작품은 멀리 해외에서도 응모하여 용인문학 신인상의 위상을 엿볼 수 있었다. 응모 작품을 장르별로 정리해 보면 시 256편(동시 포함), 소설 48편, 동화 11편, 수필 24편, 희곡 2편 등 총 341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예년과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작품의 수준 차가 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도 있어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운문 부문에서는 많은 응모 편수에 작가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부터 지긋한 연륜이 묻어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러한 삶을 미학적 언어나 철학적 보편성으로 구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작품들이 많았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으로는 고민정(배드민턴 외), 김성진(망각 외), 박은정(다섯 살 1 외), 신동호(여의도 외), 이수민(아버지의 초상 외), 이승리(오렌지 마멀레이드 외), 이온희(선짓국 외) 등이 있었다. 이 응모작 중에서 심사위원들은 이온희, 이수민, 고민정의 작품에 관심을 가졌다.

이수민의 「아버지의 肖像」은 가장 잘 읽히고 깔끔했으나 그것

이 한계였다. 기성의 틀 안에 제 몸을 맞추어 넣어버리는 작법의 무난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온희의 「선짓국」은 대상을 파고드는 체험의 치열함이 돋보였으나 맞춤법이라든지 감성 과잉이 그러한 장점을 상쇄시켜 버렸다. 그러나 ‘뜨거운 것에 몸을 던져 단단해져 간다’는 선짓국에 대한 표현에서 이 분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기도 남음이 있었다. 결국, 고민정의 「배드민턴」을 당선작으로 내민다. 한 여자의 일상 행위를 통해 삶의 근원과, 그녀며 죽음의 문제를 자기만의 목소리로 툭툭 건드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산만함이 보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두고 작품 모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장 가능성이 많아 보였다.

산문 부문에서는 소설로 이정행(동자꽃), 조진선(살인자는 안녕하십니까), 최상순(나의 전화벨), 동화에서는 정미영(GG는 어디에), 수필에서는 홍정표(사이렌 외), 장미숙(지붕 외), 정재순(호상 외) 등이 최종심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 중에서 조진선, 장미숙의 작품에 주목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산문 부문의 수상작으로 장미숙의 수필 ‘지붕 외 1편’을 선정했다. 지붕이라는 소재를 저자의 어린 날과 연계하여 잔잔하게 풀어낸 점이 따뜻한 가족애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다. 문체가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게 내용을 전개해 나간 점이 돋보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능력도 돋보였다. 또한 읽는 내내 가족을 향한 글쓴이의 따뜻한 심성이 엿보여 몽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내용을 보완하여 이야기를 끌어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가족의 위기나 이로 인한 어머니의 힘겨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지붕의 의미가 확연히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작과 가작의 사이에서 심사위원들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가작으로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조진선의 소설 ‘살인자는 안녕하십니까’는 사건을 흥미롭게 전개해 나가는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본적인 작법의 미숙함과 깔끔하지 못한 문장, 그리고 작품 중간의 혼란스러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호함을 준다. 필요 없는 문장이 너무 많은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역량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다시 한 번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다.

끝으로 응모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치열한 응모가 치열한 글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당선에 들지 못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작고 외로운 치열을 감행하고 있는 용인문학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덧붙이며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응모했던 분들이 용인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문학의 길에 동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심사위원 : 김종경 박후기 이향란, 주영현, 안영선, 손영란)

배드민턴 외 2편

고민정

죽은 새 한 마리 떨어진다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그녀의 가슴께로 떨어진다
여자는 배드민턴 채로 힘껏
그 시든 새를 길어 올린다
툭- 뿜겨 나오는 날개
갑자기 퍼덕이며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
핑그르르 구겨진 날개를 펴고
부드럽게 비행하는 어린 새
이편에서 목련 한 송이 날아가고
저편에서 매화 한 송이 피어난다
젓가슴을 풀어헤치듯 허공에
통통 불은 몽우리를 터트리고
오래된 비행을 쏘아내는 늙은 주머니
네트의 이편과 저편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점 구름처럼
날마다 좁혀져 가는 자궁의 꿈을

서로 위로하며 숨차게 달려온 시간
톡, 균형을 잃은 공이 곤두박질친다
꺾어버린 날개에 묻은 모래알갱이들
여자는 그것을 주워 툭툭 던다
코르크에 박혀 단단히 굳어버린
가냘프고 나약한 것을 다시 세울 때마다
탁, 여자가 다시 피어올린 눈시울엔
여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함께 저물어간다
산 너머 붉은 황혼이 열기구처럼 퍼져간다

우주의 배꼽

누군가 빛을 들인 씨앗 하나,
여자는 서서히 제 몸에 방을 들인다
깊이 안을수록 희미해지는 중력에도
물은 제가 흘러온 길을 기억한다
그녀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
지상의 숨은 요새에 도착했을 것이다
지구, 그 중심계의 아픔을 간직한
마지막 별 하나가 미처 건조되지 못한
시간들을 온몸에 흠뻑 껴안고 있다
조금씩 비에 젖어 붙들려 오는 새벽,
칠레 산티아고는 지금 활화산이다
마그마가 끓어오를 준비를 마치면
커다란 분화구 속 뜨거운 증기는 이내
가장 깊고 푸른 계곡으로 천천히 빠져나오고
일제히 공간을 채우던 지구의 관제센터는
늙은 별들과 마지막 교신을 마친다
소금이 물을 밖으로 천천히 밀어내듯
점점 아득해지는 세상 귀퉁이로
10, 9, 8, 7…… 3, 2, 1 발사!
지금 막 조산원에서 무의식의

단혀 있던 배꼽을 쏘아 올리자, 하늘로
올라가는 대지의 붉은 밭이 팝콘 같다
이제 막 제 궤도에 인공위성을 들이고 있다
첫 우주의 피비우스 숨결로 수유했을
그녀의 선흥빛 거친 가슴 위로 봄날
햇살이 셀로판지처럼 자지러진 채
우주에 공급하던 생의 벽찬 눈물이
대기권 아래로 고스란히 예 돌아온다
일만 년 전 분출을 멈추었다던 은빛
꼭지를 찾아 무지개를 수놓은 조등만
한 번 더 끓어 올릴 준비를 한다

안데르센의 바다

꽃병에는 더 이상 낙타가 살지 않아요.
단지 물고기들은 벽화를 그리고 있을 뿐이죠.
빛도 새도 동굴도 가면무도극 같았어요.
웅덩이마다 가지런한 물기둥을 뒤집어 쓴
무수한 전각기호가     휩쓸려 왔죠.
수신호는 생각보다 꽤 놀라운 발명이었어요.
응용 동작을 가꾸면 리듬 체조 선수 같았으니까요.
제철에 버려진 화관의 꽃잎을 리본처럼 끌고 와
나는 식물인간에게 꽃밥을 실어 날라야 했어요.
환상이란 유성음의 오랜 목관이었을 거예요.
인어공주의 허리춤엔 상시 비늘을 숨아 널
물뿌리개나 소독제가 향신료처럼 매달려 있었죠.
우물가의 언어론 결코 꽃말을 삼킬 수가 없을 때,
‘아이야,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띠를 두르고 있는
청동의 목소리는 마치 기나긴 현의 세상 같았죠.
올 봄엔 집안의 백열등을 새로 갈아 끼우기로 했어요.
노을은 거대한 복어 껍질 같은 무희의 중원에서
목화씨를 한껏 지어 부리는 걸요. 괜찮아요,
더는 이곳에는 고장 날 일이 없을 거예요.

꽃꽂이는 얼마나 상쾌한 학습법인지 몰라요.
다만 이탈리아 탱고는 참으로 긴장감 넘치죠.
구름은 흠냄새 나는 세월을 벗고 뜰이 되라 하셨죠.
달이 천리장성을 귀로 되감아 공전하는 동안
쪽거울만한 밤에야 책을 파묻어요, 별이
빛나는 물의 가슴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했죠.
예의 없는 저녁 식사가 악기의 악보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테르센을 다시 읽는 중이에요.
설사 자고 깨면 사라지는 환상극일지라도
애드리안 브로디*의 복화술 연기는 끝내주니까요.
자가 태양이 가죽 한 필처럼 아른거려 와요.

* 영화배우.

스무 살, 대학교 MT 때였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과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동해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잡고 놀았던 때였습니다. 문예창작 학도인 저는 글에도 여러 장르가 있음에도 유독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시로 썼습니다. 새벽녘 골목에서 들려오는 가는 고양이 울음소리도, 아버지의 비에 젖은 발자국 소리도 다 시로 썼습니다. 그 당시 MT 때 학과 사람들끼리 치렀던 백일장에서도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선배가 제 시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배야 이건 시가 아니다, 이건 시가 아니니까 찢어버리자.” 썼던 시를 다시 읽어보니 그 선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 자리에서 시를 쓴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실 때 그 선배는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게 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오징어잡이 배의 전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저 중에는 분명 많은 불들이 중간에 꺼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불을 밝히며 가는 사람은 푸르른 인생의 봄을 맞볼 것이다.”

당시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에 대한

열정보다 이력서에 매진하는 청춘(靑春)이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들으면 시와 시 아닌 것을 가르고, 그걸 찢어버리자고 했으니 낮 뜨겁게 들릴지 모를 대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학의 진정성을 토로하던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만 묻혀버린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게 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달려온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시심(詩心)을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유학 중인 특별한 그 선배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과 용인문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숲을 가꿀 수 있는 열매를 주신 이시영, 안도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민정 | 프로필

1989년 인천 출생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4학년 재학

지붕 외 1편

장미숙

며칠 동안 진통에 시달리느라 울부짖던 하늘이 오늘은 잠잠하다. 먹장구름을 몸에 휘감고 장맛비를 쏟아내며 신음하던 하늘의 진통이 멈추자 세상도 고요하다. 한차례 휩쓸고 간 천지의 진통은 말간 세상을 잉태해 놓았다. 먼데 산이 푸른빛으로, 다가오고 며칠 사이에 훌쩍 커버린 나무는 초록빛 숨을 뿔어내고 있다.

비에 씻겨 해맑은 아파트 지붕 위에서 뭉게구름이 숨바꼭질을 한다. 지붕이 유난히 단단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날은 폭우가 쏟아지고 난 뒤 활짝 개인 다음날이다. 그런 날 지붕은 더욱 낮게 엮드리고 품은 더욱 넓게 벌린다. 지붕 아래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축축한 마음까지 품기 위해서다. 그런 지붕을 가진 사람들은 지붕이 주는 안온함에 기대어 자신을 품어 주던 손길을 생각하기도 한다. 깃들여 산다는 건 따뜻하고 담숙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지붕의 존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오해들을 감싸고 보듬어 주는 것에 익숙한 지붕은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 패잔병 처럼 지친 몸을 다독여 주는 지붕의 영역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폭우가 쏟아져도 집안으로 스며들 일

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지붕을 가진 튼튼한 집에서 살 생각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아파트는 구조상 지붕이 맨 위에만 있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10층은 9층의 지붕이 되고, 9층은 8층의 지붕이 되는 셈이다. 이른바 지붕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지붕이 되므로 지붕이 주는 미학적, 철학적 의미는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가족이란 단위로 뭉쳐진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건 틀림없다. 안전한 지붕 아래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밥상을 함께 할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사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이다. 그건 지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을 가장 가족답게 하는 건 지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한 지붕 아래’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정다움과 친근함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남이라는 단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함께 많은 걸 공유한다는 건 끈끈한 정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포용력이 넓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살지만 같은 지붕아래 살고 있으니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한옥이나 초가집의 멋스런 풍경을 만들어 주었던 지붕은 아파트라는 현대식 건물을 만나면서 새로운 의미로 변해 가고 있다. 아파트의 지붕은 이제 하나의 집을 나타내는 고유 표현이 아니라 공통의 언어가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은 여전히 포근하고 따뜻한 어감으로 다가온다. 지붕은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쉼 곳이라는 의미를 먼저 인식시켜 주기 때문이다.

예전 기와나 슬레이트 지붕조차 흔하지 않았을 때 나는 초가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가집은 구조상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 진흙으로 벽을 바르고 나무로

기둥을 세운 다음 지붕은 짚을 엮은 이엉으로 마무리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집을 짓다보니 짓기는 쉬웠지만 지붕은 수명이 짧았다. 해년마다 가을이면 추수하고 난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새로 얹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뒤따랐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은 이엉을 새로 얹지 못하고 지나가는 해가 많았다. 당시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집안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새 지붕을 얹지 못한 해는 빗물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짚이 썩어서 흐르는 물은 냄새도 많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마음까지 축축하게 만들었다. 신문지로 대충 발라놓은 벽지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벽을 새카맣게 만들고 가재도구도 망쳐 놓았다.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 나는 비오는 날이 제일 싫었다. 빗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먼저 젖기 시작했고 지붕이 내려앉을 것만 같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비를 품고 몰려오던 먹구름만큼이나 어둡던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운 시절이었다.

안전하지 못한 지붕을 가진 것에 대한 무력감은 열등감을 심어 주었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지붕을 반듯하고 안전하게 고쳐야 할 아버지 대신 어머니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작은 어머니의 몸이 지붕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보장받지 못한 가족의 안전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였다. 빗물을 막아 내지 못하는 지붕은 아버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병처럼 무겁고 우울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비닐로 씌운 지붕을 덮었지만 비가 새는 곳을 다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빗물보다 더 굵은 눈물을 뿌리며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가슴의 상처를 빗물로 씻으며 어머니는 온몸으로 자식들의 상처를

덜고자 했다. 이듬해부터 어머니는 직접 이엉을 엮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안전한 지붕을 갖지 못한 자식들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지붕이 되었다. 어렸을 적 내게 지붕은 그런 것이었다. 비가 새는 지붕은 지붕이 되어주지 못한 아버지의 빈자리였고 어머니의 지붕은 어둠 속 한줄기 희망 같은 것이었다.

몇 년 뒤,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지붕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빗방울이 기와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는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내게는 음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귀뚜라미 소슬하게 우는 밤, 휘영청 떠오른 달빛에 지붕은 더욱 돋보였다. 용마루에서 처마 끝으로 흘러내린 지붕의 선은 고왔으며 고즈넉했다. 지붕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붕을 바라보는 일이 즐거워졌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새 나도 한 가정을 지키는 지붕이 되었다. 아니, 지붕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한없이 부족하다. 어머니처럼 지붕에 올라가 비를 막을 일도, 지계를 지고 산을 오르내릴 일도 없지만 가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도, 편식을 하는 것도,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도 모두 내가 지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만 같아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내가 본 아름다운 지붕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절실함이 가슴에 차오를 때다.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주관적인 감정보다 객관적인 이성의 눈을 키우기 위해 내가 본 아름다운 지붕을 떠올린다. 그 풍경 속에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어떤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내 어머니의 주름 가득한 얼굴이 있다. 

깊은 방

“나도 살길이 막막하지만 그 엄마를 보니 정말 걱정이더라. 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모두 어려.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육학년이라는데 성격이 장난 아니야. 그 엄마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모르겠어.” 전화를 한 혁이 엄마 목소리가 침울하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더위 때문일까. 그만 숨이 턱 막힌다.

깊은 지하실은 철문을 닫으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마치 인간 세계로부터 유폐된 듯 어둠속에 멍하니 서 있었던 그 찰나에 사십년 넘는 내 삶이 빠른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느 한 순간도 평온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어느 한 순간도 두려움에서 자유롭던 순간이 있었던가. 왜 나왔을까. 이곳이 내 삶의 종착역일까. 내가 선택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신에게 따지고 싶은 말들이 목울대에 걸려 울컥대는 순간에도 어둠보다 더 강한 추위는 뼈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불이 켜지자 지하실은 일자형의 긴 터널 형태로 되어 있었다. 양쪽에 있는 육중한 철문이 파수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지를 가늠했다. 여러 개의 방문 중 가운데 방문 앞에 멈춰선 소장은 내 등을 떠밀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지하실이 깊어서 그런지 천정이 무척 높은 방이었다. 방에는 싱글침대하나,

두 칸짜리 옷장, 텔레비전과 책상, 그리고 작은 행거가 전부였다. 방은 깨끗해 보였고 오래 비워 두었던 듯 익숙하지 않은 방향제 냄새가 홀로 방을 지키고 있었다.

소장은 난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 정도 방문을 노크했다. 햇빛이 한 조각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쪽문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기웃거리는지 창문이 덜컹거렸다. 가져온 옷가지를 대충 정리하고 이불을 펴고 앉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방은 따뜻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춥다고 침대에 웅크려 있던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가늘게 코를 골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 아이의 얼굴이 내 절망보다 깊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내 안에 웅축되어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혼자가 되자 발끝으로부터 살아나 내 의식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내 생애 가장 추웠던 밤으로 기억된다.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가시지 않던 추위가 뼈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그 밤에 나는 나를 쫓는 발자국 소리를 피해 지하실 철문을 뺄까 으스스하기도 붙들고 있어야 했다. 깨어 보니 머리에 추를 달아놓은 듯 묵직한 통증이 온몸을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십여 일 동안 나는 깊은 지하방에서 꿈과 현실, 망상과 환상 사이를 오가며 침묵 속에 갇힌 내면의 아우성들을 다스려야 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서 나를 느끼고 내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곳은 절망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에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는 용기가 생기고, 인생과 거친 몸싸움이라도 해보겠다는 오기도 생겨났다. 하지만 엄마들은 웃고 있어도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 했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들이 인식하는 뒤틀린 운명은 신도 대신해 줄 수 없

는 그들만의 외로움이고 고통인 까닭이었다.

폭력에 길들여진 마음속 안전장치는 외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아프게 의식해야 하는 날들이었다. 엄마들은 자주 놀라고 아이들은 순간순간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다. 눈치에 익숙해진 반사 신경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감정을 묶어버렸고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 대신 변명과 핑계거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엄마들은 한숨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다스렸다. 체념하고 절망하는 사이에 자라게 된 원망과 분노, 좌절이 눈물과 열등감에 뒤섞여 말 속에 묻어나오곤 했다.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며 한 가닥 희망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외감은 또 다른 눈물의 원천이었다.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었다. 소장은 비교적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옷가지며 먹을거리, 책과 생활 용품들을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 생활 능력을 결박당해 버린 엄마들은 헌 옷에 밤새 바느질을 했고 입에 맞지 않은 먹을거리에도 눈을 반짝였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보다 정신적인 안정과 안전이 필요했던 사람들, 남편들의 폭력을 피해 입은 옷 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다. 가정이란 도덕적 이름은 힘없는 엄마와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엄마들이 선택한 곳은 법으로 울타리를 친 보호소였다. 법이 지켜줄 수 있는 곳, 남편들이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생활하는 법을 배워 갔다. 누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의 절망과 소외를

맛본 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갔다.

생활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 법, 먹을거리가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아는 법,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법, 그리고 희망이 없는 남편이나 아빠들에 대한 연민과 원망을 거두는 법을 배웠다. 숨어 지내는 엄마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어 아파도 참고 아이들은 학교에 오가는 게 커다란 모험이었다. 더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폭력의 근본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대화를 시도했다. 성공과 실패는 신만이 아는 인간 능력 밖의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가정을 보존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었다.

나와 아이에게 주어졌던 혼돈의 나날들은 사 개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사람을 믿기보다 신이 빼앗아가 버린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라고 내 마음을 다독거리던 날, 남편은 오래된 고목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나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보호소에서 지내는 동안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 엄마들은 평생 숨어 지내거나, 종지만한 법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선택하거나 치료와 상담을 통해 다시 마음속에 숭고한 믿음의 싹을 틔우는 등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다. 엄마와 아이들에게 걸린 운명의 고리가 어떻게 풀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이라는 체 바퀴는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갔다.

오늘 비록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지라도 사람들은 늘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일의 삶을 설계한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희망은 충분하다는 걸 배운 시간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면 난 지난 사 개월의 철축 같았던 어둠을 생각한다. 철문을 닫으면 온전한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그 날들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을 스쳐간 엄마들과

아이들의 눈물이 공기 속에 섞여 부식되지 않은 삶의 의지로 남아 있었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앞서 간 사람들이 남긴 침묵 속의 수많은 말들은 매일 내 삶을 채찍질하는 아픈 형벌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어떻게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할지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이 신은 내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렇게 믿는 순간 내 안에 숨어 있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세상 밖에서 세상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겼다는 걸 나는 깨닫는다.

나와 아이가 눕고 앉았던 자리에서 이 순간 또 다른 사연과 절망을 몸에 두른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잘 것이다. 아직 철없는 아이 셋을 바라보며 눈물의 강을 건너야 하는 엄마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하던 공간을 떠나 생소한 생활에 적응하느라 손톱을 물어뜯을 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든 반항과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철저한 외로움을 삭히느라 어두운 지하실에 뿌려질 엄마의 눈물을 생각한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때로는 신을 애타게 찾을지도 모를 일, 그나마 참 다행이다. 어린 아이들이 견뎌내기 힘든 뼈가 시린 겨울이 아닌 것만은……. 

참으로 오랜만에 떠난 가을여행이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만 다녀왔던 여행이라 설렘은 더욱 컸습니다. 짧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했기에, 또한 가을이 속속들이 들어찬 곳을 둘러보고, 가을바람을 가슴 속에 들일 수 있었기에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미련 하나 기어이 고개를 쳐듭니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여행은 또 다른 나를 만날 좋은 기회이지만 종결점이 아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넓고, 보고 느끼며 가슴 속에 들여야 할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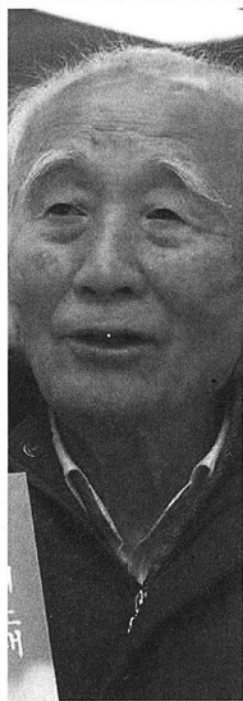
글쓰기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글쓰기의 세계 또한 무한하고 끝이 없음을 느낍니다. 다가가면 또다시 제자리처럼 실재를 보여주지 않는 글쓰기, 그래서 그 속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과 즐거움도 있는 것이겠지요. 한 계단 올라섰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가도 올려다보면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을 향해 오늘도 미약하나마 한 발짝, 두 발짝 떼어봅니다. 마치 갈 수 없지만, 너무나 가고 싶은 머나먼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친구랑 함께 가을여행을 가던 날,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행이 훨씬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메달라 있던 제 마음의 글밭을 좀 더 열심히 가꾸어야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 주고, 다독다독 품어주기도 해야겠습니다.

부족한 글에 생명의 혼을 불어넣어 주신 용인문학 신인상 심사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장미숙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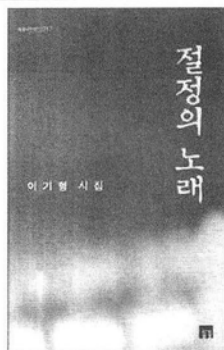
1965년 고흥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제2회 천강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제10회 동서커피문학상 수필부문 은상



들꽃시인선_012
절정의 노래
이기형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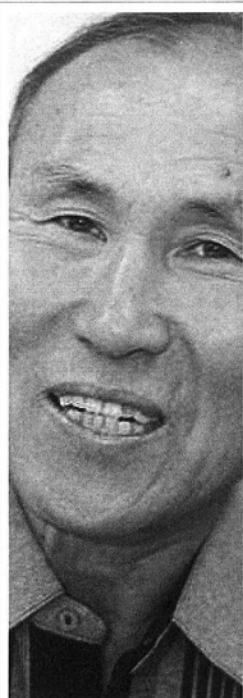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기형 지음 / 정가 7,000원
들꽃출판사



시란 인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하여 시인들은
조그마한 인간의 아픔에도 그걸 외면하지 못하고 늘 고뇌한다.
특히 이기형 시인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조국 분단의 그 두
터운 장벽을 어서 걷어냈으면 싶은 열망으로 늘 들떠있다. 때문
에 그분은 백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에 대한 열
정과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 분은 언제나 현역이고
야심찬 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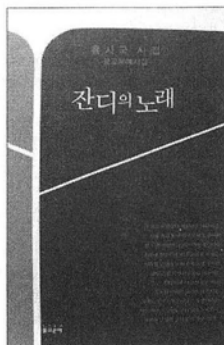
- 남정현 소설가



홍사국 시집
잔디의 노래
불교문예시집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홍사국 지음 / 정가 7,000원
불교문예출판부



용인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쓰는 홍사국을 시농(詩農)이라
부르고 싶다. 시를 짓는 농사꾼으로, 그는 순정한 영혼을 지닌
농경적 생활의 경작자이다. 농촌 생활에서 부딪히는 마음의 작용
과 운율을 섞어 시에 비료를 주는 시인이다. 그래서 잘 자란 그
의 시를 마음 양식으로 먹는 순간 마음이 맑고 밝아짐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것이 시의 기원일 것이다.

- 공광규 시인

| 회원 특 집 |



이 인 숙

1949년 서울 출생으로 60대의 늦은 나이인 2010년 《자유문예》 신인상을 통해 시 「폭포」와 「개나리」가 당선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있는 서울시립영보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해인 시인을 좋아하다가 시인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이 시인은 2009년 5월에 10년 동안 시를 써 모은 것을 요양원의 도움으로 『새벽을 바라며』라는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달에 꽃 피다 외 7편

이인숙

둥근 달에 연분홍빛
꽃들 피어나 눈을 황홀하게 한다
붕어가 헤엄치고 있다
동굴도 보인다
저 너무 달 속에 달이 보인다
임 품같이 뜨는 저 달에는
꽃의 향기가 돌았다
달 밝은 밤에 부르는 임의 노래는
사랑이다

눈 뜬 밤 더욱 그리워지는 빈자리
손닿으면 터질 듯 이슬방울 같은
사랑을 꽃피우는

민들레

금방 본 너는 노란 동그라미
노란 나비가
운동장에서 나부낀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아니 온 천지다

앉아 있기만 하는 너는
노란 망석

코스모스

이리 오세요
바람이 손을 내밀어요
반가워 고개를 까닥거려요
다가가기 전에
난 알아보았다
빛나는 해를 보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세요
즐거운 바람 소리 들으라고
호호 하하
한들거리는
너를 알아보았다
꽃길을 걸으며
코스모스
네가 웃는 소리를 하늘에서 듣는다

서글픈 계절

여름이 단풍이라는
직행 열차를 타고
가을로 치닫는다.
여름의 햇살이
소낙비로 부서져
시원한 냉기는
나뭇잎들이 염색하는데 한뭇을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벌레 소리에 묻어와
창 밖에 밝은 달에 걸렸다
우리 이야기는
가을 향해 익어가는 열매
사과 향기가
내 코에 향긋하다
낙엽은 싫어, 혼자는 싫어
외치지만
여름은 슬퍼진 지 오래다

눈

색은
하얀,
그러게 머문 자리에 죽음도 숨죽인다
네가 휘두른 붓 자루 끝에
설화 피어났다

오이지

커다란 애벌레가
밥을 훔치러 우리 집 독에 누워 있다
흰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독 안에 가득하다.
밥 도둑 애벌레가 빠져 죽었다
흰 파도는 바위에 넘친다

바다에서 잡아 찬물에
헹궈져서
네모나게 잘린 뒤 식탁에 올려졌다
애벌레의 살이 뭉클거린다
손가락 지문까지
애벌레의 뱃살같이
주름지다

밥 도둑이라 했다
바다의 맛
어머니의 손맛

손수건

백지에 글자 적으면 검게
활자가 남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 백지에 검게 남겨진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수건이 많은가 내 곁에
흐르는 눈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 아닐까

내 흐르는 눈물을
그대가 있어 닦아 줄 것인가
어미 아버지가 닦아 줄 것인가

오로지 너 흰 명주 수건은
아니 물 바랜 수건이나마
어쩔 수 없이 끝없이
소리 없이 흐느낌을
닦아내 주는
유일한 위로자인 걸

푸름의 아픔

네 푸른 새잎 속에는
지난날 흉악한 나날의
느낌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부끄러워도 숨길 수 없는
자신이 먼저 알고 있는
겨울의 흰 눈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
새 봄바람이 불어와
모두 드러나게 되고
아, 나는 그 덕분에
새 살이 돋고
새 푸른 잎을 달았다
그 누가 내게 과거가 있다고 놀랄까
눈앞에, 현실이
이렇듯 푸르고 새 맑은 것을

모든 푸름에는 아픔이 있다

이인숙 마리아 선생님께

주영현

이른 아침 선생님의 시를 읽었습니다.

시인이라면 시를 많이 읽어야 하지만, 게으름 탓에 저는 시를 잘 읽지 않는 시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시는 한 호흡으로 읽었습니다. 창 밖에는 떨어지는 빗방울을 타고 선생님 시 속에서 어떤 느낌들이 푸른 잎들을 돌아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이 멈춘 시는 민들레입니다.

예전에 둘째가 암기했던 「민들레」라는 동시가 기억이 났습니다. 참 좋은 시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시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민들레를 노란 나비처럼 노란 방석처럼 표현하고 있는 묘사는 민들레의 노란 꽃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핀 꽃은 화려한 묘사보다는 이렇듯 담담한 묘사가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보니 선생님의 시에선 꽃에 대한 시가 눈에 띄니다.

「코스모스」란 시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반가워 고개를 까닥거린다는 묘사는 아이들처럼 순수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시를 보며 동시를 써도 참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순수한 마음, 아이들과 같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기에,

선생님의 시가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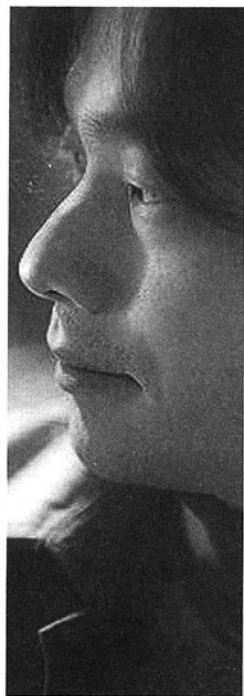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의 시가 기성 시인의 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시가 다 좋을 수 없겠지만 몇몇 시는 제 가슴을 놀라게 합니다. 선생님의 시 중에 짧은 시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시죠. 짧은 제목만큼 문장도 짧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짧은 시이니만큼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계신다면 이 시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지」의 묘사는 김기택 시인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묘사, 보이지 않는 것을 묘사하는 힘은 시인인지 시인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생님은 시인이십니다. 좋은 시인이십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은 어려워도, 그 환경은 선생님의 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짧은 지면 관계로 접겠습니다. 나머지 띄우지 못한 사연은 올겨울 함박눈에 담아 선생님께서 사시는 곳 근처에 뿌리겠습니다.

「눈」처럼 올겨울에도 좋은 시 많이 쓰십시오.

시 쓰는,
주영현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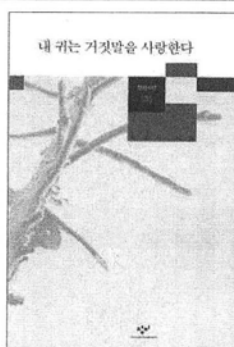


창비시선_305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박후기 지음 / 정가 7,000원

(주)창비



박후기의 시는 새롭다. 소위 '미래파'의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물과 현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만의 진지하고 신성한 눈이 있어서 새롭다. (중략) 그는 앞으로 한국현대시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시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 정호승 시인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서정시학 시인선_48

물의 낮에 지문을 새기다

박완호 지음 / 정가 9,000원

서정시학



박완호 시집 『물의 낮에 지문을 새기다』. 시인은 욕망이 거세된 시선을 통해 인간 존재가 지나는 고독과 비극에 관한 사유를 명징하게 드러냈다. 또한 삼십 년을 일했어도 자신의 손등이나 찡고 마는 서툰 목수였던 가난한 아버지, 아버지보다 16년 일찍 세상을 뜬 어머니에 관한 유년의 내력을 접할 수 있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기획 특집 |

용인신문
「박후기」

박후기 시인의 울림을 주는 시



여기에 소개되는 시와 글들은 2년 가까이 <용인신문>에 매주 연재하고 있는 「박후기의 울림을 주는 시 한 편」에 실린 작품 중에서 추린 것이다. 특별한 기준을 두고 고른 것은 아니므로, 따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필자가 평소 일과 만남을 통해 기록해 둔 사진을 덧붙일 수 있는 시인 위주로 정했음을 밝힌다.

글 / 사진 : 박후기

긍정적인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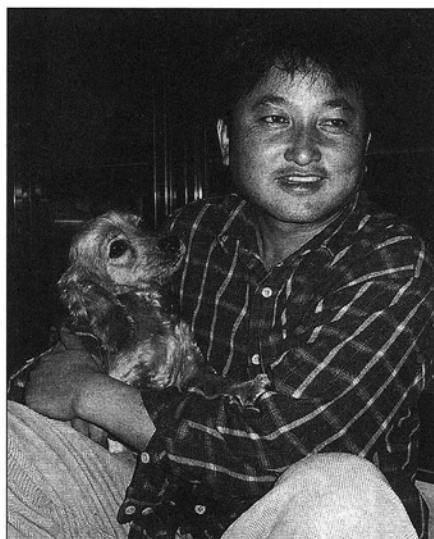
함민복

詩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험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 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밥, 하고 발음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찢해진다. ‘밥 먹고 산다’는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대장정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십 몇 년 전, 함민복 시인과 나는 명동성당 앞 허름한 지하 살롱(막걸리 집을 그렇게 불렀다)에서 며칠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곤 했다. 오월에서 유월, 그 뜨겁게 달구어진 백주대로를 따로 또 같이 뛰어다니다 해 지면 하나둘 지하 살롱으로 내려와 밤들이 노닐곤 했던 것이다. 안주는 주로 파인애플(단무지), 허기와 눈물과 막걸리 범벅이 되어 몇은 노래 후렴구와 함께 쓰러지고 또 몇몇은 밤늦도록 시와 밥을 이야기 하곤 했다. 아주 가끔, 그가 사는 강화도에 가서 형편 좀 나아졌다고 파인애플 대신 회를 시켜 놓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박리로 살다 가는 게 우리네 인생. 누구든 마지막 순간엔 생의 원금인 목숨마저 헐하게 내놓아야 하는 법, 그래 이왕이면 이자보다는 이쁨을 남기고 가자. 상처보다는 사랑을 남기고 가자.



2004년 3월, 강화도 동막리
시인의 집에서

삼베옷을 입은 自畫像

조용미

폭우가 쏟아지는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방을 凌雨軒이라 부르겠다
능우현에서 바라보는 가까이 모여 내리는
비는 다 直立이다
휘어지지 않는 저 빗줄기들은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 내려온 것이나

손톱이 길게 째 갈라졌다
그 사이로 살이 허영게 드러났다
흰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치마를 펼쳐들고 물끄러미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입은 두꺼운 흰 삼베로 된 긴 치마
위로 코피가 쏟아졌다
입술이 부풀어올랐다
피로는 죽음을 불러들이는 독약인 것을
꿈속에서조차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窓봉투처럼
영롱한 사람이란

얇은 비닐봉지처럼 위태로운 것

명왕성처럼 고독한 것

직립의 짐승처럼 비가 오래도록 창 밖에 서 있다



2009년 9월, 강화도 분오리 돈대에서. 뒤에 선 이가 조용미 시인.
그 앞엔 황인숙 시인.

스티브 잡스가 영면했다. 나는 아이패드의 열렬 유저이기도 하지만, 아이패드를 만질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직관과 단순함의 철학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나 역시 시를 쓸 때 예의 그 ‘단순함의 미학’을 고민했기 때문에, 부음을 듣는 오늘 저녁, 그의 타계가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버스 안에서, 잡스의 부음을 듣고 조용미의 시 「삼베옷을 입은 자화상」을 생각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窓봉투처럼/ 영롱한 사람이란/ 얇은 비닐봉지처럼 위태로운 것/ 명왕성처럼 고독한 것’

스티브 잡스는 늘 죽음을 생각했다.

다음은 죽음에 관한 그의 말 한 마디.

“내가 곧 죽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앞에선 모든 외부의 기대, 자존심, 당혹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녁눈

박용래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첫눈을 기다리다 「저녁눈」을 꺼내 읽는다. ‘눈물의 시인’이라 불리던 박용래 시인은 1980년 11월 21일 눈감았다. 그 날, 조문객보다 씨락눈만 그의 빈소에 봄볕인지 모르겠다. 그토록 맑고 슬픈 눈망울을 가진 시인은 하도 가난해서 “딸의 등록금을 빌리러 와서는 하루 종일 울다 가”(故 이문구)고, 후배 시인이 건넨 “막걸리 한 대접을 받아들고는 또 하루 종일 울었다”(이근배 시인)고 한다. 인간 내면의 ‘울림’이 사라지고 포성의 울림만 들려오는 이 겨울 저녁, ‘울음’이 사라지고 자화자찬 폭죽만 난무하는 문단을 생각한다. 기왕 엮어진 마음, 막걸리 파는 ‘말집(추녀를 사방으로 뺀 두른 집)’ 침침한 탁자에나 걸터앉아야겠다. 눈발이라도 들이치면 더욱 좋고.

사소한 물음에 답함

송경동

어느 날

한 자칭 맑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찾아왔다

얘기 끝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 동지는 어느 대학 출신이요?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해방전쟁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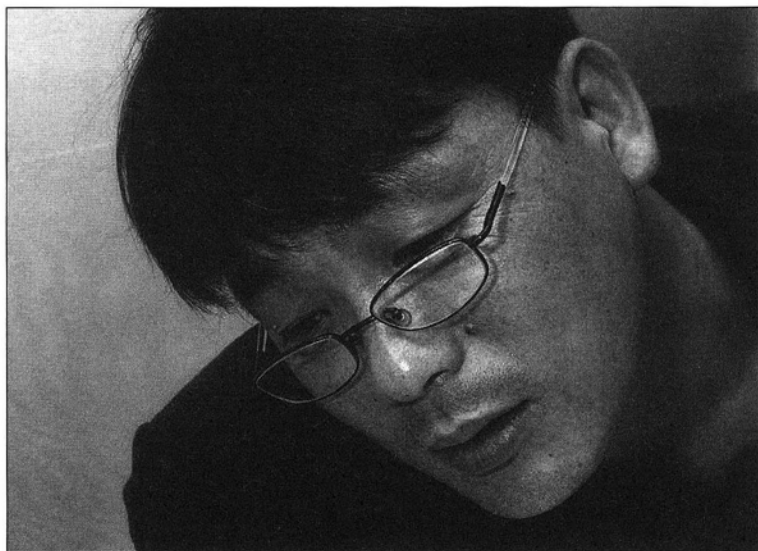
십 수 년이 지난 요즈음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 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다물결에 밀리고 있고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
 건너차인 좌판과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해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2009년 4월 흑석동의 한 카페. 『실천문학』 인터뷰를 위해
 송경동 시인을 만났다. 피곤한 그를 붙잡고 묻고, 찍고, 마셨다.

2003년, 고향인 평택 대추리 논바닥에서 처음 송경동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껏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소하고 낯고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기로서니 어느 시인이라고 다를까 마는, 그의 행동과 말과 시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대추리, 기룡전자, 콜트 콜텍, 용산 재개발지구, 한진중공업 등 억압 받는 이들의 싸움터에 늘 그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와 예술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희망버스 연대 투쟁 또한 그의 고민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시가, 예술이 꼭 현실에 복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술과 시민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했을 때, 그 사회는 악의 영역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은 머지않아 당신을 찾아와 대문에서 초인종을 누르게 될 것이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남일당 건물 희생자 영정 앞에 선 송경동 시인.
며칠 뒤 그에게 수배령이 떨어진다.

체 게바라에게

김요일

친구, 잘 있었나

어딘지 알려줄 순 없지만 국경 너머의 외곽 도시에 와 있네

벌써 몇 년 됐지 가끔 쓸쓸하기도 하다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술도 있고 여자도 있다네

주일이면 시골 성당 성가대에 앉아

Miserere mei*, Miserere mei 찬양하고 있어

세상을 살해하지도 못하고 떠돌다

이곳에 흘러든 건 혁명에 실패해서만은 아니지

인간은 용서받기 위해 존재하나 봐

결혼 한 번 못해본 검은 옷의 녀석들에게

고해를 하진 않지만

Miserere, miserere 화음을 맞추다 보면

불협화음의 대위법으로 어깃장 놓던

잔인하고 불량했던 진압군 시절마저 용서받는 기분이 드니까

성경책을 넘길 때 비릿한 슬픔이 책장에서 풍겨나는 까닭은

우리 손에 배었던 죄 냄새가 묻어있기 때문이야

신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눈이 마주치면 입가에 살짝 미소를 걸어주지

찾지 마 잊지도 마
이곳에서의 이름은 이방인 K,
아직 담배는 끊지 못했어

* ‘궁홀히 여기소서’라는 뜻의 라틴어.



2005년 11월, 카페 사막에서 웃고 있는 김요일 시인.

이제 더 이상 낭만주의자는 없다. 혁명을 이야기하거나 끝없는 논쟁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혁명가도, 외상술을 마시는 시인도 없다.

‘불온서적’이란 말이 다시 등장한 영혼의 구석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사랑도 사고팔고 혁명가의 얼굴마저도 사고 팔리는 자본 만능의 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일요일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속으로 한 마디 Miserere mei.

그러나 쫓, ‘신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이다. 낭만을 모르는 사람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른다고? 피가 식은 시인의 시일지라도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모두 허튼소리.

등단한 지 20년, 시집 한 권이 한 편의 시로 이뤄진 첫 시집 『붉은 기호등』 이후 17년 만에 『애초의 당신』이란 시집을 펴낸 김요일 시인. 그는 진정 시를 기다릴 줄 아는 시인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김 산

무럭무럭 늙던 할머니의 왼편을 바람이 쓰러뜨렸네
시누대처럼 꼬장꼬장한 할머니의 허리가 도루코 날처럼 접혔네
손목이 접히고 입이 뒤틀리고 무릎이 오그라들었네

영금영금 할머니는 학교 갔다 온 나에게 엄마, 엄마, 불렀네
배고파, 배고파, 저 년은 밥도 안 주고 서방질만 한다고,
엄마, 엄마, 나물에 고기반찬 좀 해줘, 어린 내게 졸라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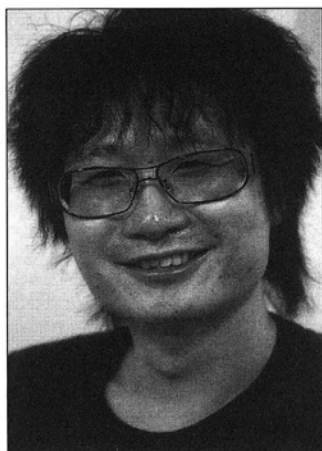
나는 양푼 가득 장조림과 콩나물을 비벼 바람의 아가리에 들이
부었네

반은 흘리고 반은 바람이 먹고, 반은 흘리고 반은 바람이 마시
고,

똥똥해진 바람이 가게의 비닐 창마다 손가락만 한 구멍을 뚫네

어느 가을, 학교 갔다 오니 할머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네
스테인리스 오강 단지를 타고 지붕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셨네

나는 요즘도 문득문득 양푼을 들고 바람의 入口를 더듬거리네



2008년 8월. 등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김산 시인.

이제, 우리들의 할머니는 모두 시골집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다. 살아 있어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란 말은 마땅히 ‘내 몸에 불 들어가기 전까지는~’으로 수정 되어야 한다. 아무려면 어떤가. 어차피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고 계신 우리들의 할머니들인 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머니는 만날 똑 같은 말만 해요’라고 말하는 철부지 아들이! 사랑은 원래 그런 것. 반복적인 관심, 관심의 반복, 스스로 다지는 다짐 같은 것.

연애할 때 사랑해, 사랑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백 번 말하고 들어도 질리지 않던 그 말을 어느 순간 이 아버지는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아들이, 너의 할머니가 내 어머니란 사실을 나는 왜 종종 잊고 사는 것이냐! 네가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사랑한단 말을 나는 왜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질 못한 것이냐!

단디해라

권혁재

가장 간절한 말이어서
짧다
가장 염려하는 말이기도 하여서
또 짧다

식전 첫차를 타고 객지로 떠나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태초의 말씀처럼 건네는 한 마디
처음 나를 독립된 개체로 치켜세우면서
세상 속으로 밀어 넣던 어머니의 목소리

병상에서 흐린 눈빛으로 나누던
한 박자 끄는 울림이
두레박 닿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고

술갈았을 굶는 듯한 유언은
애뜻하고 간절한 말씀이 되어
짧게도,
니, 단디해라.



2004년, 대추리에서 권혁재 시인.

‘단디해라.’

이 말은 경상도 사투리, 사랑과 염려와 기도가 담긴 어머니의 한 말씀. 이 말 저 말 속마음 다 꺼내지 못하는 경상도 엄마의, 단조롭지만 눈물 대신 건네는 말투.

첫차를 타고 객지로 떠나는 아들에게 ‘단디해라’고 말 건네던 가난한 엄마는 죽기 전 병상에서도 아들에게 한 말씀 남기시느니, ‘니, 단디해라’.

권혁재 시인은 아산만에 연한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가 고향이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다수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경상도 경주 영천 사람들이 일제 말 살길 찾아 철원으로 이주하였고, 전쟁 통에 다시 쫓겨 내려와 힘겹게 자리 잡은 곳이 신대리. 더 이상 생의 변방으로 떠밀릴 수 없던 바닷가 벼랑, 그의 부모는 이곳에서 지난하게 살다 갔다.

권혁재 시인은 고난의 가족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역사의 상처를 보듬는다. 「단디해라」를 읽으며, 나는 어쩌면 한 번쯤은 뵈 적이 있을 것도 같은 권혁재 시인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무슨 연유로? 내 조부모께서도 일제 강점기 때 충청도에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로 이주해 오셨으니, 바로 권혁재 시인이 살던 신대리 옆 마을이었던 것이다.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박 철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 원을 들고
영진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슈퍼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멀리 쭈욱쭈욱 쭈욱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다시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 밖 동그마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내 마음에 심은 향기 나는 나무 한 그루
마침내 영진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섰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 속 깊은 곳에서 쭉쭉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살면 살아진다고 해서 삶인가. 한없이 여린 시인이 돈 4만 원 들고 찾아가는 영진설비는 세상의 저 먼 끝에 있다. 끝까지 가 봐야지만 끝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시인은 돈으로 술과 향기를 바꿔 제 마음에 주곤 그저 아이의 눈썹을 바라볼 뿐이다.

가난과 결핵을 앓다 죽기 전 처지를 불쌍히 여긴 친구가 건넌 돈 5엔을 들고 1엔어치 목련꽃과 1엔짜리 화병을 샀다는 이시가와 다쿠보쿠(石川啄木, 1886~1912)처럼, 매 순간 순간이 세상의 끝이란 걸 알기에 박철은 한 송이 재스민 향기와 한 글라스의 맥주를 제 마음 속에 바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바보 같은 시인들(박철, 박후기, 박성우)만 남아서 기타를 통기며 노래를 부르던 지난겨울 그 애절한 밤을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은 날이다.

납골당 신축 감리일지

천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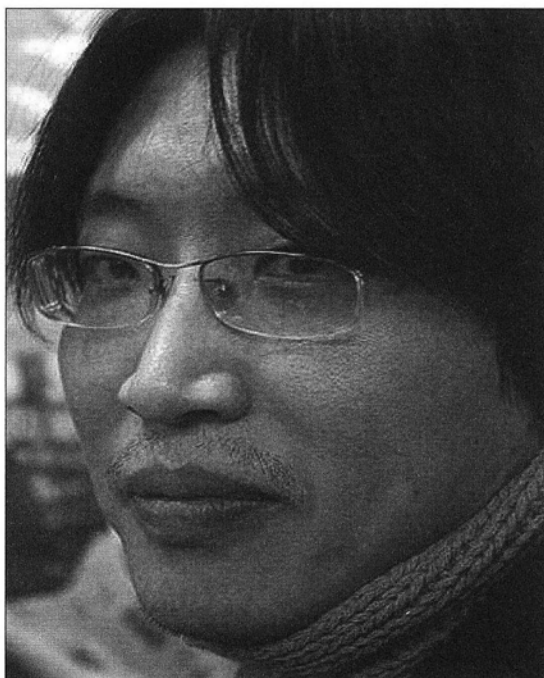
흥흥히 날 저문다. 魂의 입주일이 가까워오면서 이마에 손수건 붙인 사람들 출입 잦다. 언덕배기로부터 내닫는 바람은 당신의 할머니, 나의 삼촌이 통성명하는 것이므로, 풍하중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다.

합바[飯場], 아주머니의 고단한 손금이 허기를 불러 모으고, 작업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다. 보아라, 베어진 둔덕을 쥐고 휘청거리는 역세의 관절을, 관절을 꺾으며 죽은 자의 아파트가 자라고, 골골골 흘러내리는 위태로운 저녁의 벼랑들.

인부들이 모두 돌아간 뒤 드럼통에 남겨진 잔불을 끄다. 시공의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다. 비를 가진 구름이 북촌에서 몰려오는데 거친 내 영혼은 재설계가 가능할까. 흥측하게 드리난 계단탐 단부가 산자의 오만처럼 단단하다고 공문 띄우다.

어둠이 시끄럽다. 나무들이 자주 공사장까지 내려온다. 미리 집을 보러 오는 혼의 처연함. 입주를 위해 꼬박꼬박 부어온 햇살의 제좌는 숲처럼 두텁게라는 시방을 지우고 내 귀가 종이깍처럼 얇아졌다고 쓰다. 계통수를 묻어둔 자리에 말뚝을 박다.

지하 깊숙이 흐르는 물길에 대하여, 별들과 협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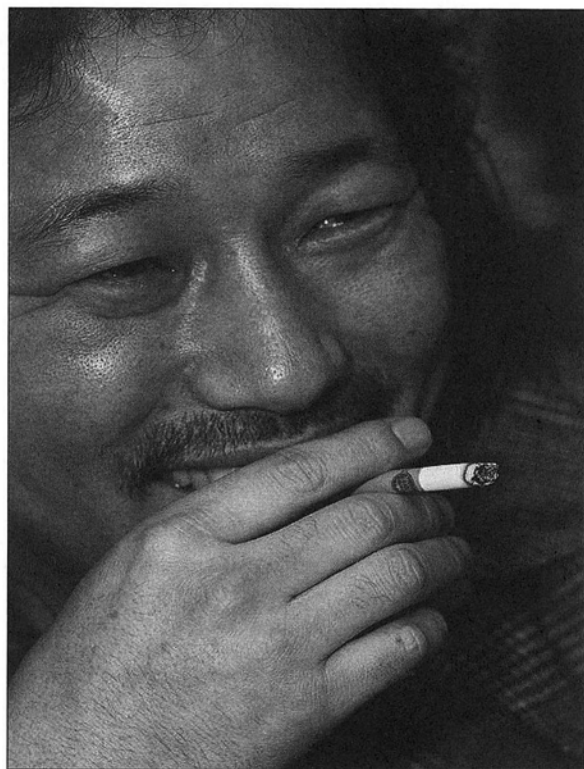
2007년 2월, 종로구 서린동 어느 술집에서 조우한
천서봉 시인.

천서봉, 그는 건축가다. 남골당 신축현장 감리 갔다가 집 대신
시 한 편 지었나보다. 무덤은 아마도 가장 오래 살 집일 터, 기초
가 든든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살아 있을
때 할 일이나 그렇다고 죽음이여, 너무 재촉하진 말자. 입주를 서
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모두 빈 들판에서 만나게 될 것을. 시인
이 되고 싶다면, 시인으로 남고 싶다면 적어도 생활 미학에 대한
천착이 천서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음악들

박정대

너를 껴안고 잠든 밤이 있었지, 창밖에는 밤새도록 눈이 내려
그 하얀 돛배를 타고 밤의 아주 먼 곳으로 나아가면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에 닿곤 했지, 산똥반도가 보이는 그곳에서 너와 나는
한 잎의 불멸, 두 잎의 불면, 세 잎의 사랑과 네 잎의 입맞춤으로
살았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스산한 벌판에선 밤새 겨울밤이
말달리는 소리, 위그르, 위그르 들려오는데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내 작은 나라의 봉창을 열면 그때까지도 처마 끝 고드름에 매달
려 있는 몇 방울의 음악들, 아직 아침은 멀고 대낮과 저녁은 더
욱더 먼데 누군가 파뿌리 같은 눈발을 사락사락 썰며 조용히 쌀
을 씻어 안치는 새벽,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2011년 3월, 홍대 앞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박정대 시인. 그는 담배를 즐겨 핀다.

사랑 때문에 ‘격렬’해져 본 사람은 안다. 필사적인 도피 또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은 결코 ‘비열’이 아니다. 사랑을 잃었다면 ‘음악 같은 눈이 내리는’ 겨울, 소주 몇 홉과 담배 몇 갑 ‘두 잎의 불면’과 함께 격렬비열도에 가보자. 격포 횃집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나보다 먼저 다녀간 첫사랑의 유품을 소주잔 속에서 건질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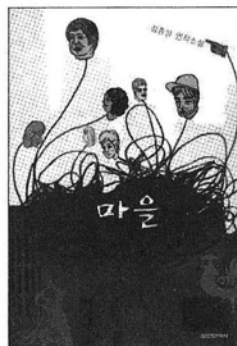


김종성 연작소설 마을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김종성 지음 / 정가 7,000원

실천문학사



이 책은 총 10편의 짧은 이야기가 하나로 연계되어, 자본과 권력이라는 거대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세태를 풍자한다.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곳, 그러면서도 도시도 농촌도 아닌 새로운 생활 형태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생태환경적 의미를 탄탄한 문장력으로 풀어내고 있다. 환경의 위기를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머레이 복친'의 견해에 주목해왔다고 말하는 작가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김종성의 소설은 환경소설의 범주를 가뿐히 넘어서며, 자본 권력에 잠식되어 가는 인간의 마을을 기록한 생생한 인간 생태 보고서라 할 만하다.



창조문학대표시인선_144

그리움의 심지

이훈식 지음 / 정가 6,000원

창조문학사



이훈식 시인이 절절한 가슴으로 아파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시인은 깊은 명상과 사색을 통해 받은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싶은, 하화중생(下化衆生)하려는 따스한 마음으로, 시인만이 듣는 내면의 희미한 소리를 멀리까지 울리는 경종이 되도록 꼬집어내어 아득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바꾸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 최성훈 시인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회 원 작 품 |



詩

- 봄철 용인문학 | 이기형
 영경귀꽃 외 1편 | 김윤배
 운문사 외 1편 | 이훈식
 옥수숫대 외 1편 | 홍사국
 추혼秋魂 외 1편 | 고명진
 가을빛 머무는 곳에 외 1편 | 김근해
 회향懷鄉 외 1편 | 김삼주
 길 외 1편 | 김어영
 내 마음의 벽화 외 1편 | 김예람
 舊 서울역에서 외 1편 | 김종경
 유배 자청 외 1편 | 박후기
 상상플러스 외 1편 | 서 림
 빈 집 외 1편 | 송남순
 진달래 외 1편 | 이경숙
 빈 병 외 1편 | 이동백
 독박골 사내 1 외 1편 | 이동환
 흐린 날 외 1편 | 이민행
 신토불이 외 1편 | 이원오
 겨울 차꽃 외 1편 | 이진숙
 위험한 퍼즐 외 1편 | 이향란
 용인 오일장 외 1편 | 조성심
 가을밤 찬 이슬 외 1편 | 한병진
 나목裸木 외 1편 | 홍재석
 담쟁이 넝쿨 외 1편 | 황은옥

隨筆 · 小說

- 기억의 진자 외 1편 | 홍경화
 미로 | 손영란
 하얀 저고리 | 정수영

봄철 용인문학

이기형

회익 출렁 회익 출렁
용인 황금 들판이 물결친다
오천년 민초들 어깨 걸고 내달리누나
푸르디 푸르려
덩실덩실 춤 춰
젊디 젊었어라
왕건 적 이성계 적 먼 조상님들도 내려다보시는군요
식민 분단엔 손 저으고
한글 금속활자엔 팔뚝을 추켜올려
남과 북이 쪼개져 예순 몇 해뇨
어쩔 거나
살자커든 말하라
처인성은 울부짖는다
21세기여 대답해 봐
침묵은 죄니라
낮선 얼굴 떠나보내는 파천황破天荒 마지막 날
고운 님아, 손길을 다오 더덩실 춤 추자
용인벌도 우지직 춤추리

이기형 | 1917년 함경남도 함주 출생. 용인문학 특별고문. 시집으로 『망향』
『꽃섬』 『그날의 아름다운 만남』 『절정의 노래』 등이 있고, 전기문
『동양 여운형』 『도산 안창호』, 기행문 『시인의 고향』 등이 있음.

영정귀꽃 외 1편

김윤배

다가가면 저만치
바이칼 속으로 물러나는
너를 무엇이랴 부르리 보랏빛 축복이라
부르리 저주라 부르리

바람의 문 닫히고 달빛 흐려질 때
강신의 뜨거운 몸, 어둠 속으로 던진다
경계를 넘나드는 중성 목소리는
영정귀 격렬한 사랑의 흔적으로 남는다
달빛과 샤만이 낳은 부르한바위*는
너, 치정의 신전이다

보랏빛으로 물드는 신전은 알몸의 성찬이다

백야의 새벽 세시 엷어지는 어둠은 매혹이다

영정귀꽃 지천인 알혼섬
무한꽃차례를 기다려도 보랏빛 감옥은 어둡지 않다
바이칼은 수심 깊이 바람의 계단 열어보이다가도
눈썹 하나의 높이로 영정귀 꽃가슴 숨긴다

더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영경귀꽃 무한꽃차례에 얹혀
바이칼 깊은 수심 혹은 부르한바위 그늘에
예언을 모르는 샤만으로 머물겠다

* 알혼섬에 있는 샤만의 바위

수이퐁강은 문신을 남긴다

그 때 유민의 길에 오르던 사람들 마음을 흐르던 강이다
가슴을 붉게 물들이며 흐르는 강이다
아무르만의 짙은 안개를 밤새 풀어놓은 강이다

강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차창을 급류로 채워 흐른다
차창에 낫선 사람 얼굴 떠 있다
그는 차창 밖을 오래도록 보고 있다
자작나무숲을 지나며 강물은 순해지는가 싶다
그는 그 때까지 차창에 떠 있다

황급한 승차로 생각은 갈피를 잃었다
강은 생각의 갈피 사이를 흐르기 시작했다
막연한 슬픔이었던 연해주를 며칠 째 울면서 건넌다

열차는 우수리스크에 잠시 머물다 떠난다
간이역 오제르나야를 지나 무츠나야를 지나 슈바코브카 지나
하바로브스크에 닿을 것이지만

연해주를 벗어날 즈음 슬픔도 손을 잡을 수 있겠다
다시 차창으로 강물이 넘친다

수이픈강 붉고 깊은 흔적이 연해주에 문신을 남긴다

마침내 장려한 울음을 보았다

김윤배 | 1986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용인문학 편집고문. 안성에 '미평문학관' 운영. 고려대/인하대 출강. 시집으로 『떠돌이의 노래』 『강 깊은 당신 편지』 『굴욕은 아름답다』 『따듯한 말 속에 욕망이 숨어 있다』 『부론에서 길을 잃다』 『혹독한 기다림 위에 있다』 등이 있음.

운문사 외 1편

이훈식

모든 문門도 모든 길道도
화두로 잡히고 나면
높고 낮음이
길고 짧음이
그저 한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부좌 튼 맑은 사유가
빙그레 웃는다.
발걸음을 옮기며
무릎 해지도록 엎드렸을
시간들을 헤아려 보다가
천년 세월이 지나면
처마 끝 풍경마저
바람의 등을 쓰다듬으며
묵언수행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지나간 날들이 아픔인 줄만 알았지
생과 사 경계는
바람이 세운 벽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한 획 한 점 같은 세상사

마음은 여전히 허공을 떠도는데
오랜 전에 잃어 버렸던
쪽빛 하늘이 거기 있었고
범문으로 피어난 당신 님은 들꽃이
나를 보고 함장을 한다

별 2

밤마다 나를 불러 깨우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반짝이는 그 별을 따서
내 눈 속에 푹 숨겨 놓으면
아무도 눈치 채지 못 할 거야
요 며칠째 하얗게 뼈만 남도록
나를 발라내는 불면
그 별이 애써 감춘 눈물 뒀을
하늘도 모를 거야

이훈식 | 1994년 《창조문학》으로 등단. 용인문학 편집고문. 강남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등불 하나 가슴에 달고』 『은밀한 속삭임』 『그리움의 심지』 등이 있음.

옥수숫대 외 1편

홍사국

다 따 먹은 빈 옥수숫대
대궁은 마르고 남은 누렇게 단풍 들고
이제 베어 버릴 일만 남았다
멀쩡한 날 비가 온다는
헛소리를 하시는 치매로
효자병원에 입원하신 엄마
다리에 살이 없이 뼈만 남은 모습
비수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청춘의 그 어느 날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쏟아진 기도

향기 가득한 범륜사 범당
높이 앉은 부처님 귀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기도 소리
반야심경 금강경 목탁 소리
너무 많이 매달려서
귀가 길게 늘어져 있다
아직 오르지 못한 소원 담은 기도 소리가
무릎에서 어깨로 목말을 타고 오르려고
절벽 미끄러지듯 할 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추녀 끝에서 맴돈다
네가 이루어라 네 마음에 달렸다
수각水閣의 맑은 물이
넘는 도를 알게 되면
돌장승이 아기 낳는 도 또한 알리라

추혼秋魂 외 1편

고명진

한 잎 낙엽이 진다

소리 없이
눈물마저 떨어졌을 것이다
흙에서부터 마디마디 키워 오던
뿌리 깊이만큼의 사랑
튼실한 나목으로 키워 놓은

아름다운 추락
마지막까지
소녀노자少女老耆의 웃음으로
발아래 짓밟혀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만들어 주리라는

가을 어머니 같은 혼

헛눈질

구부러진 언덕길을 돌아 짧은 반바지에 긴 파마머리 여자
거기에는 내 마음도 함께 돌아 허락 없이 그녀와 손을 잡고
모르는 채하고 있지 달빛에 그늘진 골목 언덕길에 아니,
당신과 나의 달빛 공간에 나는 그녀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옛날부터인가 아니면 조금 전부터였을까 그녀의 발자국 그림
자가

나를 밟는다, 난 밟힘도 사랑하고 싶다 혹시 잡은 손을 놓을
까 봐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한 손에는 백 가방을 메고 또 한 손에
는 우산을

두 개 들고 가는 반바지와 부츠 사이에 허연 살을 음침한 달
빛이 밝고 있다

드르르 두 개의 우산대가 무거웠나 오늘이 무거웠나 모퉁이
돌아

칭얼거리며 꼬마인형 하나가 뛰어온다 “엄마 같이 가”

이제는 헤어져야겠다 그런데 나는 벌써 목적지를 지나치고
있다

고명진 | 《서라벌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도랑 위로 지나간 밤』이 있음.

가을빛 머무는 곳에 외 1편

김근해

단풍이 떨어지고 낙엽이 뒹구는
가을 강가에
갈대꽃 바람에 나부끼는데
국화 향기 가득 장식을 하고
고운 빛 흐르니
찬란한 내장산이 그림고
고운 단풍 아름다운 설악산이 그림구나

가을 경치에 취해
지란 같은 벗과 함께
시 한 수 읊어가며
웃음 꽃 가득 피워 술잔을 기울이니
마음조차 여유로워 행복이 따로 없네

달빛에 담은 가을

은하수 가로 흐르고 세월은 흐르는데
밝은 달 빛나니 하늘도 맑게 빛난다
집 앞 뜰에는 달이 가득 채워져 행복을 밝혀 주고
들판에는 가을바람 황금 파도 출렁일 때
길가에 채소밭에는 국화 향기가 그윽하다

오동잎 지는 가을 달빛 맑고 맑게 비추이고
울밀에 장미넝쿨 잎사귀 떨어지는 가을 뜰 밑
에 귀뚜라미 맑은 소리 듣는 밤이 지나면
이슬 차가운 새벽에 귀뚜라미 소리
새벽을 깨뜨리는 풀벌레 노래 할 때
칠혹 같은 창문을 비춰 주는 달빛 아래
쓸쓸한 바람소리에 세월은 흐르고 조각달은 흘러간다

김근해 | 2004년 《한맥문학》으로 등단. 시집으로 『사랑을 할 거야』가 있음.

회향懷鄉 외 1편

김삼주

통통한 속살을 내어놓고
작은 구멍 더 넓게 벌리고 이영차
썩아 파도소리 내뿜어낸다
찢든한 고향의 향이 길게 뻗친다
재잘거리는 모래 친구들 어디를 봐도 없고
쨍쨍하게 다니는 집게도, 기다란 몸을 사박사박
미끄러지듯 좁은 길로 다니던 갯지렁이도 보이지 않는다

고개 내밀어 주위를 살펴보니 같은 모습 다른 가족들
한데 어우러져 동그란 함지박에서 지지고 볶다가 신나게 물
총놀이 할 때

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아줌마의 커다란 눈에
호기심 발동,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그 호들갑에 더욱 더 신바람 나서 더 멀리 멀리 물총을 쏘다
‘칼국수 언제 되나요?’ 하는 소리에
함지박 바닷물로 들썩인다

식당 부엌에선 물이 자글자글 끓고 있다
기다란 면발이 날씬하게 쪽쪽 미끄러지고 나면
내가 텀벙텀벙 뛰어들 차례가 된다

면발에 나를 비비며 국물에 내 채취를 맡기며
다문 입 커다랗게 벌리고 함박웃음 그릇에 등실 띄운다
후루룩 후후 불어가며 내 몸을 탐닉하는
손놀림의 간지러움이 짜릿한 고향으로 깊게 밀어낸다.

가면놀이

찌르릉 찌르릉

뚜 뚜 뚜

말없이 너를 붙잡던 아귀가 털썩 주저앉는다.

두 눈은 미소를 야무진 입술은 실소를 줄줄 흘린다.

막혀버린 좁은 통로엔 기척이 없다.

축 쳐져버린 두 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습벅습벅 주파수를 맞춘다.

꼬여 가는 두 다리가 두둥 일어나 움직인다.

안개비 내리는 날 실버들이 춤을 추던 그 곳 중앙공원

무지개 우산 손에 쥐고 물끄러미 호수의 수면 위로

돌아나는 풋사랑을 내려다보며 서성인다.

쭉쭉 그어진 파열음 속 피어난 그의 미소

떨리듯 들려온다. ‘나 그만 하고 싶다’

웅골진 입술에 피어난 벚꽃들이 나풀나풀

온 몸을 휘감아 황홀경에 빠뜨린다.

‘아 너무 좋다. 나 벚꽃 향기가 너무 좋아’

멍석처럼 깔끄러운 가슴

비단길 열어 주는 그의 눈이 파르르

가슴 속 깊고 푸른 길 열어 놓고
얼굴엔 하늘 향기 꽃향기 그윽하니
지나가는 별, 나비 투신하여 꿀단지 키워낸다.

길 외 1편

김어영

몇 년 만의 측령산 산행이었다
계단을 오르고 바위를 타고
철쭉꽃의 환영을 받으며
이팝나무가 나를 잡고 오르라며 마주 선다

바람이 등을 흘고 지나며 모발을 일으킨다
구름이 고맙고, 꽃에 반사된 빛이 꽃이 되고
정상에서의 늦은 점심은 산이 산을 떠나지 말란다

지친 몸이 하룻밤 자고 나니
종아리에 길을 내고 있다
팔십이 넘은 강사도 출강하는데
앞아 뭉기는 내 모습이 왜 그리 쓸쓸하던지

몸 위한다는 흔적은 남겼지만
오래도록 등산로가 되어
내 마음에도 새 길을 내고 있다

건곤감리

아파트 17층에서 남자가 떨어졌다

가랑비 오는 3.1절

쇠붙이를 쫓아 테이프로 감은 끝에

태극기를 달고자 철창에 기대어 서 있다

이음새가 삭아 몸이 측량 길에 나선 것이다

다행히 정원 소나무에 걸치며 떨어졌고

생명은 지장이 없다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찔함에 상상의 추리였다

사고나, 국가 상징인 태극기를 달다 변을 당했으니

애국자일까, 행위 참작으로

들것에 실려 간 자리에 영킨 핏자국

몸체를 그려 놓은 페인트 자국

아래 위를 번갈아 쳐다보는 주민

머리 절래 흔들며 하나같이 쫓쫓

그 소리가 가랑비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

팽개쳐진 철창에 건곤감리가

네 활개로 비를 맞고 있다
하늘과 땅이 입을 열었다

뭔 소린지 들을 수가 없었다

김어영 | 2006년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 시집으로 『청춘이 밟고 간 꽃길』이
있음.

내 마음의 벽화 외 1편

김예람

무거웠어
별처럼 총총한 시인들이 입혀 놓은
의미의 갑옷은
부싷돌과 나무와 풀잎에서도
소리가 났어
꽃과 새와 달과
잊혀진 너의 이름 속에서도
의미는 누덕웃이 되어 있었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어
이슬방울마다 혀 차는 소리가 굴러왔지만
존재의 기쁨을 알기에 고요한 계지
우리가 입을 여는 날엔
백골이 된 시인들마저도 귀머거리가 될 거라고
수화로 가만히 얘기했어

시인이 길러내는 건
아름다운 몽상과 덧씩우기일 뿐이지만
자연이 길러내는 건
영겁의 생명이라고 그리곤 돌아앉았지
태초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조각난 언어의 눈금을 지우고
회귀의 기인 동굴을 걸었지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눈뜨는 법을 길들이며
한줄기 빛을 따라 뺏어나가는
어둠의 야원 어깨를 한없이 바라보았지
그렇게 한순간에
일생을 다 살고 갈 사람처럼

고르지 않은 숨결을 눈치 챌
박쥐 떼가 날아들었어
몸은 이내 까만 눈동자들로 묻혀 버렸고
무딘 돌칼에 심장이 박혔지
제단위에 쓰러지며 먼 조상들의 발 냄새를 맡았어

반생을 돌 쪼는 연습을 하고도 밀금 한 줄 긋지 못할
내 마음의 텅 빈 벽화여

무덤에 등을 기대고

뼈꼭

뼈꼭

뼈꼭

뼈꼭 뼈꼭 뼈뼈꼭

부엉

부엉

부웅 부웅 부우형

맞지요?

할머니!

쿨룩 쿨룩 쿨룩

김예람 | 1996년, 1998년 등서커피문학상 수상.

舊 서울역에서 외 1편

김종경

구 서울역 문화관에서 열린 유엔세계보도사진전은 전쟁과 폭력, 기아로 쓰러진 지구의 반대편 가을 끝자락 풍경이었다. 나는 21세기가 쏟아낸 마지막 각혈이라고 말했고, 나의 애인은 쿨럭이던 내 가을의 뒷모습을 닮았다고 대답했다.

광장 역 모퉁이, 도시의 그림자를 밟다가 실족한 몇몇의 청춘들이 빈 술병처럼 뒹굴다 잠이 들었다. 또 다시 늦가을 햇살처럼, 오후의 기지개가 길게 늘어졌고, 구원의 시계탑을 장악한 비둘기 떼는 가난한 청춘들을 비스듬히 내려다보았다.

쓰러진 풍경을 새봄으로 전도 중인 광장의 천막교회는 곧 무료배식을 시작할 것이다. 허기의 절정을 기다린 제이비엘 스피커는 무수한 구원의 음표들을 쏟아낼 터이니, 아멘. 기도와 찬양은 유리조각처럼 흩어져 그대들을 환하게 비추리라.

도시경쟁력이 세계 아홉 번째라는 믿음직한 서울의 엘이디 전광판. 그 밑엔 비정규직 철폐를 구걸하며 휘날리던 새빨간 현수막이 각혈을 하고, 글썽요, 언제부터 인생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었는지. 아! 철없는 나의 애인은 알고 있을까.

손님

폭설이 쏟아지던 저녁,
멍든 백열등 아래서
국밥 한 그릇 시켰는데
난데없이 무당벌레 한 마리,
오뉴월 눈송이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
겨울 들판의 꽃처럼
넋 놓고 쳐다보는 중인데
식당 아줌마 힘차게 달려오더니
거듭 죄송하다며 그만,
뭉툰 손톱으로
그놈의 몸통을 꺾 눌러 버렸다, 잠시 후
먹장구름 깨지는 소리 들렸고
부글부글 끓던 뚝배기 안에서는
떼를 지은 눈송이들이
배터진 무당벌레 손을 잡고
필필 날리기 시작했다

김종경 | 경기 용인 출생. 2008년 계간 《불교문예》로 등단.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유배 자청 외 1편

박 후 기

남해도에 유배당하고 싶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에 등 돌린 섬들,
다도해 막막한 등쪽에 기대어
한 사나흘 머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랑이 그러하듯
주어진 생이 그러하듯
모든 유배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서포*로 하여금 기꺼이
유배를 받아들이게 한 절개와 불우
또한 자발적인 것이었겠지요
늦은 점심을 먹은 후
해질 무렵 남해대교를 건너갑니다
정든 유배지를 벗어나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섬에 남아
유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고 온 사람 때문이겠지요
나는 영영
그 섬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산의 바위처럼 말입니다

* 김만중.

약천 남구만을 생각함

창은
바람벽 한가운데 있기 마련이니,
창이 곧 그 집의
열린 가슴이자
얼굴이지요
지도를 살펴보니
나라 남쪽 해안 정중앙에
남해도가 있습니다
남해도가 남해안의
동창인 셈이지요
재 너머 사례 긴 밭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봄꽃처럼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란 걸 보여주시듯,
섬에서 지내신 아홉 달 밤낮이
마치 동창에 드는
아침나절 햇살 같기만 합니다
설한에 멎든 동백꽃일지언정
붉은 낮으로 생환하시니

그보다 좋은 전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후기 | 2003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가 있으며, <신동엽창작상>을 수상함.

상상 플러스 외 1편

서 립

하늘에서 폭설이 내려 눈덩이로
등등 종이비행기 운항 맹훈련 중
눈송이 땅에 떨어진 장소는
폭신한 꽃신과 이불로 변해
내 발등을 타고 올라와서는
한 꺼풀씩 벗겨 주며

행복지수를 높여 주었다.

사랑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이유

일 년 한 번씩 우편함과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작은 간이 서
점들이 생겼다

무^無 임대료 생활 잡지를 길옆 사람 손과 발목을 붙드는 이
성에게

접근할 때의 첫 번째 관문 같이

불러오는 만삭 된 산모 송고한 역사 대열에

한 획을 긋고 싶어서였을까

한 동네 오래 살아 좋은 이유 두툼해져 오는

지역 전화번호부 성실한 게재

이웃 정겨운 훈훈한 얼굴 마담

점점 차오르는 두께 지형에 광활하고 기풍 있게

넓혀져 가는 전원주택들

나이와 비례하여 자신 육신을 도둑맞은

북부 지방 덩어리에 내던져 버려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를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우리 모두 무릎까지 꿇게 해 버린 나이라는 물리적 음식을

얻어먹고 살아가나 보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붙어 앉아

피를 빨아 들이키는 거머리같이 삶을 갈아 먹고 살아가는
전화번호부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순수함보다는 허덕이며
언제든 살아갈 것이라는
사랑하지 않아도 떠밀려 다가오는
운명의 나이는 쌓여 가는 이유로 썩고 싶은가 봅니다.

서 랍 | 2007년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

빈 집 외 1편

송남순

동네 초입으로 두 손 가득 물건을 들고 걸어오던 나는 어제
도 보았던 그 빈 집으로 들어서면서 발길을 멈췄다.

내려놓음으로 가벼워진 나는 잠시 유년 시절을 엿보았다.

내가 자라던 마을에도 빈집이 있었다.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는 목련꽃이 되어

밤마다 환하게 비춰 주었다.

바람이 자라고 있었을 그의 집

또렷한 거미줄에 꽃말은 주인을 잃고

오래 전,

집나간 아내의 사진이 빈 방안에 온기를 불어넣은 듯,

사내는 허공의 바람을 온기로 채워 넣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들

그의 육신거리는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았다.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곳에서

낮선 길을 걸을 때처럼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구목 櫟木

마른 삭정이 되어 가던 노승의 불경 소리가
쌓인 나뭇잎을 쓸어내던 어린 행자와 닮았다.

한 겹 한 겹 벗어내는 동안
천년의 흔들림 향기로 녹아내리고

회색 비닐 물고기 떼 밤새 산란을 마치면
불게 오른 신열 피목皮木이 되어
굵은 상처 난 가지 끝에 꽃을 피운다.

송남순 | 2007년 《한울문학》으로 등단.

진달래 외 1편

이경숙

핏빛 가슴 가르며
침묵과 고통의 음지에도
파아란 하늘 피워 물고
사랑으로
임 맞으려는 꽃사랑 짙은 삶이어라
서러우면서도 임에게 주려는
헤어진 기도 자락
활활 불태우는 봄 멀리 갈아
피멍처럼
오롯한 믿음으로 감싸 안아
주님 흘린 핏자국 같은 꽃이어
다시 부활할 때
사랑의 감로수처럼
정겨운 이의 치마폭에 숨어
꿈결 같은 봄 잠 부스스 깰 때
낮은 데로 지센 세정에도
성령의 청순한 생애
불꽃같이 숨어 사는 사랑의 보속이어
연연히 새로운 기도
터뜨린 소명 받아

마음속에 묻혀 피는 목숨의 꽃
애달피 머금으면
꿈속 같은 향수에 헤매더라.

자애원 할머니의 식사

작은 기쁨이 모여 도란거리며
조그마한 평화와 사랑이 숨어 산다
갈대꽃 같이 솟은 머리와 나래 접은 꿈들
추억과 기억을 소탈한 심정으로 오물거린다
품 안에 돌아올 것 같은 세속의 녀석들
한해가 기울고 기다림으로 야위어질 것 같아
모정은 담 너머 장독대 옆 봉숭아 꽃물처럼 머물고
소쩍새 울던 고향 산골 향수에 마음 주고
살며시 터지는 미소 속에 달그락거리며
서툰 규율 속에 자신을 추슬러 가슴을 젖신다
더 이상 피워낼 수 없는 꽃잎은
힘겨운 농부의 수확을 알아
천사의 다스림 같은 순박한 구원의 방패 속에
알뜰하고 소박한 소명을 이끌고 간다
술 향 피워 놓고 술 맑게 걸러
잔치하듯 영원한 생명의 끈으로
사랑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며
은총의 기적으로 수를 놓는다.

빈 병 외 1편

이동백

가진 것 죄다

게워 내놓고

휘

휘

휘파람만 불고 있다.

파리 잡기

무덥고 지겨운 여름날 점심상을 마주하니, 웬 놈의 파리들이
바글바글 몰려온다네!

똥파리, 쉬파리, 집파리, 날파리, 초파리 온갖 잡것들이 다
몰려오는구나.

에잇! 이놈들 죽어 봐랏! 원천봉쇄닷! 으하핫! 저 허둥대는
꼴 좀 봐랏!

어디 염라대왕 탈바가지 하나 쓰고 신나는 탈춤 한마당 벌여
볼 거나.

쿵작쿵작 쿵자자작 신나는 소리장단에 맞춰 따닥따닥 따다다
닥 신명나게 파리채나 휘둘러 볼 거나.

으하핫! 이놈들 싹쓸이닷! 살점이 드날리고 핏방울이 튀누나!
원통 피곤죽이로다. 으하핫! 통쾌무비로닷!

대갈통을 부쉬 줄 거나, 몸뚱일 으깨어 줄 거나, 어칠비칠
비칠어칠 어쩔 줄 모르는 꼴이란.

이놈들, 내 주먹맛을 한 번 보려느냐! 휘익 찹싸게 휘두르는
내 팔놀림에 너희들은 모두 내 손 안에 있도다.

어디 보자, 날갯죽지 하나 쥐뜯어 보자. 어칠비칠 혼비백산
매암만 도누나! 발발 발발 발발 발발 무릎 닳도록 기어다니누
나!

으하하핫! 오래 묵힌 스트레스 확 달아나는도다!

으하하핫! 통쾌무비로닷!
무덥고 지루한 여름날 파리 잡기는

이동백 | 《광주일보》,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당선으로 등단.

독박골 사내 1 외 1편

이동환

내, 나이 반으로 젊고 또 젊은 시절
그리로 돌아가면
그리움 절절 찍어 내리는 사내로 살고 싶다

꽃 분홍치마에 생머리 휘날리는
나 어린 처자를 만나
도랑 건너 독박골 초입 언덕배기 초가 한 칸 얻어 들고
물동이 여 조반朝飯 지을 때
고사목 아궁이 불 때 주는 그런
떠꺼머리 사내가 되고 싶다

긴긴 밤 뒤척이다가 수탉 해쳐 울고 먼동이 트면
지게 목발 툭툭 치며 생발재 올라
목정발 떼기 일구고
애기봉 봄 빼꾸기 슬피 울면 수수 심고 감자 심고
발두렁 길긴 바랭이 풀 뜯다가 허기에 차면
삭정이 한 짐 풀고 새참 얻어먹고
틔마루에 낮잠 한숨 들고
화룻불 굴병쇠가 끓여낸 투가리 장국에
아랫목 포대기 덮어둔 찬밥덩이 꺾꺾 말아

한술 떠 주린 배 불리며 사는 그런
젊은 사내가 되고 싶다

해 질 녘 굴뚝에 저녁연기 피면
가마솥에 구정물 길러 붓고 청솔가지 집혀 여물 끓이다가
눈물 찔끔 흘리는 어린 처자 볼때기 설움 닦아내고
시름 달래주는 그런
검은 머슴이 되고 싶다

내, 그리로 돌아가면
세상 때 훌훌 벗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늙은 사내로 살고 싶다

독박골 사내 2

내, 나이
꿈을 더하는 중년에 들면
하늘 아래 첫 동네, 오지(奧地)
그리로 가
옛 그리움 꺼내 보는 사내로 살고 싶다

강원 평창하고도 산 너머 한숨을 더 가
골 깊은 독박골 거기에
너와 집 단 칸 짓고
거처를 틀면
염소 두어 마리 씨암탉 서너 마리 치며
강내가 서리태 짓는 농부가 되고 싶다

백설에 갇히면
꿈썩달썩 못하는 곳
문설주 창호지가 어둠을 품으면
아궁이 앞 퍼질게 앉아 고목 다듬다가
고라니 기척엔 강내가 몇 통 내주고
혹, 멧돼지 혀기까지 달래 보는
그런 잡부가 되고 싶다

낙엽 깔린 산장에
때늦은 예쁜 임 가만히 들면
화롯불에 구운 삼겹살 안주 삼아
백설 주 딱 한 잔 툇 털어 넣고
세상 시름 달래 보는 촌부가 되고 싶다

세상 미움이랑 모두 지워내고
근심 걱정이랑 훌훌 벗어 던지고 사는
그런 촌로가 되어
한 세월을 즐겨 노래하리라

흐린 날 외 1편

이 민 행

가슴에 응어리진
생활의 실패,
빨간 살 돌아나는
상처의 통증 어우르기엔

어쩌면
앞마당 하루살이 날리는
흐른 오후가 좋을 법하다

넓은 집 뜰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대문 밖 행인에게 시선을 던질 때
유독 고요한 시계소리,
떠오르는 사념일량은
이 흐린 날에 묻어 버리리라

눈부시게 푸르른 날엔
끓은 상처 유혈 할까 두렵고
소리 내어 비오는 날엔
간신히 정돈해 놓은
생각들이 흐트러질까 걱정스럽다

차라리 흐려서 고요한 날,
이대로 살며시 놓아두리라.

시든 꽃

네 꽃망울이 너무 예뻐서,
땅속에 뿌리박은 사연 모른 채
꽃병 속에서 시드는
너의 마음 누가 아는가

선택된 기쁨보다
매달라가는 너의 설움
누가 달래줄 수 있는가

차라리 너의 자태
수구려 트리고 몰래몰래 자라다가
지는 줄 모르고 갈일이지

네 꽃망울이 너무 예뻐서,
부둥켜안아야 하는 상처를
너는 알고 있는지.

신토불이 외 1편

이원오

지금쯤 줄어들었을까
다이어트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먹고 또 먹게 되었지만
식탐은 아무리 해도 그쳐지지 않는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은 전설이 되고
수라상보다도 더 흔들거리는 상다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라면을 먹고 우승했다는 육상선수의 이야기는
잊으며 사는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위는 부풀어진 허리둘레와 겨루지만
우리의 피와 근육은 더 말라가고 있다

이것은 먹거리 식민지이다

내 몸의 곳곳에는 제어하기 힘든 꿈꿉거림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난설헌(蘭雪軒)에게

나, 김성립(金誠立) 서릿달 밤 왜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삼 년 전 스물일곱 부용꽃으로 붉게 떨어지던
당신 초희의 못 미더운 지아비였던

삼오이팔 거울 속 난새였던 당신
독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꿈(夢) 詩로 인내하고
광릉 땅에서 아기 무덤에 술잔을 따르며
땃속 아이마저 보내야 했던 母情, 시로 다듬었지요

당신은 그랬지요, 세 가지 恨 중에서 못난 나를 첫 번째로
꼽았대지요

그래도 월하노인이 꺾었던 나, 그립지 않나요
토실토실한 그대와 나의 아해들 생각은 나지 않나요
그대의 아우 균筠은 내 누이는 살아서는 금슬이 많지 않더니
죽어서는 제사가 끊어졌다고 대놓고 대못을 박았지만

당신의 시집이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릴 때
기방(妓房)을 옮겨 다니며 시샘했던 나
당신을 초월 땅에 묻던 그해 새장가를 들고
과거도 급제하여 알량한 벼슬을 하고 있지만

생사를 가르는 오늘 밤

이제사 蓮밥을 따서 살짝 내게 보여주던 그대가 아려

지전紙錢 뿌려 당신 혼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아, 초희

* 허난설헌 : 본명은 초희. 동생은 허균, 남편 김성립은 난설헌 사후 3
년 뒤 임진왜란에서 전사, 부부 금슬이 좋지 못했다 함.

겨울 차꽃 외 1편

이진숙

있인듯 꽃인듯 숨어
원망이 없구나

화사한 봄빛
푸르른 녹음
상처로 보듬어 안고

모두들 잠에 취한 이 계절에
숨어 하늘 보는 건

눈을 기다리는 것인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삭아가는 사랑의 아픔을 다독이는 것인지

불이 시린 겨울 차꽃
살포시 눈 감고
창백한 겨울을 어루만지고만 있구나

가을 연서

새벽 속으로
별들이 떨어진다
억만년 전의 퇴적암같은
지난밤의 어둠이
스러져가는 별들 위에 몸을 부빈다
계절의 토담 위에 가슴을 묻고
앞을 떨군 나무들이
시간을 불살라
매운 연기 피워 올리는
수줍은 마을의 반란을 지켜본다
가을 아침의 햇살은
깨달음처럼 더디고 슬프게 다가오는가
눈 시리게 밝혀 가슴으로 적은
지난밤의 연서를
바람 속으로 날려 보낸다

이진숙 | 1993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원숭이는 날마다 나무에서 떨어진다』가 있음.

위험한 퍼즐 외 1편

이향란

언제부터인가
나를 검색하는 재미에 빠졌다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좁고도 어지러운 길 곳곳에
내 각질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날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쿵쿵대며 나를 찾는다

더러는 갓 태어난,
더러는 사랑에 빠져 사랑거리며 걷는,
더러는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는,
더러는 아아, 차마 말 못할.....

아직도 몇몇은 푸른 혈관의 잎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깨진 채 버려진 거울 속의 비명들
미처 엿듣지 못한, 다 훑지 못한

베이지 양게 조심하면서
검색의 목줄에 끌려나오는 나에 관한 수많은 퍼즐을
오늘은 끝내 완성하고 싶다

그해 여름

산이 산을 넘고

강이 강을 넘고

구름이 구름을 넘더니

결국 사람도 사람을 넘어버리는

너울너울 질푸른 풍경을 보고야 말았다

이향란 | 2002년 첫 시집 『안개詩』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슬픔의 속도』, 『한 켄레의 즐거운 상상』 등이 있음. 200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수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한 켄레의 즐거운 상상』) 선정.

용인 오일장 외 1편

조성심

이곳에 오면 변함없는 인간 냄새가 난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혀 떠밀려가듯 발걸음을 옮긴다
갯벌의 꿈에서 덜 깬 듯 입을 벌리고 바다를 그리워하는 키
조개

생선 좌판 칼을 든 아저씨 몸에서 파도 냄새가 물씬 난다
석쇠에서 메추리가 지글지글 익고
이미 좌석은 매진이다
향기만으로도 행복하다
녹두전 부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막걸리 한 병에 갈증이 탁 풀린다
세상의 절반은 이미 내 것이다
이십 년 가까운 둘만의 데이트에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안다
어디 가나 내게 술을 권한다
바다에 가면 소주를 시장에 오면 막걸리를
딸이 따라주는 술맛이 제일이다
옆에 할머니 두 분
옆에 할아버지 두 분
눈길 서로 주고받더니 자연스럽게 합석한다
할머니의 웃음소리 종소리처럼 맑다

한눈에 보아도 도시 할아버지 시골 할머니
막걸리 한 잔에 속내를 다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영감 알면 혼난다고
다음 장날 다섯 시에 꼭 여기서 또 만나자고
십 년 산 사람처럼 정겹다
그래 사랑 없는 생은 사막이다 죽음이다
사랑할 수 없는 생은 팔자다.

한계령

그리움과 그리움이 안개처럼 부딪치면
사랑이 될까

마를 대로 마른 절벽 산 아래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는가 오늘도
건지도 못하는 발아래 밟혀
이름을 갖지 못한 풀잎 말갭게 핏발 서고
천 년의 등지를 지킬 것 같던 가시나무새
깊은 소리를 내며 운다

가파른 가슴 위로 굽은 빗발 사정없이 튀어 오르고
산짐승이 자리를 박차고 나설 때
벼락 치던 골짜기에서 단 한 번 안아 본 꿈같은 기억 있나
우리 서로
휘어질 듯 휘어질 듯 다가서려 애를 써도
흙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연신 헛걸음질이다

앞을 바라봐 주는가 싶더니 어느새 등을 돌리고
나를 따라오는가 했더니 어느새 다른 사람과 눈 맞아 애를
태운다

그랬다 너처럼 마음 흔들고 간 품위 있는 사람 보지 못했다
너처럼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안개 같은 길 견게 한 이 없다
너처럼 평생을 바라보아도 순간순간 마음 설레게 한 이 없다
너처럼 편안하게 아니 불안하게 아니 불온하게 살고 싶다

오르는 길 있으면 내려가는 길 있겠지
사람으로 살다 내려가는 법을 가르쳐다오
사랑하다 내려가는 법을 가르쳐다오
상처 안고 사는 법을 가르쳐다오
채우는 법을 익히기 전에 비우는 법부터 가르쳐다오.

가을밤 찬 이슬 외 1편

한병진

가을 이슬이 차고
숲으로 가면 잎사귀 고운 빛
노을이 창가에 앉아 가을이 지나가다

달빛 아래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에
나무는 바람을 모아 노래를 짓고

하늘은 높고 높은 푸름이
저만큼 아쉬움 두고
다음이라는 약속을 던져놓고 떠나간다

감정을 담은
장미 한 송이 고개를 숙인 채
화려했던 추억 속으로 잠겨 든다

익히고 깨달아
생과 사의 깊은 시름에
독서 존귀의 묘리 진정이 여기에 있네.

가을 숲에 비가 내린다

가을 숲 속에
바람이 나부끼며
떨어지는 나뭇잎
노래를 짓는다

갈망하듯 몸은
가을비에 젖어
그대를 바라보며 걸었다

심심한 삶의 아픔도
빛속에 쌓이다
기쁨으로 솟구쳐 오른다

그대를 뜨겁게 사랑하다
나무에 기대어
사랑이라는 이름을 새겨 놓고

기쁨이 넘치는
불꽃처럼 타는 그대를 안고

노래를 불러
춤을 추며 옷을 벗는다.

한병진 | 2006년 《숫대문학》으로 시, 2009년 《한국문학세상》으로 수필 등단.
2009년 한국민들레문학상 수상, 2011년 경기도 장애인문학상 수상.

나목^{裸木} 외 1편

홍재석

병사^兵소박^舍의 나목^{裸木}
하늘을 이고 서있는
시공의 무상함을 바라보며

나부^{裸婦}의 신비함도
군자의 고고한 기품도
화려한 향수도 배타하며

하나의 잎새도 사치로 알고
투명한 몸으로
찬비를 적신다

순교를 숙명처럼
때를 기다리는
구도자^{求道者}이런가

주락^{凋落}의 회한^{悔恨}을
가슴으로 인고하는 너는
고독한 카리스마의 표상이어라

거제도 여차몽돌

태초부터
너의 희망
너의 의지는 아니었을 텐데

수천 근
수만 근의 무게로 밀려와
때리고 부수는구나

태풍으로
때론 회오리바람으로
바다를 뒤엎어 괴롭힐지라도

수천 년
수만 번을 그렇게
너의 인내와 용서
하늘 사랑 천년의 예술이구나

만물의 영장
천명을 안다는
지천명이 내일인데

지나온 범부凡夫의 날들을
바닷가 몽돌보다 못하여
부끄럽구나

얼마나 더 참고
몇 번을 더 용서하면
너처럼 될까

홍재석 | 《좋은문학》,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 한국시인상, 광명문학상,
계룡문학상 등 수상.

담쟁이 넝쿨 외 1편

황은옥

기다리는 일은
타들어가는 것이다

푸른 잎사귀 거친 태양빛에
자신을 내어놓고 어지러운 햇살 받으며
꿈을 꾸고 있다

사람들은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 오르듯
더운 여름날
칭칭대며 인생이라는 평면의 담벼락에
자신을 내어 맡긴 채 오르고 있다

두근거림의 심장이
폭포수처럼 큰 소리를 내며 뛰고 있다
바스락하는 건초 소리를
넌 다음에야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한낮의 둥근 햇살은 굴러가며
비웃기라도 하듯
사정없이 푸른 잎사귀를 행군다

조각보

산에서 옮겨 심은 물푸레나무
수백이 되어 보이는 잎이
바람과 놀고 있다

조각조각 이어붙인 조각보
햇살 무늬까지 가끔 끼어들어
반짝반짝 빛나는
조각보 같다

그 수백 조각의 조각보가
한낮의 더위를 덮고 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온전한 한 장이다

마당에 널어놓은 조각보에
햇살이 조각조각 펴려이고
명주실로 서로를 꼭꼭
붙들어 매고 있는 조각보
이쪽저쪽 색깔들이 건너
다닐 때마다

햇빛이 제 색깔을 낸다

오래 기운 이음새마다
틀어지는 실밥이 있다

한 지붕 안 아이들이 울망줄망 모여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빛을 내며
조각보와 같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자기의 소리낸다

빨랫줄에서 온 가족이
조각보에 붙어서 말라가듯이

황은옥 | 2011년 《한국크리스찬문학》으로 등단, 《한국아동문학세상》 신인상
동시 당선. 2007년 경기문화재단 사이버문학상 입상.

기억의 진자 외 1편

홍경화

갔다 올게.

향학열이 남다른 그녀는 문화센터 순례자다. 외출 준비를 끝내고 문간에 선 그녀의 몸은 어딘지 굼떠 보인다. 눈도 쑥 들어갔다. 어제 그녀는 한바탕 통곡을 쏟아내고야 말았다. 그녀는 이래저래 몹시 허탈하고 피곤해 보였다. 하루쯤 문화센터 순례 길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저녁나절 그녀는 수원에 산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간간이 안부를 주고받는 초등학교 친구 순덕씨였다. 오, 그래, 순덕이구나. 그녀는 전화기를 오후크로 돌려놓고 신이 났다. 사고 때 다친 오른팔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3년 탄 차를 손볼 겨를도 없이 단박에 폐차시킨 끔찍한 사고였으니, 죽다 살아났다. 순덕씨는 근래 고향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연옥아, 너 복회 아니? 글쎄, 내가 복회를 만났지 뭐냐. 말랭이 두엄나무 집 있지. 구멍가게 집말이야. 거기 살고 있더라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갔는데 이제야 고향 찾아왔단다. 고향이 뭔지, 쫓쫓. 한 삼년 됐다네, 거기 들어와 산지가……. 몇 살이냐니까 예순이래. 깜짝 놀랐어. 내 나이 먹은 건 잊어 먹고 설랑. 깔깔깔. 그녀와 순덕씨는 연방 깔깔거린다. 예순의 나이를 잊고 꼬마 시절 속으로 훌쩍 담 넘어갔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굵이진(아프며 성장한) 옛 기억이 남아 현재를 집요하게 찢어댄다. 온화한 듯싶다가 시퍼렇다. 숨기고 싶은 내면이 슬그머니 수면 위로 떠오를 때면 그녀는 방바닥을 치다가, 들고 일어나는 분노로 가슴을 쿵쿵 두드린다. 송곳 같이 찌르는 옛 기억에 완강한 저항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실마리만 생기면 어느 먼 시절인가로 돌아가 묵은 생채기를 잡아 뜯으려는지 알 수 없다. 실체 없는 괴물에게 사로잡혀 시달리고 고릿적 기억에 이끌려 이 고개 저 고개 고갯길을 오르내리노라면 기진맥진이다. 이러다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의심한 적도 있었다. 그녀의 삶에 때때로 출몰하여 정신적 상실감으로 몰아넣곤 하는 오래된 기억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녀는 그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머리를 세차게 도리질 한다.

유년이 그렇고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그녀는 자꾸 떠올리며 서러워한다. 그녀는 다섯 명의 자식 중 가장 홀대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어느 집안에나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심산한 팔자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그녀의 모친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만 되면 명석하고 똑똑했던 딸 자랑을 했다. 반에서 2등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총기는 이따금 그녀를 겨냥 공격하는 것 같아 달갑지 않다. 총기로 인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이 기억되어 그녀를 툭툭 치받고 올라오면 갑자기 사람이 변질된다. 감아 놓았던 여남은 살적 기억의 실타래가 스르르 풀어진단다. 그리고 그 기억 속으로 돌진한다. 웅크리고 있던 기억과 필사적으로 투

쟁한다. 마음에 맺힌 지난 시절이 생각나고, 억울한 듯한 과거가 떠오르면 팔자란 말로 사방에 울타리를 쳤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혼자 드잡이질을 실컷 하고 나면 가슴이 뚫린다고 했다. 실컷 울고 난 뒤, 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는 거라며 개운해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녀는 유년 시절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요지부동의 기억의 여왕이다. 때로 물어둘 건 물어둬야 최선인 일들이 있는데 말이다. 말로는 유년이 싫다면에서도 회상은, 육순에 든 그녀의 중요한 소일거리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그 사실을 그녀는 알까.

그녀는 맥이 빠진 듯하다가도 지나간 기억을 떠올릴 때면 썩썩해진다. 그녀의 굵어진 기억은 어쨌든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불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이다. 역설적이게도 내면에 박힌 아픈 기억은 어쩌면 삶의 도화선인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문화센터에 가면 요가도 배우고, 도자기, 수예품도 만들어 갖고 온다. 3개월 된 오카리나 연주는 수월찮이 들을 만하다. 예순의 나이에 뭐든 잘 따라가는 걸 보면 총명하고 습득력이 뛰어난 그녀다. 그녀의 오래된 기억은, 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꺼내서 힘을 얻는 건전지 같은 건지도 모른다. 그녀의 가슴팍에는, 어제의 기억을(그렇다. 기억이란 이미지이지 사람이 아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양자 사이를 진자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나, 가.

피곤하면 좀 쉬지 않고…….

왼쪽 어깨에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그녀가 집을 나선다. 말려

도 소용없이 그녀가 밖으로 나가는 건, 바깥의 세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일 것이다. 그간 자기 불신과 혼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그녀는 이제는 그 시련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노란 모과 두 알

올레에서 만난 노란 모과 두 알을 집으로 데려왔다. 한 살짜리 다룡이가 노란 모과를 친구인양 데굴데굴 굴리며 한 며칠 잘 놀아주었다. 코의 명품 다룡, 향내를 맡느라 쿵쿵거리며 이리 굴러보고 저리 굴러보는데 모과 또한 이리로 저리로 잘 굴러주었다. 구르며 한껏 향내를 흘날렸다. 까르륵, 터뜨리는 웃음소리 들리지 않지만 다룡이와 모과는 죽이 잘 맞는 동무 같아 보였다. 팽팽하게 서로를 당기기 전, 어서 무언가로 매듭지어야 할 텐데 하면서 다시 한 며칠을 그냥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땡땡 하늘에서 흰 눈이 푸지게 내리는 거였다. 문득 모과 향내가 솔솔 풍기는 것 같았고 그 향기를 맡고나서야 모과를 차로 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눈발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작업실로 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허공에 휘돌리는 눈발을 대책 없이 바라본 뒤끝이라선지 노란 모과 두 알을 바라보는 눈앞이 순간 하얗고 노랬다. 어쩔했다.

하나는 참외처럼 노랗고 하나는 조금 덜 노란 모과 두 알을 작업대 위에 올렸다. 먼저 잘 익은 한 알을 반으로 가르고 다시 그것을 또 반으로 갈랐다. 참외처럼 썩썩하지 않고 칼질의 감이 좀 뻑뻑했는데 검붉은 씨앗이 웅고집처럼 박혀 버티고 있는 중이었

다. 하지만 모과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란다. 답을 구하지 말거라.

그때 전화가 왔다.

거기도 눈이 오나요?

퍼붓다가 내리다가 그러고 있네요. 지금은 좀 누그러들었고…….

여기는 지금 마구 퍼붓고 있어요.

…….

아, 서해안부터 눈이 온다더니, 거기랑 여기랑 거리 차이가 나서 그래요. 한번 따져봤더니 백 킬로가 넘던데요.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대전가는 만큼 되는…….

아, 그렇구나……. 서울에서 대전이라면 꽤, 먼 거네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요. 미국에 비하면.

…….

거긴 넓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버스로 한 이틀 걸릴 걸요. 미국 가 봤어요?

아니요.

한번 가 봐요. 미국쯤은.

그래요. 언젠가는요.

이리저리 훑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전화를 끊었다. 노란 모과알이 도마에서 향기를 풍풍 풍기고 있었다. 문득 감당 안 되는 향기에 휘둘린 것처럼 휘청했다.

얇게 노란 모과를 썰기 시작했다. 될수록 얇게 저며 내야 향기가 오롯이 빠져나온다고 들었다. 거기다 가늘게 썰수록 향기의 흔적을 채집하는 데는 효과적일 거 같았다. 얇고 가늘게 채 썬 모과 한 채, 하얀 설탕 한 채, 파묻힐 듯 쏟아지며 가슴으로 녹아

드는 특수한 눈발 한 채, 그렇게 노랑 한 채 하양 한 채 눈발 한 채, 유리병을 가득 채워 단단히 밀봉했다. 한 점 공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향기의 흔적 한 오라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시간이 경과하고 난 뒤 음미해 보는 차 한 잔은 더욱 달고 그 향이 짙을 것이라 여겨졌다.

다롱이가 모과로 채워진 병 주변을 쿵쿵거리며 뱅글뱅글 돌았다. 향기로밖에 감 잡을 수 없지만 이리 저리 구르며 뒹굴며 놀던 기억이 아직도 언저리에 남아 있다는 듯, 꽃 진 자리처럼. 그러다가 제 코를 고문하듯이 스스로 툭툭 치고 앞발로 콧잔등을 찌르고 문질렀다. 제 상처를 내는 독종처럼.

노란 모과 두 알은 이제 병 속으로 사라졌다.

참외처럼 사근사근하지 않지만 달콤한 향기가 짙은 노란 모과 두 알.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잡을 수 없이 쏟아지던 눈발이 순간 하늘로 휘이익 되말려 올라가는 중이었다. 마치 지상으로 길을 떠났다가 하늘로부터 급히 부름을 받은 것처럼. 

미로

손영란

집안은 고요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로 간 것일까. 한낮의 가을 햇살은 눈부시게 밀려들어오고 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춤을 추고 있다.

텅 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고여 있을 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품고 있어야 할 온기는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코트를 걸친 그대로 집안을 한 번 둘러보았다. 한때는 그리도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집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집은 내가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집이었다. 사랑이라거나, 행복이라거나, 혹은 화목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린 집은 다만 공간이었다. 나는 다만 공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집을 지금 떠나려 하는 중이었다. 마당으로 나와 올려다 본 하늘엔 새털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대문 옆 화단을 잠시 들여다본다. 화단엔 꽃이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가득하다. 내가 좋아하던 채송화가 잔디처럼 곱게 심어 있던 화단은 이미 말라버린 잡초만이 가득 들어차 있다.

꽃이 피어 있지 않은 화단에서 누군들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 가슴에 꿈이라는 이름으로 심었던 명사도 이 화단처럼 말라버렸다는 것을 느낀다.

꿈은 그것으로 인해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미 꿈이

아니다. 그건 다만 관념일 뿐이다. 살아 있다고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것은 아니므로.

천천히 걸어본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만끽 하면서. 산기슭엔 억새가 무성히 자라 있다. 억새와 함께 동생이 생각한다. 해마다 가을이면 작은 항아리 가득 억새를 콧아 놓던 동생이 없는데도 억새는 여전히 싱싱하다는 것이 낯설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앞만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다.

저 만치에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버스가 오고 있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하여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를 잡고 앉아 뒤를 돌아보니 산기슭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스라이 보이다가 사라진다. 나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살던 집과 동생과 그리고 한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들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아니 어쩌면 연습하지 않아도 이미 잊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떠나가야 될 것이다.

그곳엔 바다가 있다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배운 노래 속에서 푸른 물이 넘실거린다는 시인의 바다가 있는 곳. 마산이라는 도 시에는 바다가 함께 있다고 했다. 바다가 있는 도시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은 그 아이들이 아니고 나 자신인지도 모르지만.

바다가 저만치 보인다. 크고 작은 몇 척의 배가 세워진 채로. 바다는 푸르지 않았다. 잿빛의 바다일 뿐이었다. 잿빛의 바다가

무감동한 얼굴로 그냥 펼쳐져 있었다. 바다도 꿈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

사랑 미술학원은 언덕 위에 있었다. 약간 비뚤어진 모습으로. 버스에서 내린 내가 나그네처럼 한참을 찾아서 도착했을 때 학원은 조용했다. 시계를 보았다. 이미 오후 여섯 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수업이 모두 끝나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던 것이다. 현관문을 살짝 두드리고 잠시 기다리고 있을 때 안에서 사각사각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어깨를 꼿꼿이 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머물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이곳에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맡게 된 아이들은 모두 스무 명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전의 여섯 살 아이들이었다. 수업은 아침 아홉 시 삼십 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두 시 삼십 분까지였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떠들어 댔고 심지어는 뛰어다니기까지 했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면 나는 텅 빈 가슴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곤 했다. 때로는 바다를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마산 앞바다까지 갔다 오기도 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푸르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바다는 넓었다. 넓은 바다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난여름에 세상을 떠난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 아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뇌진탕으로 죽은 동생은 늘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동생은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다.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이다.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

아오곤 하던 동생에게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숙제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빨리 대학생이 되어 바다를 보러 여행을 떠나는 것 그것이 동생의 오래된 소망이었다. 그러나 동생은 소망을 풀지 못하고 죽었고, 나는 이곳에서 바다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내 생명은 동생의 몫이라는 말이……. 그러나 어머니는 알려주지 않았다. 동생 대신 살아남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말해 주었어야 했다. 내 생명이 동생의 몫이라고, 그래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내게 했었다면, 그렇다면 남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려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나,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건 고문이었다. 증오에 가득 찬 어머니의 눈길이 등 뒤에서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은. 그럴 때면 나는 살아 있다는 것에 회의를 해야 했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 살아 있는 내 모습이 어머니에게 아픔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문이었던 것이다.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준이는 또 차에 타기 전에 나를 보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느냐고 물었다. 얼굴이 희고 눈에 쌍꺼풀이 진 아주 잘 생긴 사내아이. 내가 준이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담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정규 반 수업이 끝나면 종일 반 아이들만 남게 되는데 준이도 그 중에 끼어 있었다. 하루 종일 학원에서 있다 보니 아이들은 집에 갈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섯 시가 되고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준비할 시간이 되면 가방을 챙기며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그러나 준이는 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느냐고

묻곤 했다. 그 말을 하는 준이의 표정은 언제나 불안해 보였다.

언젠가는 손을 씻어 주려고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상처가 난 팔뚝 때문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찔린 것 같은 작은 흉터가 가는 준이의 팔에 가득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수로 어딘가에 부딪쳤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예리한 상처였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이의 상의를 걷어 올려 보았다. 상처는 몸에도 나 있었다. 꼬집힌 것 같기도 하고 데인 것 같기도 한 상처가 흉하게 온몸에 가득 나 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착잡했다. 준이는 여섯 살이었다. 여섯 살의 나이에 이렇게 상처가 난 몸으로 살아가야 하다니. 그건 명백한 폭력이었다. 말로만 듣던 가정 폭력이 준이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짐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어린아이에게 저토록 가혹하게 매질을 하는 부모는 대체 어떤 부모란 말인가. 준이를 집에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몇 시간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도 차에 준이를 태워 보내고 들어온 내 기분은 묵직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머니는 말했었다. 왜 하필 헤민이냐고. 처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동생을 화장하고 돌아온 날. 여름이었지만 가을처럼 하늘이 높고 맑았던 그날이었다. 화장터에서 돌아온 버스가 집 아래 공터에 사람들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집 쪽으로 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상심이 너무 커서 실성한 듯한 어머니의 걸음은 휘청거리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것처럼 꺾टे기만 있는 듯한 어머니를 부축하기 위해서 내가 팔짱을 끼었을 때였다. 붉게 충혈 된 채 나를 쏘아보던 어머니의 눈과 마주친 것은. 어머니의 눈에서는 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

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도 못한 내 귀에 어머니의 통곡이 들려오고 있었다. 헤민아. 헤민아, 왜 하필 너였니. 왜 하필 헤민이 너였어.

어머니의 통곡은 끝이 없었다. 목이 쉬어서 쇠를 썬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치며 울고 또 울었다. 집 앞 대문에 도착한 어머니는 끝내 주저앉아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왜 하필 헤민이 너였냐는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서 있던 내 눈에 화단에 심어 놓은 채송화가 가득 눈에 들어왔다. 눈물 때문에 흐릿해진 눈으로 보이는 채송화는 왜 그리도 처연하고 아름다웠던 것인지.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마음 밖으로 내쳐진 것이었다. 내 안에 파랗게 심었던 꿈도 같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내가 보내야 했던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머니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보았던 것인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나는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머니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눈도 어머니의 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꽃밭을 가꾸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냉장고에 넣어 넣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그린 그림을 보아 주지 않았다. 단 한번도…….

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냈으며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게 완벽하게 무관심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등록 날짜가 마감을 지났어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

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이 된 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침이면 집을 나와서 어두워지면 돌아가던 그 여름 동안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숨을 죽여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내가 아닌 동생이 죽었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 내가 새 자전거를 타지 않고 동생이 탔었다면, 그랬다면 동생은 살아 있을까. 지금까지……. 그날 이후 수도 없이 반문해 온 물음이었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동생이었을까?

준이의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나에게 해 준 사람은 소망반 김 선생이었다. 보통의 중일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여서 당연히 준이의 엄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였다. 준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게 된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었다. 만나서 상담을 해 보고 싶었지만 번번이 준이의 엄마는 거절하고 있었다. 동생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대답만이 전화를 건 내게 하는 말의 전부였다.

“유 선생님, 잠깐 내려가 보셔야겠어요.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오는데 준이가 비를 맞고 아파트 앞에 서 있잖아요. 집에 연락을 해도 엄마가 안 계시는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비까지 오는데 그냥 혼자 두고 올 수도 없어서 기사 아저씨가 학원으로 다시 데려 왔는데 울기만 하고 계단 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반 김 선생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내려간 내 눈에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준이가 보였다. 머리와 옷이 젖어 있었다.

“준이야. 저런 추워서 어떡하니. 엄마 어디 가신다고 했어?”

“선생님. 엄마한테 전화 안 왔어요? 엄마가 나 말 안 듣는다고 어디 가서 안 온 댔어요. 으앙!”

기어이 준이는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

고 안아주자 준이는 더욱 큰 소리로 쉼게 울기 시작했다. 내 가슴에 준이의 체온이 전해왔다. 아주 작은 몸이 훌훌 느끼며 울고 있었다.

준이를 데리고 교실로 올라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 주고 우유를 한 잔 데워 먹였다. 준이는 암전히 의자에 앉은 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준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이가 집에 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집. 준이의 부모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학원으로 연락이 올까 봐 기다렸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컴컴한 어둠이 밀려와 있었고 준이는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원장과 다른 선생들은 퇴근한 뒤라 학원에는 준이와 나만 남아 있었다.

나는 코트를 입고 졸고 있는 준이를 안았다. 이대로 학원에 있을 수는 없었다. 혹시나 싶어 전화기의 자동응답기에 준이의 부모에게 메시지를 녹음해 놓고 계단을 걸어 내려와 택시를 기다렸다. 밤바람은 쌀쌀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내 방으로 왔다. 이불을 깔고 준이를 눕힌 다음 보일러를 틀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준이에게 줄 반찬이 마땅치 않았다. 계란말이를 하고 두부를 조렸다. 상을 차린 다음 준이를 흔들며 깨웠다. 자면서도 훌훌, 느끼던 준이는 내가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부르자 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떴다. 준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선생님!”

“준이야, 일어나서 밥 먹자, 여기 선생님 집에 왔어.”

“선생님 집?”

“그래, 준이 선생님 집에 처음 왔지? 밥 먹고 엄마 아빠 전화 기다리자,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선생님 집 전화번호 아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전화기에 녹음해 놔거든.”

“선생님. 엄마 안 오면 어떡해요?”

준이가 내 얼굴을 뻗히 쳐다보았다. 커다란 눈에 슬픔을 가득 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준이가 가엾어서 맘이 아렸다.

“집에 가면 엄마 오셨을 거야. 자 어서 밥 먹고 집에 가자.”

내 말에 준이는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시간은 저녁 아홉 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준이의 부모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왜 준이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에게 이리도 무관심한 것일까. 밥을 다 먹은 준이를 데리고 다시 준이의 집으로 간 시간은 열 시였다. 다행히 아파트엔 불이 켜져 있었다.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셨죠?”

“아 네, 옆집에 부탁을 해놓았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준이의 엄마가 낮게 말했다.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차가운 음성이었다. 아이가 엄마하며 달려갔지만 준이의 엄마는 그런 준이에게 따뜻한 시선조차도 주지 않았다. 나는 준이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동생이 죽고 난 뒤 외출했다 집으로 들어가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기다려 주는 사람 없는 집으로 가야했던 아픈 기억이 내 가슴엔 작은 금으로 그어져 있을 것이다. 엄마가 떠날까 봐 늘 불안해하는 저 아이의 가슴에도 실핏줄 같은 아픔의 상처가

빗금처럼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가슴에 빗금으로 그어진 흔적들이 아물고 새 살이 돋는 날은 올 수 있는 것일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 안에 다시 자리 할 수 있는 그날은…….

12월의 밤바람은 차가웠다. 오가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있는 도로 쪽으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어느 집의 마당에 심어진 목련나무의 앙상한 가지가 차량의 불빛에 보인다.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른다. 2학년 때였을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한 그해 봄 어느 바람 부는 날 백목련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던 기분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업하고 있는 자신을 주시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나를 보고 담임선생은 말했었다. 수민이는 시인이 되면 좋겠구나하고. 그러나 내가 되고 싶은 건 화가였다. 그해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던 어느 날. 담임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병이라고 했다. 방과 후에 모여서 병실로 찾아간 우리를 보고 담임은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곧 다시 학교에 나갈 거라고. 너무나 하얗게 창백해 보이던 얼굴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결혼한 지 칠 년 된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다던 그는 우리 앞에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그날처럼, 이듬해 목련은 다시 피고 졌지만 그 후 우리는 누구도 그 선생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와 특별히 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봄에 하얗게 핀 목련을 보면 수민이는 시인이 되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이 꽤 오랫동안 기억나곤 했었다. 그러나 이 밤. 혼자 걷는 낯선 도시에서 그날의 담임선생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떠오르는 추억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들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

면.....

“선생님, 준이가. 동생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동생 버리면 나쁜 어린이지요?”

미술 시간, 혼란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누가 동생을 버렸어?”

“준ियो. 엄마 아빠하고 준이만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동생은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무슨 소리가 싶어 가보니 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었다.

행복한 우리 집. 오늘 그림 그리기의 제목이었다. 성냥갑처럼 그린 아파트가 보이고, 그 한 쪽에 서둘게 그려진 세 사람이 보였다. 엄마 아빠, 그리고 준이라고 비둘게 쓰인 이름이 있고 한 쪽 구석에 동그랗게 놓인 작은 휴지통이 있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다. 아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했다. 동생을 버리고 싶은 아이. 그것이 준이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왜 이 아이는 동생을 버리고 싶은 것일까.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다.

투정부리는 아이를 달래어 동생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왜 동생이 버리고 싶은지 말해 보라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않은 채 고개만 가로젓는 준이의 표정은 완고하기만 했다.

“준이가 동생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구나. 저런, 선생님이 나중에 동생한테 준이 말 잘 들으라고 말해 줄게. 자, 약속.”

준이는 그제야 내가 내민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약속을 하고 도장까지 찍는 흥내를 내고 돌아서며 준이는 그러나 한 마디 하고 만다.

“그래도 민이 미워요. 민이가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 좋아했는데 이젠 민이만 좋아해요. 그래서 민이 미워.”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뛰듯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손에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들고서. 준이의 손에도 그림이 들려 있다. 가져가서 엄마 보여주면 화낼 것이라고 학원에 그냥 두고 가라는 내 말에도 준이는 기어이 그림을 그린 스케치북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준이의 손에 들린 그림을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저 멍하니 차에 타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준이의 모습을 본 것이 그것으로 마지막이란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말이다.

“유 선생님, 준이가 차에 안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집에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네요. 엄마 아빠랑 어디 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태우러 간 차에 함께 타고 갔던 김 선생이 말했다.

“그래요? 어제 일요일에 외출했다가 아직 안 온 걸까요? 이상하네.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는데…….”

마음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저기서 불러대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묻혀 나는 곧 그 생각을 떨쳐 버렸다. 내일이면 나오겠지 하면서. 그러나 준이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학원에 오지 않았다. 준이의 결석이 이어지자 수업 시간에도 툼툼이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이가 결석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종일반 수업을 마치고 나는 준이의

집으로 갔다. 준이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불이 꺼진 어두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냥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구시죠? 그 집 식구들 이사 갔는데…… 모르고 오셨나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옆집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말했다.

“준이 학원 담임인데요. 이사 잤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학원 선생님이라고요? 준이 엄마가 학원에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갔나보네요.”

“연락 없이 학원에 나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나 되어서 와 봤는데…… 이사 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에야 말하지 뭐예요.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됐다고. 하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준이를 고아원에 다시 보내고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겠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몇 년을 키운 아인데.”

“준이가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자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고 있었다.

“모르셨죠. 준이는 두 살 때 입양한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칠년 동안이나 아이가 안 생겨서 준이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지 삼년이 되던 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처음엔 둘 다 잘 키우겠다고 하더니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점점 준이가 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심술을 부린다면, 결국은 다시 데려왔던 고아원에 보내고 이사를 간 거죠.”

그랬구나.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랑받으며 살았을 아이였지만 동생의 탄생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아이였구나.

자신을 입양했던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져야 했던 아이. 그 어떤 결정에도 준이의 의사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몸 전체에 들어 있던 멍과, 그 멍보다 더 아팠을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일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여섯 살인 어린아이에게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옆집 여자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여자는 그런 나를 탓하지 않고 말했다.

“저도 준이 엄마 아빠가 너무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똑같이 대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죠.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하고 같이 키운다는 것은 무리예요. 선생님도 엄마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인력으로 할 일이 아니니까요.”

“준이가 간 고아원이 어딘지 아세요? 부탁이에요. 아시면 알려주세요.”

“저도 어딘지 몰라요. 준이가 입양아였다는 것도 동생이 태어나서 알게 됐거든요. 마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것은 아닐 거예요. 입양했다는 것을 주변에서 혹시라도 알까 봐 이곳으로 왔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본 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손에 들고 차에 오르던 작은 그 모습이…….

그림의 제목처럼 준이는 정말로 즐거운 우리 집을 그리고 싶었을 것이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의 집…….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

서 살았던 그 몇 년의 시간처럼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 날의 집을 그리고 싶은 것이 준이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동생을 버리기만 한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을 아이. 동생과 자전거를 타던 그 기억을 내가 버리고 싶은 것처럼 준이도 동생이 태어나고 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준이처럼 휴지통에 그 기억을 버리고 싶다.

휴지통을 그려서 동생을 버리면 된다고 믿는 준이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날을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정말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만 가겠다고 말하고 나는 그곳을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조심해 가라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림을 집으로 보낸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그림을 집으로 보내지만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준이는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을까. 동생대신 새 자전거를 탄 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준이가 그 그림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 어쩌면 준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 시간만 자전거를 타자고 말하던 동생에게 새 자전거를 주지 않았던 것은 정말 아무 뜻도 없었다. 나는 피곤했고 쉬고 싶었다. 동생이 단 일주일간의 방학도 쉬지 못하고 과외 수업에 시달려야 했다면 나도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느라 밤을 거의 새운 다음 날이었던 것이다. 왜 그때 새 자전거를 나에게 주면 타러 가겠다는 말이 나온 것일까. 자전거가 새 거든 헌 거든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동생에게 했던 것일까. 왜 그랬던 것일까…….

어느 순간 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꿈은 내게서 떠난 것이었다. 뇌진탕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깨끗했던 동생의 몸과 찢어질 듯한 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그리고 싸늘한 시선들…… 갑자기 나를 찾아온 것은 그것이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리움이었다. 동생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은 아니더라도 나는 동생이 그리웠다. 내가 동생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동생이 그리웠던 것이다. 바퀴가 펑크 난 낡은 자전거를 동생에게 주고 새 자전거를 탔던 비정한 언니였다고 해서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내 감정까지도 싸늘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도 동생을 사랑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했다고…….

준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제 준이는 알았을 것이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동생을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건 다만 그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준이는 또 알게 될 것이다. 버려지지 않는 것은 동생뿐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담겨진 기억도 그러하다는 것을.

준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도 엄마에게 전화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엄마라고 부를 이름이 없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절에 있었던 누군가가 없어진다는 것, 그 사람을 볼 수도 만질 수도,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지 준이는 아직 모를 나이였다. 준이에겐 그 모든 것이 흔적으로만 남을 것이다. 누군가의 호적에 올랐었던 흔적, 누군가를 엄마 아빠로 불렀던 흔적.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한때

사랑받았던 흔적만이……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 그 흔적마저도 지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흔적마저도 지워질 만큼의 세월이 가면 그때 준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문득 내가 걷고 있는 이 도시가 바다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 동생은 바다엘 가고 싶어 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바다로 가자고 했다. 운전기사가 묘한 얼굴로 나를 본다. 어두운 밤에 여자 혼자서 바다로 가자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얼굴이다.

“동생이 바다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바다, 좋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누구에겐지 모를 대답을 하고 택시의 속력을 높인다. 바다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검은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가 먼 곳의 불빛에 아련히 펼쳐져 있다. 택시는 나를 내려놓더니 쏜살같이 달려가 버린다. 어두운 바다를 나는 내려다본다. 멀리서 동생이, 준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너무 가깝다. 손을 내밀면 잡혀질 듯이.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본다. 다가올 듯하다가 멀어지면서 그들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어느 순간 내 곁으로 오는 것 같았던 그들, 그러나 사실은 바다 저쪽에서 나를 보고 있다. 파도가 출렁거린다. 이리저리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다. 파도는 어느새 내 몸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 같다. 내 몸도 어느새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있다.

마치 파도처럼. 

손영란 | 2006년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

하얀 저고리

정수영

1

나는 마침내 그를 놓아 주었다.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니 어깨도 쭈셔오고 허리도 아팠다. 복도 쪽은…… 거의 전멸이다……. 식사 후 볼일을 보려는 무리로 한차례 소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간이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몇몇 얼굴을 비추고 있다. 멀리서 가볍게 코를 골고 한 번씩 의자가 삐걱거렸다. 내 등 뒤론 아이가 색색거리고 동그란 창가로 비치는 밖은 어두웠다. 건너편에서 날카롭게 넘기는 책장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내 기억을 허물어 버린다. 나는 불안할 때면 문 여닫는 소리며 한겨울에 틀어 둔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씩 흐르는 물소리에 웬지 모르게 왼쪽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신경질적으로 넘기는 책장소리는 그 고통이다. 나는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다.

공항에는 어머니와 외숙모가 따라 나왔다. 삼일장을 치르느라 어머니는 매우 수척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연방 나를 쳐다보고 손자들을 쳐다보았지만 정작 나는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외숙모가 그녀 특유의 맑고 시원한 목소리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얘기였는지 나는 기억이 없고 그녀의 등 뒤에서 말 없이 서 있는 어머니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이윽고 출국 시간이 가까웠고 수속을 하기 위해 게이트에 다다르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손자들을 제대로 안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공항에서 우리와 이별을 했다.

목이라도 축일까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이 쳐진 승무원들의 대기실로 갔다.

“저기……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아, 네,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들 서빙이 끝나고 저녁 식사 중이던 승무원 중 한 명이 입안 음식을 미처 삼키지도 못한 채 민망한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자리에 돌아와 뭔가 읽을거리가 있을까 뒤적거리고 있을 때 그 승무원이 다가와 물 한 잔을 내려놓고 남아 있는 책이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겠냐고 상냥하게 물으며 잡지 한 권을 내밀었다. 식사 후 급하게 입 주변을 정리했는지 루주가 지워진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그녀가 가져다준 책은 유럽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소개한 기사며 한국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글, 유명 작가와의 인터뷰 등 그야말로 잡다한 내용으로 가득 찬 월간지였다. 나는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평소라면 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자연치유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 의사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자연의 힘을 빌려 암환자를 치료한다는 내용이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창가 너머로 한쪽 봉우리가 보이는 숲 속 오솔길에 감색 저고리를 입고 걸어가는 아

버지가 보였다 사라졌다.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

몇 주 동안 버르던 일이었다. 딱히 시간을 못 낸 이유를 들자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다. 노상 벌어지는 업무의 연속이었고 저녁 약속은 주말을 피할 수도 있었다. 좀 더 바지런하게 미리미리 일을 처리했다라면 지난주나 지 지난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다녀올 수도 있었고 그러면 아빠 바짓가랑이 잡고 청얼 거리는 큰놈의 유니버설 타령에 짜증스런 화풀이로 애를 울리지 않았어도 되었고 마누라의 잔소리에 줄줄이 소시지처럼 쪼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유니버설스튜디오며 디즈니랜드 연간회원권은 호기스럽게 꿇은 날 한 번 사용했고 만기일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그래, 내일은 일요일이니깐 꼭 가자.”

내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는 시늉까지 하며 철떡 같이 약속을 한 건 큰놈이 다시는 아빠하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난 뒤였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집사람이 이것저것 준비하는 바람에 출발 시각은 자꾸만 늘어졌고 칼스베드를 지날 무렵 도로가 쇼핑센터 탐시계는 열두 시를 지나고 있었다. 다음 출구에서 빠져나가 점심 먹을까 하고 생각할 즈음 한국에 있는 외사촌 형에게서 전화가 왔고 안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오는 전화라 해 봤자 부모님 외에는 거의 업무에 관련된 전화인지라 그의 전화는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놀랍기도 하였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란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었고 미국으로 이사 올 때 공항까지 따라온 나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막내 형이었기에 이내 나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응, 나는 잘 지내지. 형은 어때?”

“나야 맨날 그렇지 뭐. 근데…….”

“근데 뭐?”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

순간 나는 형이 말하는 아버지가 외삼촌을 말하는 건지 나의 아버지를 말하는 건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우리 아버지?”

“응.”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집에 전화 해보겠다고 말한 뒤 형의 아이들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 전화를 끊었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에 전화하려다 그만두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배가 아프다느니 머리가 아프다느니 힘이 없다느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럴 때마다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와 나에게 이것저것 필요하지도 않은 잡일을 시키며 사람을 못살게 굴었다. 그러다가도 당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목소리가 커져 불호령을 치며 신경질을 부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이 안찌는 거요”

어머니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할 때면 꼭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잖아도 열이 받아 있는 아버지의 화를 더 돋우기에 충분해 보였고 나는 이런 어머니의 뒤통수치는 항변을 싫어하면서 서도 그녀의 말에 상당히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좀 누그러졌겠지 하고 한두 시간 지나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들으라는 듯이 쿵쿵 소리를 내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방에 누워 있었

다. 그러다가도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할라치면 아버지의 앓는 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렇게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짱히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참견하였다.

내일쯤 전화하면 밝아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미라코스타에서 빠져나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외사촌 형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고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야겠다.”

외사촌 형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알았다고만 했고 아버지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집사람이 본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사항을 내게 말해 주었고 샌디에이고 집으로 오는 내내 징징거리는 큰놈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에서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를 예약하고 찬바람이 불어 낙엽이 뒹구는 뒷마당으로 갔다. 마당 끝 보리수나무에서 본 이층집이 아득해 보였고 일그러진 파란 지붕이 흘러내렸다.

월요일 샌디에이고 공항은 북적거렸다. 우리가 타야 할 LA 향 첫 비행기는 안개로 지연되었고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아침 7시 20분 편이면 LA에서 12시 2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9시가 넘도록 LA 향 비행기는 뜨지 못했고 9시 40분에야 첫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7시 20분을 포함한 이른 시간대의 비행기들은 지연에서 취소로 변경되었고 빈자리가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만 하는 상황이었다. 데스크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겨우 11시 20분 비행기를 탈 수 있었으나 LA에 도착하니 서울 향 대한항공은 이미 떠나버린 뒤였다. 급히 서둘러 아시아나 항공을 수배했고 누군가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12시 50분 비즈니스로 네 좌석을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카운트에서 게이트까지 나는 죽을힘을 다해 뛰어야만 했다. 우선 나라도 먼저 가서 비행기를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쫓아오는 집사람과 아이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휘어진 복도의 모서리를 돌아 텅 빈 복도가 나타났고 뒤따라오던 집사람과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업무 차 술하게 다녔던 LA 공항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던 건 하얀색 일변도였던 LA 공항벽 색깔과는 달리 방금 접어든 곳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으로 미로처럼 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달렸는데 게이트는커녕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복도의 연속이었다. 나는 입안이 바짝 말라 침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지럽기까지 하여 잠시 멈추어 서서 두 손을 양쪽 무릎에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마침 저만치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한국인인 듯한 사람이 보였고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따라갔다. 그는 천천히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워낙 지친 탓인지 좀처럼 그와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고 그는 가끔 나를 힐끔 쳐다보면서 계속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멈추어 섰을 때 나의 손목시계는 12시 49분을 가리켰고 그는 나에게 손을 들어 검지를 아래로 향하며 여기라는 시늉을 하였다. 그리고는 먼저 간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고 나는 고맙다고 조그맣게 말을 했다. 게이트에 도착하니 집사람이 걱정 반 원망 반의 표정으로 둘째를 안고 초조하게 서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분명

히 내가 먼저 뛰어왔는데……. 집사람의 재촉에 정신없이 비행기를 타면서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승무원들과 앞좌석의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여러 번 머리를 조아렸다.

시차 때문에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를 식사가 나왔고 평소에 먹지 않던 빵 조각까지 깨끗이 비운 뒤 아까는 왜 늦었느냐는 집사람의 질문에 불현듯 공항 복도에서 나를 인도한 흰 옷 입은 사람이 궁금해졌다. 대답을 하는 등 마는 등 주변을 훑어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가 일반석에 탔을 것으로 생각했다. 화장실도 가고 다리도 좀 펼 겸 일반석 쪽으로 걸어가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폈다.

‘좀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건데…… 아마 못 들었을 거야.’

식사를 끝낸 지 오래되지 않아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으므로 수다를 떠는 사람, 잡지를 뒤적이는 사람, 맥주를 마시는 사람, 담요를 펼치는 사람, 영화 채널을 돌리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보였고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사람도 보였지만 그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을 들러 자리에 앉아 집사람에게 그에 대해 얘기를 할까 하다 잡지에 빠진 그녀를 보고는 생각을 접어 버렸다.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3

샌디에이고에서 LA, 김포를 거쳐 김해공항에 도착하니 뜻밖에 외사촌 큰형이 마중 나와 있었다.

“오느라 수고했다. 호영이, 우영이도 많이 컸네.”

짐을 받아 든 외사촌 큰형은 집사람에게 가볍게 미소를 짓고는 곧장 차로 향했다. 그는 대충 짐을 구겨 넣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나에게 담배 한 대를 내밀었다. 원래 나는 형들이나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큰형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담배를 내밀었고 나는 말없이 받았다. 더군다나 6개월 전 나는 담배를 끊었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를 한 모금 들이키자 심한 현기증이 느껴졌고 연기 때문인지 눈앞이 뿌옇게 변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향한 곳은 개금 고갯길 변 엄광산 기슭에 자리 잡은 백병원이었는데 병동이 아닌 장례식장이었다. 4호실 주변에는 낮익은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 처가 식구들, 몇 년에 한 번씩 보는 친척 어른들 그리고 왕래가 적어 도대체 마지막으로 본 지가 몇 년 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외할머니와 이모들도 보였다. 그리고 맨 끝에는, 아버지 영전을 옆으로 하얀 소복을 입고 손수건으로 연방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삼촌들 옆에 서 있었다.

“아이고 왜 이제야 왔어.”

“이를 어찌…….”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영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내뱉었고 나의 몸은 밀려드는 시선으로 자꾸만 쪼그라들었으며 땅이 울렁거리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다. 빨리 이 좁디좁은 길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니 아무도 없는 어딘가에 숨고만 싶었다.

상복을 갈아입고 몰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나는 눈물 없는 곡을 했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수백 번 들어야만 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나

의 눈치를 보고 있던 삼촌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보니 나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큰 삼촌이 운을 띄웠고 막내삼촌이 차근차근 조리 있게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요는 이랬다.

십여 일 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자리를 깔고 누운 아버지가 여느 때면 하루 이를 길어야 삼 일이면 피병처럼 털고 일어날 줄 알고 약국에서 지은 감기약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나흘이 지나도록 차도가 없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까운 개인병원에 갔었다. 그곳 의사는 진찰 후 바로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였고 택시를 타고 도착한 백혈원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는 급성 백혈병이었다. 그리고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나는 처음에 왜 삼촌들과 어머니가 나의 눈치를 보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삼촌들은 어설피게도 아버지의 죽음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몇 번씩 강조하는 바람에 나는 정말 아버지의 죽음에 기여한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머니에 의한 방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앓아눕자마자 어머니는 분명히 또 피병이라며 다가올 잔소리에 몸서리쳤을 것이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어 양정 슈퍼나 동선이네에서 한나절을 보냈을 것이다. 저녁에 죽을 차려주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은 다음 거제약국에서 몸살감기약을 지어 물과 함께 아버지 머리맡에 두고 마루에 나와 TV를 시청했을 것이고 다음날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약간의 불안감이 없진 않았겠지만, 틀림없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고 나흘째 되는 날에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며 아버지 머리를 만져보고 몸도 만져보고 그제

야 심각성을 깨닫고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병원에 갔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몸져눅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삼촌들의 얘기는 다분히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머니의 불찰을 조심스럽고도 우회적으로 지적했으며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일이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이야기 내내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주의 순리이며 한 인간의 운명이라 여겼고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조물주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다. 굳이 물에 젖은 창호지에서 먼지 찾아내듯 원인 제공자를 말하라면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 자신이었다. 우습게도 아버지는 이십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스스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먹고 살아왔던 것이다. 삼촌들이 자신 있게 어머니를 아버지 죽음의 원인제공자로 지적하지 못하는 것도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집안 큰 형님의 모습이 형수나 조카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아니 결혼 후 더욱더 종잡을 수 없이 변하여 급기야 형수에게까지 폭행을 일삼을 때 어린 나이를 탓하며 형수를 돕지 못한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시골집은 마당이 꽤 넓고 사랑채가 따로 있는 오래되고 낡은 기와집이었는데 돌담으로 쌓은 구부러진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가끔 집에 들렀던 아버지는 그 구부러진 입구에서 고개만 삐죽 내밀고는 안을 염탐한 뒤 들어오곤 하였는데 작은방 앞에 놓인 술에 소죽을 끓이느라 군불을 때고 있거나 마당에 거적을 깔고 앉아 새끼를 꼬고 있는 할아버

지가 보이면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아버지는 동래 정씨 집안의 장남에 장손임에도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양정의 방 2개짜리 슬레이트 지붕 집을 얻어 분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론 줄곧 할아버지와 등을 지고 살았다. 어머니는 자주 그때를 회상하며 ‘손가락 몽둥이 하나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했다고 진저리치며 얘기했다. 분가 후 안정을 찾은 듯 직장을 얻고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던 아버지는 위낙 바닥에서 시작한 살림이라 궁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서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특하면 신경질을 내고 겨우 장만한 몇 되지 않는 살림살이를 던지며 박살을 내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늘 돈 문제로 어머니를 들볶았고 중국에는 대드는 어머니를 폭행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리바리 악을 썼고 자다 놀라 깬 나는 어쩔 줄 몰라 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다. 그 후 어머니가 군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살림이 조금 나아져 내가 세를 준 옆방으로 옮긴 후에도 아버지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고함이며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에 나는 숨을 죽인 채 이불을 깨물고 있어야 했다.

4

이튿날 막내 삼촌이 뒤통자를 알아봤다고 했고 어머니는 화장을 고집했다. 집안 장손의 죽음을 두고 삼촌들의 명분과 어머니의 평소 지론이 대립했다. 어머니는 틈만 나면 죽은 뒤에는 영혼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얘기했고 어둡고 칙칙한 무덤 속에서 간혀 지내는 것은 현실보다 더 비참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죽음은 곧

삶의 연장이라는 듯이 무덤 속을 ‘갈혀 지내는 것’이라 표현을 했고 나는 어머니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도처럼 밀려들 삼촌들을 포함한 일가친척들의 반발을 감내할 용기가 없었던 나는 매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고 나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 “그럼. 그래야지”, “집안의 장손인데 화장이 당키나 해?”, “종손이 틀리긴 틀리고만.” 하며 그들의 승리에 만족해했다. 어머니는 얼굴이 잠시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포기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잠시 어색해진 침묵 사이로 누군가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톡톡거리는 소리만 산울림처럼 들려왔다.

저녁 시간이 되자 장례식장은 다시 조문객들로 북적거렸고 여지거기서 떠드는 소리, 장례식장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웃음소리, 고, 스톱을 외치며 화투를 두드리는 소리, 설거지하느라 덜거덕거리는 소리로 부산을 피웠다. 나는 조문객을 맞는 틈틈이 전 직장 동료며 같이 밤을 새운 고등학교 친구들, 서울에서 내려온 지인들에게서 술을 받아 마셨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술 몇 잔에 금방 취기를 느꼈고 상주자리에 돌아와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다. 잠시 눈을 붙였는가 싶었는데 무엇인가 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 혀 꼬인 고함이 들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았다. 탁수 아저씨였다. 그는 아버지 향렬의 먼 친척으로 집안이나 동네 대소사, 특히 초상에는 반드시 나타나서 술에 취해 온갖 욕지거리와 행패로 주변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괴로운 존재였다. 워낙 그런 일이 잦아 친척 중에는 그의 그런 행동에 익숙해져 친근감마저 내비치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 원래 초상집에는 저런 사람 한둘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

었다. 그는 이 상 저 상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퍼마시고 술잔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미친개를 피하듯 하나 둘 자리를 떴고 외가 쪽 식구들이나 처가 쪽 식구들, 그리고 나를 보고 찾은 사람들은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한 채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집사람 친구들에게 막걸릿잔을 던지며 씨발년이라고 소리칠 즈음에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그에게 달려가 먹살을 잡고 하마터면 주먹을 날릴 뻔했다. 갑자기 달려 나온 나에게 먹살이 잡힌 채 그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멀뚱거리며 나를 쳐다봤고 그와 눈이 마주친 나는 이를 악물며 떨리는 주먹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의외로 맑았고 그런 그의 눈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나 보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비 오는 저녁 나는 내 방에서 한참 수학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데 옆방에서 들리는 TV 소리 사이로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는가 싶더니 곧 큰소리가 오갔다. 또 시작이구나 싶어 카세트를 틀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높였다. Grand Funk Railroad의 It's a man's world가 블루스리듬에 맞춰 느리지만 강한 비트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로 갈수록 격렬해지는 리듬처럼 내 심장의 박동 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나는 어두운 벽 속에 갇혀버린 고양이처럼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8번 수학 문제의 같은 줄을 몇 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질문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읽고 또 읽었다. Grand Funk Railroad의 음악이 페이드아웃으로 끝나갈 무렵 찢어지는 듯한 어머니의 비명에 나는 이어폰을 벗어 던

지고 부엌을 단숨에 가로질러 안방 문을 열어젖혔다. 아버지는
부서진 의자를 들고 서 있었고 어머니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
며 반쯤 쓰러진 상태에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외락
달려들어 아버지를 이불이 쌓인 구석에 밀쳤고 “그만 좀 하라
고!”를 외치며 넘어질 듯한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미친 듯
이 그의 멱살을 흔들며 “그만 좀 하라고!”를 반복해서 외쳤다.

탁수 아저씨는 멱살을 놓고 방으로 돌아가는 나의 뒤통수에 대
고 몇 마디 욕설을 퍼붓더니 이내 장례식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놀란 눈으로 한참이나 나를 쳐다보더니 말
없이 집을 나가 버렸다. 탁수 아저씨가 가고 난 장례시장은 다시
일상의 왁자지껄함으로 분주했고 나는 문상객도 맞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방구석에 말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5

발인 날 아침은 더없이 바빴다. 장지에 가기 전 상여는 양정
집을 거칠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살던 집을 둘러보게 하는 옛
풍속에 따라 친척 어른들이 제안하였고 나는 알았다고만 했다.

영안 차가 도착한 곳은 내가 대학 입학 이후 결혼 전까지 살았
던 이 층 빨간 벽돌집이 보이는 마을 어귀였다. 이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영전 사진을 들고 집까지 걸어갔다. 소식을 전해 들었
는지 양정슈퍼, 거제약국, 김해쌀가게를 비롯한 이웃들이 나와 있
었고 한 친척 어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곡을 하며 걸었는데 나
는 자꾸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나중에는 입을 다문 채 묵묵히
걷기만 하였다. 계단을 올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

충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안방에 이르자 통곡을 하였다. 거기에 며칠 전까지도 아버지는 누워 있었고 한 달 전에는 작은 상에 마주 앉아 같이 식사도 하였으리라. 나는 장롱 옆에 서서 묵묵히 그녀의 설움을 지켜보았다. 안방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코를 자극하는 비릿한 냄새가 풍겼고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냄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온몸이 뻗뻗하게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이 놀라웠다. 예전에 얼마나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흔적인가? 어머니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왔다. 그렇게 맞고, 꺾박받고, 고통을 당해오면서 미운 정이 들었던가? 아니면 혼자 남은 당신의 모습이 처량하여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건가?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곧 어머니의 자유라고 생각했고 나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 어두웠던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욱더 어머니의 눈물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았고 그녀의 통곡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장지에 묻고 우리 가족은 그 냄새가 비릿한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들과 숙모들은 일찌감치 돌아갔고 피곤함에 지친 우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녁 해가 길게 안방을 가로질러 화장대를 뿌영게 덮은 먼지를 비출 때 어머니는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 모양 부엌으로 가서는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앉은 채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아이들은 옛날 내가 쓰던 방에서 할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을 갖고 비행기 소리며 탱크 소리를 흉내 내며 놀았다. 가을이 완연하여 방 안 공기는 써늘했고 바닥에서는 찬기가

올라왔다.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곤히 잠든 아내에게 덮어주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10년은 족히 되어 보이는 짙은 파란색과 밤색의 양복, 파란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사선으로 새겨진 색깔 바랜 넥타이가 눈에 띄었다. 작년 가을 이맘때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샌디에고에 왔을 때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그 밤색의 양복에 노란 줄무늬 넥타이였다.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며 그랜드캐년을 둘러보았을 때 아버지가 늘 입고 다녔던 꽃무늬가 크게 들어간 반소매 남방도 장롱 한구석에 걸려 있었다.

담배가 생각나 밖으로 나가려다 부엌에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디를 가느냐는 표정을 짓기에 어색한 미소만 살짝 지어 보이고는 이층을 내려와 대문 밖을 나섰다. 해는 떨어졌고 집 건너편 버드나무는 골목을 휘고 도는 찬바람에 을씨년스럽게 잎을 비벼댔다. 일부러 집 앞 양정슈퍼를 가지 않고 멀리 거제시장까지 걸어가서 담배를 샀다. 그리고는 동네 반대편 어귀 공터에서 담배를 물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꺼내 읽어 보았다.

성명 : 정진호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361125-1*****

실제생년월일 : 360917 직업 : 무

본적 : 부산시 동래구 회동동 11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2동 238-09

발병 일시 : 2000년 10월 28일 19시 25분

사망 일시 : 2000년 10월 31일 05시 49분

사망 장소 : 부산시 진구 개금동 633-165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나) 중간선행사 : 다발성 장기부전

(다) 선행사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전날 아침 장의사 측에서 염습이 끝났으니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확인하라며 가족들을 불렀다. 좁디좁은 관속에 아버지는 하얀 저고리를 입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평온한 아버지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으므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겨졌고, 살아 있을 때도 그랬듯이 당신을 제외한 주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떠났다. 나는 삼촌들의 거듭된 눈짓에도 멀찌감치 떨어져 가만히 그의 주검을 지켜보았다. 막넛삼촌은 그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사망진단서를 손에 쥐여 주고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어느덧 기억 속의 비린내는 가시고 어머니의 구수한 김치찌개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 식구들은 양은냄비 가득했던 밥과 김치찌개를 모조리 비워버렸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어머니의 말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긴 듯했고 그녀는 가끔 애써 웃음 지어 보이기도 했다. 다시 돌아가야 할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아내와 함께 건넌방으로 넘어가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옛날 내방으로 달려가 다시 전쟁놀이에 열중하느라 안방에는 무심한 TV 소리만 공허하게 돌아다녔다.

면도를 할까 하여 화장대를 뒤풀다가 첫 번째 서랍에서 오래전에 내가 아버지에게 사준 전기면도기가 눈에 띄었는데 상자 모서

리가 닳아 흐느적거리고 있었지만, 상자 속 전기면도기는 비닐에
곱게 쌓여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비닐을 벗겨 내고 코
드를 꽂은 다음 스위치를 올려보았다. 웅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TV 소리를 삼켜버렸다.

거울을 쳐다봤다. 수염이 꺼칠한 한 사내가 보였고 분명히 어
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정
면을 향하다가도 이내 다른 곳을 쳐다봤다.

어디선가 비릿한 내음이 내 코를 자극했다.

그는 포대기에 쌓인 어린 우영이를 안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보
다 큰, 누룩누룩 못이 박힌 거친 손으로 정성스럽게 아이의 머리
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아이의 얼굴
에 비벼줬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는 한없이 슬픈 사슴의 눈을 하
고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진 행복의 눈을 하고도 있었다.

그가 힘에 겨운 듯 무거운 손짓을 할 때 무관심과 증오의 눈빛
으로 훈련소를 걸어가는 20대 청년의 모습이 보였고 뒤를 한 번
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그를 닳아 있었으나 청년은 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까지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망부석처럼 굳
어버린 그의 발치 밑으로 햇살에 반짝이는 액체가 먼지를 날렸
다.

그는 어느덧 나의 방에 들어와 있었고 문 여는 소리에 놀라 자
는척하는 어린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머리에 손을 얹고는 한참
을 그렇게 앉아 있기도 했다.

부엌에서 죽을 쑤고 있는 그가 보였고 안방에는 수건을 머리에
얹은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어릴 적 내가 좋아했던 비행기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오른손에는 노란 블라우스가 그의 휘파람 소리에 나폴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비릿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잠결에 느낀 그의 앙상한 가슴은 한없이 넓고 포근했으며 나를 보듬은 두 손은 강아지풀처럼 내 등을 두드렸다.

그의 수염을 정성스럽게 깎는 동안 그는 어느새 하얀 저고리를 갈아입고 이제는 되었노라며 자꾸만 멀어지려 하였다. 나는 그의 얼굴에 난 뺨뺨한 털을 손으로 한 올 한 올 문지르며 깎아낸 다 음 수염이 한 가닥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그를 놓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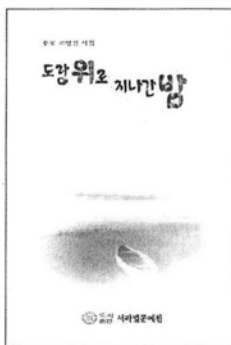


고명진 시집 도랑 위로 지나간 밤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고명진 지음 / 정가 10,000원

도서출판 서라별문예원



고명진 시인은 은발(銀髮)이 아름다운 빛이 투명할 정도로 조용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정겹고 어찌나 친진무구하던지, 세상의 회로애락을 안고 정관(靜觀)하며 사는 시인 그대로의 모습이 시로서 표출되어 있다. 그의 문학적 지향은 사물과 서정이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物我一體)의 시심을 보이면서, 때로는 잔잔한 서정으로 삶을 투영하여 폭넓은 감동을 생성하여 마음에 닿게 한다.

- 이효녕(명예문학박사시인·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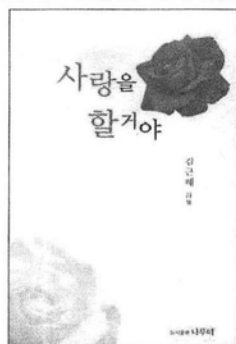


김근해 시집 사랑을 할거야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김근해 지음 / 정가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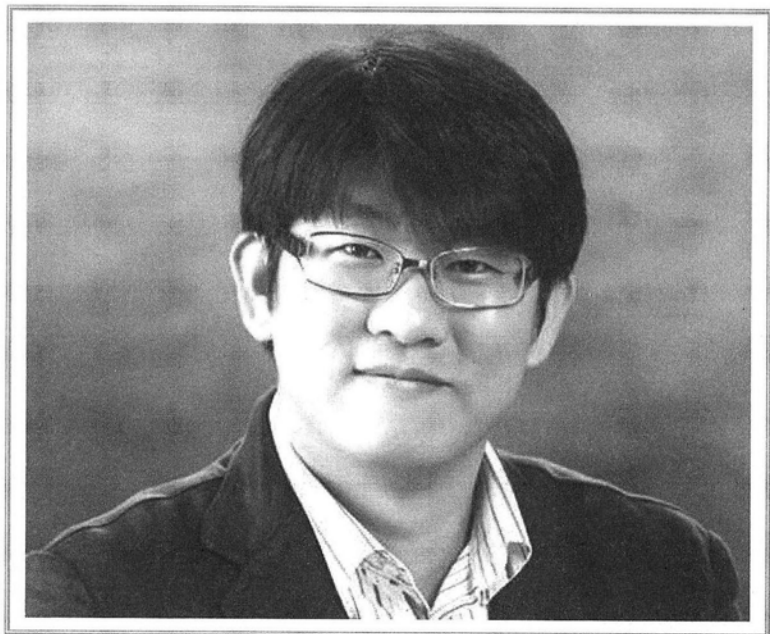
도서출판 나루터



김근해 시들을 정독해 보면, 그녀는 대자연 속의 자연물에서 생명의 근원을 들여다보며 때로는 친구와 대화하듯 수월하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질문을 던진다. 김 시인에 있어서 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시는 엄숙하지만 정겨움이 넘쳐 너무도 쉽게 이해된다. 우리가 사랑시라면 달콤한 사랑시가 제격일 것이다. 사랑시가 너무 난해하거나 별나면 읊조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 이효녕(명예문학박사시인·소설가)

| 시인이 읽는 시집 이야기 |



주영헌

충북 보은에서 출생하였으며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다. 2009년 《시인시각》 신인상에 「졸음, 夏葉, 음표」 외 4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용인문화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에세이집으로 『짧지 않았던 서른셋의 삶』이 있다.

언어의 실체

— 김언, 『소설을 쓰자』

주영현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이탈의 순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상상을 형상화하는 우리 언어, 바로 말이다. 예를 들어 팔등신의 늘씬한 여자 두서너트와 똥구는 상상을 한다고 하자. 이때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말이라는 상징이다. 만약 짧게 똥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몇 초라도 오래 즐기기 위해 몇 개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상징을 등장시켜야 한다. 의자나 침대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상징을 너무 쉽게 습득했기 때문에 상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이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불려야 하는지 사람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징으로 구분되는지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특정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러한 상징은 단순히 어떤 물체를 부르는 이름을 뛰어넘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의미까지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외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까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징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단순히 물체의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분하는 요소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같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 소통(경제, 문화, 정치 등등)의 원활함을 추구하고 있다. 언어 공동체는 보통 하나의 민족어로 구분된다. 비록 타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될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변질되거나 실제로 편입되기도 했다. 언어란 그 민족의 실체다. 민족과 언어는 따로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 소쉬르를 인용하면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가치 체계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한 민족이 언어를 잃는다면, 그것은 그 민족 자체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민족성 그 자체를 고스란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민족에게 이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공동체 전체 사람들의 생각을 고착화하고 신체 기능적 발전의 저해할 수도 있다. 그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말 하는 색은 한 가지 색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하늘색이나, 바다색, 새싹의 색, 소나무 잎 색, 심지어는 신호등의 녹색까지도 파란색의 범주 내에 속해서 얘기한다. 이러한 색채의 모호한 구분은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다. 물론 색에 대한 비유는 특수한 경우라고 치부하더라도,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 도덕 같은 관념이나 상식 등이 모두 언어를 통해 전파 확산 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언어가 한 민족의 실체를 구성한다는 특성 이외에도 언어는 여

러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언어는 우리의 일상을 강제하는 망(網)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언어에 녹아있는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언어는 문자화 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판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속임일 뿐이다. 언어의 눈속임에는 가히 파괴적 속성으로 가득 차있다. 그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거나 어떤 특정 집단이 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인류 전체가 되기도 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간단한 선언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은 가히 악마적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시인의 시를 읽어나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언어의 속성, 그 연구물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언어와의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전리품일 것이다.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갈색책』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언어에 그 근원에 대한 탐구가 『철갈색책』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의 시를 단순히 분위기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탐구하겠다는 진지함이 시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언의 이번 시집 『소설을 쓰자』는 『철갈색책』을 거론해도 될 만큼 철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명의 독자로서 읽는 내내 즐거움을 느꼈던 몇 안 되는 시집이었다.

1

시인은 언어의 숨겨진 본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보통 간과했던 언어의 속성은 아주 은밀한 것이어서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를 강제하고 있다. 시인은 그의 시집 『소설을 쓰자』를 통해 언어(말)의 숨겨진 본능에 대해 누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 위험하고 치밀한 작업은 마치 시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답다고 말하자 그는 문을 열었다.

내가 춥다고 말하자 그는 문을 꼭꼭 닫았다.

내가 감옥이라고 말하자 그는 꿈쩍 말고 서 있었다.

- 「감옥」 부분

그는 내가 답다고 하자 문을 열었다고 했다. 다시 춥다고 하자 문을 닫았다고 했다. 감옥이라고 말하자 꿈쩍 말고 서 있다고 했다. 만약 내가 다시 답다고 했으면 문을 열었을 것이고 춥다고 했으면 문을 닫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하지 않는가. 과연 밖이 더울까 추울까 하는 것을, 사실 외부의 기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다. 보통의 말들은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지시란 그렇지 않다. 추울 때 답다고 해서 문을 열 수도 있고 더울 때 춥다고 해서 문을 열 수도 있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는 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관점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나와 그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지시를 내리는 존재인 동시에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하나의 존재를 두 개의 개별체로 나누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지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를 두뇌로 보고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는 몸으로 본다면 이 논리는 합당하다. 이는 언어 전달의 과정 또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내가 말하는 행위란 뇌에서 몸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행위이며 그의 행위란 그 전기적 신호를 받은 내가 그 신호에 따라 육체를 강제로 움직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덥다는 의미가 가지는 상징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참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통하게 해서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앞의 두 문장만을 가지고는 언어가 폭력적이다 말할 수 없다. 더우면 창문을 열고 추우면 창문을 닫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은 다르다. 감옥이라고 말하자 그는 꼼짝 말고 서 있는 것은 감옥이라는 언어의 상징이 ‘감혀 있다’라는 폐쇄성을 동반한 말이기 때문이다.

말이란 상징이다. 앞서 설명했듯 말의 상징성은 쉽게 변하거나 누군가가 선택해서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강제성은 가히 파쇼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지각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내가 덥다고 말하자 그는 문을 꼭꼭 닫았다.

내가 춥다고 말하자 그는 문을 열었다.

내가 감옥이라고 말하자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의 차이가 느껴지는가. 쉽게 발견할 수 없을 수 있다. 사실 후자의 문장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장은 일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덥다고 말하자 꼭꼭

닫았다는 것은 에어컨을 켜기 위해 문을 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춥다고 말하자 문을 열었다는 것도 에어컨을 춥게 켜서 안과 밖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 문을 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선 이 문장의 앞부분에 에어컨을 켜었다고 하는 일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의 경우 어떤 의모로도 넘겨 집을 수 없는 문장이다.

내가 감옥이라고 말하자 그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감옥의 의미는 억제된 것, 움직일 수 없는 것의 의미를 그 내부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한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이라는 것이 국민 투표를 하듯 약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감옥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옥으로 받아들여 문장의 논리가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감옥을 자유라는 단어로 바꾸어 상징한다면 어떨까. 의미를 바꿔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는 관계로 문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겠다.

내가 감옥(=자유)이라고 말하자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익숙한 감옥이라는 상징을 자유라는 상징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것이다. 만약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자. 왜 우리는 감옥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옥이라는 의미로 불러야만 하는가. 감옥을 자유라는 의미로 변경하여 부를 수 없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약속이라는 의미 때문일 수도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상징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 파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을 어떤 특정한 의미로 한정하려는 그 권력이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의 억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상징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감옥의 상징을 다른 의미로 바꾸어 버리거나 아니면 감옥의 의미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문장에서 느낀 것처럼, 이 간단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감옥이라는 개념을 다른 무엇도 아닌 ‘특정한 범위 내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각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의 촉각을 곤두세운다. 촉각을 닦는 윤리의 싸움은 나의 입에서 크게 벌어진다.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건 나의 혀가 잘못 발음됐기 때문이다. 그는 실수로 나의 혀를 잘못 놀렸다.

- 「입에 담긴 사람들」 부분

나의 혀가 잘못 발음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면 말의 권능은 대단한 것이다. 어찌면 나는 말을 통해 살인을 청부하는 청부살인업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시에서 나의 존재감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감옥」에서의 것처럼 이용당하는 존재와 같은, 언어의 폭력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자일 뿐이다. 하지만 이 시에선 나의 존재란 타자의 범위를 넘어서 극단적 영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시에선 나는 그의 실수로 나의 허를 잘못 놀렸다고 했다.

그가 나의 허를 잘못 놀리게 할 수 있는가. 이 개념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나는 나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나의 허를 놀리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는 나뿐이다. 하지만 그가 나의 허를 놀리게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는 그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다. 그가 나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기에 그가 나의 허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 않다. 마법이라는 것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좀 더 논리적인 해석을 원한다면 이와 같은 해석할 수도 있다.

나의 허가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언어(상징)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허도 나의 허가 된다. 허를 말할 하다라는 기의를 가진 상징으로 본다면 같은 허를 가진 우리는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 결과 나의 허를 잘못 놀린 것이 그의 허를 잘못 놀린 것이 될 수 있고 그의 허를 잘못 놀린 것이 나의 허를 잘못 놀린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언어의 일반적 통용(通用) 근거를 한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결국 타자로부터 왔다고 하는 소쉬르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도 해방되는 방법은, 일반적인 통용을 버리는 일이다. 거부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거부란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한 언어를 거부하는 일은 그 언어 속에 담겨진 모든 역사와 문화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결론은 우리 언어로부터의 탈옥은 불가능하다는 것. 만약 가능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언어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뿐이다.

시인은 「뱀에 대해서」를 통해 혀에 대해 묘사를 하고 있다. 언어란 혀를 통해 형상화 된다. 음성학적으로 언어를 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성대라고 하지만 세밀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혀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 혀가 없으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다. 혀 없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아주 단순한 외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세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혀의 도움이라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 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것 또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인류의 발달은 지금과 같은 발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란 바로 문화의 발전과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기술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혀를 통해 발성되는 말이 아니었다면 쉽게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란 누적되는 것이고 그 누적을 말이라는 상징을 통해 재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인류의 역사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혀의 의미가 항상 긍정적인 것뿐만은 아니었다. 혀의 도움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만약 말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아니 혀가 없었다면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뱀이 인간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악과를 따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혀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 많은 중상과 모략은 없었을 것이며, 20세기 초 발발했던 세계대전이나 이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 따윈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의 혀는 이처럼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런

혀에 대하여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혀를 마치 뱀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쓸쓸하게 말한다. 혀에 대해서.

음악과 비명에 대해서 두 갈래의 혀를 가지고 말한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뱀의 형제들을 우리는 하루 종일 뒤집어쓰고 다닌다. 너무 무서우면 모자를 덮어쓰는 버릇. 허물을 벗고 머리카락은 빠져나온다. 두 갈래 세 갈래 혀를 내밀고 뱀은 지나간다. 모자를 벗기 위해.

- 「뱀에 대해서」 부분

뱀을 관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은 혀다. 월 새 없이 들락날락 거리는 혀, 두 갈래로 나누어진 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뱀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이 뱀의 혀, 시인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 혀의 한쪽을 음악으로 보았고, 나머지 한쪽을 비명으로 보았다. 사람이 인체를 통해 낼 수 있는 비명이나 음악의 출발은 하나다. 바로 혀의 도움을 받은 입을 통해서다. 소리를 내는 작용은 같은 것이지만 그 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비명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시에서 말한 머리맡에 수북이 쌓인 것들은 음악이거나 비명들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상상을 해 보자. 바로 혀의 원죄에 대하여. 그 원죄를 가진 혀를 재판해 보기로 하자. 이 혀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일차적으로 혀가 만들어 내는 양면성(음악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비명을 만들어 내거나 하는)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에 혀는 죄가 없다 할 수 있다. 혀가 한 일은 나쁘지만 혀 그 자체에는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일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우리는 혀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야 하는가. 다음의 시는 그 혀의 죄에 대한 검사의 심문 내용이다.

내일은 개각이 있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날, 세금을 걷기 위해 묘책을 짜내는 자들의 입은 뜨거운 혀를 관리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들 중 누군가 혀를 내밀면 신기하게도 길이 된다. 뚫린 길을 더 넓게 더 곧게 뺏어가느라 나귀 대신 자동차가, 인력거 대신 좀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 「퍼레이드」 부분

개각이나 전쟁의 선포, 세금을 걷기 위해 묘책을 짜내는 일은 다 말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이 많고 힘든 일들을 하기 위해선 혀가 뜨겁지 않을 수 없겠다. 혀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이지만 신기하게도 혀가 하는 일에는 꼭 뒤따르는 것들이 있다. 길이 나고 그 길이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길을 통해서 자동차가 지나다닌다. 혀는 아주 작은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 혀를 통해서 파생되는 일은 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다. 혀는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 포고의 몇 마디 말을 한 것이 전부이다.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목숨이 죽어나가고 경제 역사 문화 등등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일이다. 인류 역사에서 추방되어야 할 전쟁을 선포한 혀는 일급 전범이 되어서 처형되어야만 하는가? 사람의 목을 자르고 혀를 뽑아 다시 두 동강을

내어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에 빠져야만 한다. 혀에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3

말을 입과 혀의 작용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을 옮기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범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일을 한다면 조력자로 비유될 것이다. 말의 물리적 힘이 미치는 거리란 그다지 멀지 않은 것이어서 앞이 막히지 않은 평지에서도 불과 수 킬로에 불과하다. 이 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사람은 기계를 고안했으며 그것의 대표적 장치가 바로 마이크와 라디오다. 마이크와 라디오는 단순히 생각하면 말을 전달하기 위한 보조 도구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 그 확장된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몹서리 칠 수밖에 없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이용했던 인물들은 바로 정치인이라는 부류로, 만약 마이크와 라디오가 없었다면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몇 배의 힘과 비용을 더 써야 할 수 있다.

수상식이 말한다. 사회자를 대신하여 마이크가 말한다. 대리 수상자를 대신하여 그의 손목이 까딱 인사하였다. 여기,

- 「문학상 여사의 수상식」 부분

수상식이 말을 했다고 했다. 사회자를 대신하여 마이크가 말을 했다고 했다. 수상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들, 그 말은 누구에게 속한 말인가. 역(易)으로 되돌아가 보자. 나에게 말

이 전달되기 위해선 나의 두뇌가 귀로부터 전달되는 청각 신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 신호는 나의 귀의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소리는 공기를 타고 나에게 전달된다. 그 전달된 말은, 스피커를 통해서 울리는 것이며, 스피커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앰프로부터 스피커로 이어지는 전선을 통해서, 전선 전에는 앰프가 있을 것이고, 그 앰프에는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다. 마이크와 나의 입 사이에는 다시 공기가 있을 것이고, 나의 입 속에는 혀가 있으며, 그 혀의 아랫부분은 성대가, 성대를 움직이는 것은 근육 조직이며, 그 근육 조직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뇌에서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이며, 그 전기적 신호를 지시하는 곳은 다시 뇌이고, 뇌는 창조적이지 못해서 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된 단어와 문장들을 바빠 찾아다닐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렇지 않고 하는 한 마디의 말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작용이 관여하고 있다. 이제 찾아보자. 과연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말의 주인은 누구인지. 아니 그것이 힘들다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말을 한 사람이 사회자일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지분이 가장 크다고 말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문학상 여사의 수상식장으로 돌아가 보면.

수상식이 말한다고 하였다. 맞다. 크게 보면 그 말들은 수상식 가운데 일어난 말들이기 때문에 수상식이 말한 것이다. 사회자를 대신하여 마이크가 말을 했다고 했다. 이 말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사회자가 말한 것이기도 하고 마이크가 말한 것이기도 하며, 스피커가 말한 것이기도 하니까. 수상자를 대신하여 그의 손목이 까딱 인사하였다고 했다. 그 말은 맞다. 수상자가 인사하는 순간 수상자의 손목도 까딱 인사했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 맞다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논리의 조합이 일반적 상식에 반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시인의 시 「문학상 여사의 수상식」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확인할 수 있지만 보통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들이다. 결과를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는 천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확성기와 라디오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전에는 체조와 악대 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전쟁은 늘 이기고 있었고 내 말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열린다. 처음에는 소음인 줄 알았다.

- 「라디오」 부분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도 일왕은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의 민중들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일왕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조건 없이 항복한다는 목소리였다. 히틀러는 일왕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정치가였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 속에서 언제나 독일 민중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 독려를 통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의 존재는 라디오를 통해서 언제나 확인되었다. 버튼만 돌리면 언제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라디오 속에 히틀러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속에

도 일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중이 듣고 있는 것은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 전파였다. 어쩌면 민중이 들었던 목소리는 실제 일왕이나 히틀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말의 영화를 통해 만났던 외국 배우의 목소리가 정작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가 한 말의 진실임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퍼레이드」 부분에서처럼 허가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이 단순한 표책이라면 그 말의 이면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 말에 이면이 없음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있을까. 사실 믿는 놈이 바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그만큼 우리가 순수하지 않기), 믿지 못 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명확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4

우리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코드다. 자식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믿지 못한다. 국가는 이웃 국가를 믿지 못하고 신은 이 천년 전 몇몇 사람이 돈 몇 푼에 자신의 아들을 팔아넘긴 인간을 믿지 못한다. 지구를 네트워크처럼 덮고 있는 불신이라는 망(網)에 우리 모두는 피라미처럼 잡혀서 파닥거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까닭에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생긴다. 바로 불신의 명확(明確)이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만큼 더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믿지 못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낫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

고 당하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피해만큼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배신당했다고 하는 마음의 상처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시인은 「이보다 명확한 이유를 본 적이 없다」를 통해 그 명확한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가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꼭 거짓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보다 명확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사건 다음에 문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다음에 사건이 생긴다. 어떤 문장은 매우 예지적이다.

어떤 문장은 매우 불길하다. 그리고 어떤 문장은

자신의 말에 일말의 책임을 진다. 그것은 조금 더 불행해졌다.

- 「이보다 명확한 이유를 본 적이 없다」부분

문자만큼 명확한 것은 없겠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문자는 활자화 되어 있고, 활자화 되어 있는 그 뜻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문자 그대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자를 이용해서 대중들을 생각을 왜곡하고 선동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다. 우리는 보통 신문을 가장 명확한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한계 시야를 넘어 세상 곳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신문을 통해 얻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믿음은 쉽게 산산조각 나기도 한다. 어디선가 발생한 폭동은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타협할 수 없는 폭동처럼 신문을 통해 보도되곤 하지만 그 의미의 진실을 파헤쳐 보면 신문의 보도와

정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직접 겪은 경험이며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중들이 지구 반대편 나라의 대중들이 겪은 경험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신문을 그대로 다 믿지 않는다. 신문을 다 믿은 관계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장 명확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관점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선물처럼 안겨 주고 있다.

약속대로 전쟁이 터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문장으로 수천만의 목숨이 미세하게 저울질된다.
삶과 죽음, 이 말은 너무 단순하다.
적과 아군, 이 말은 너무 명쾌하다.

- 「이보다 명확한 이유를 본 적이 없다」 부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말과 함께 전쟁이 터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문장은 암호명이다. 시인이 친절하게 기록해 놓은 각주에 따르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쓴 암호라고 한다. 이 문장이 지칭한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더 많은 할머니가 이 전문을 통해 죽어갔다. 할머니도 되어보지 못한 젊고 어린 소녀들이 총이나 포탄에 맞고 일부는 악명 높은 포로수용소의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이 불명확한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죽음이라는 명제로 재탄생되었다. 이는 문자가 가지는 극한의 아이러니다. 문자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의 시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말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이 없었다면 너와 나의 생각을 나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말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다. 하지만 반면에 말은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의 출발은 말 때문이었고 극단적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말 한마디는 유럽 전체가 심각한 위험 속으로 빠트리기까지 했다. 말은 이처럼 머리위로 들고 있는 양날의 검처럼,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 칼에 내 머리가 두 동강 낼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기도 한 것이다. 말의 양면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설명했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에게는 진실한 것이 누구에게는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거짓과 진실이 뒤바뀔 수도 있다. 말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진실이 되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말을 지배하기보다, 말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말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우리는 이미 말의 경계로 국가의 경계를 만들었고, 말이라는 사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말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말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말이 가지는 불합리적 속성과 말이라는 허물을

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다. 아니 시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불가능할 일일 것이다. 사실 말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뒤따라 가다 보면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고 말테니까.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이 시집을 다 읽은 후에 발견할 수 있는 비판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출발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한다는 점, 그 토대 위에서 새롭게 자각하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1. 비트겐슈타인, 『철갈색책』, 진중권 옮김, 그린비, 2006
2.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김현권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 문 학 기 행 |

용인문학
「한글」



안 영 선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하고 휘문고등학교를 거쳐 국민대학교 국문학과와 아주대학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4년 《용인문학》 신인상과 2011년 교원문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전국에 산재한 문학 관련 유적을 답사하고, 그 내용을 담아낸 『살아 있는 문학여행 답사기』(마로니에북스)가 있다. 《한국교육신문》에 ‘국어 쌤, 길에서 문학을 만나다’를 연재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 상하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다.

| 길에서 문학을 만나다 |

가사 문학의 1번지를 찾아서

— 송강가사의 산실이 된 담양 —

안영선

강진과 해남이 ‘남도답사 1번지’라면 담양은 ‘가사 문학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다. 서포 김만중이 ‘동방의 이소’라고 극찬한 가사 문학의 백미.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정산별곡』의 산실 담양을 찾아간다.



담양의 자랑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가사 문학 1번지

담양은 한국 문화의 보고라 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수해를 막기 위해 400년 전에 심어 이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방제림을 비롯하여 이국적인 정취는 만들어 내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은 드라마 ‘겨울 연가’의 촬영지가 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70년대 초에 조성된 이 가로수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름다운 추월산과 가마골생태공원,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로 그 길이가 무려 7,300m에 이른다는 금성산성을 포근히 감싸 도는 담양호의 절경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일구어낸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담양을 떠올릴 때면 많은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있는 대나무를 연상한다. 죽세품의 고장이라는 말에 걸맞게 담양으로 들어서면 울창한 대나무 숲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죽녹원, 대나무테마공원, 대나무박물관 등 어느 것 하나 대나무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시장 끼를 감추기 위해 음식점에 들러도 역시 대나무통밥에 죽순을 찬으로 내놓으니 담양은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나무의 매력에 쏙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담양에는 대나무가 많은 것일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다간 선비의 넋이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담양은 대나무 못지않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 또 있다. 그것은 조선조의 대표적 건축 양식인 누각과 정자로 담양 지역에만 약 60여 개가 분포하고 있는데 자연에 순응하고자 했던 생활 철학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정자 문

화라고 할 수 있다. 담양에서는 독수정(전신민)을 시작으로 상월정(김자수), 면앙정(송순), 소쇄원(양산보), 식영정(임억령), 환벽당(김윤제), 송강정(정철), 소정(배수후), 취가정(김덕령), 풍암정(김덕보), 관수정(조여충), 명옥헌(오이정), 죽림재(조수문) 등 그 수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정자와 누각은 은둔한 선비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며 국문학의 꽃을 피우는 산실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 담양에 은거했던 선비들은 자연 속에서 그들의 삶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훌륭한 가사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면앙정 송순과 송강 정철의 가사 문학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발휘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남면 지곡리에 있는 부용당 전경

강진과 해남이 ‘남도 답사 1번지’라면 이곳 담양은 ‘가사 문학의 1번지’라고 말하고 싶다. 담양에서 지어진 가사 작품 중에서 국문학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대충 간추린다 해도 그 수는 매우 많다.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한 이서의 <낙지가>를 비롯하여 자연 속의 즐거운 삶과 연군의 정을 담아낸 송순의 <면앙정가>, 가사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며 서포 김만중이 ‘동방의 이소’라고 극찬한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사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감을 표현한 정식의 <축산별곡>, 유교적인 교훈을 담아낸 남극엽의 <향음주례가>와 <충효가>, 유도관의 <경술가>, 남석하의 <백발가>, <초당춘수곡>, <사친곡>, 정해정의 <석촌별곡>과 <민농가>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송강가사의 산실을 찾아서

담양을 여행하면서 여행기 속에 무엇을 담을까 고심을 해 본다. 어느 지역은 담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데 담양은 그 반대다. 여행기 속에 담아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선별 작업부터가 쉽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가사 문학의 대두인 송강 정철의 흔적을 쫓아보고자 한다.

송강 정철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가 유배 생활에서 풀어난 16세부터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를 하는 27세까지의 젊은 시절을 이곳 담양에서 보냈고, 40세와 43세에 동인과의 갈등으로 약 3년 간 낙향하여 이곳에서 생활했다. 그 후 선조 18년인 1585년에는 관직을 내놓고 낙향하여 50세부터 54세까지 약 4년간을 이곳에서 생활하며 <사미인곡>, <속미인곡>의 주옥같은 작

품을 완성한다. 이 시기들이 정철과 담양을 이어주는 끈이라고 할 수 있다.

담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송강 정철의 유적지로는 고서면 원강리에 있는 송강정과 광주호 상류에 자리 잡은 식영정과 환벽당을 들 수 있다. 또 최근에 건립된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그의 영상자료와 작품 및 저서를 관람할 수 있다.

담양읍을 빠져나와 광주로 향하는 29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고서나들목 직전에서 송강정 안내판을 만나게 된다. 성산(星山)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송강정은 서인의 영수였던 송강 정철이 그의 나이 50세가 되던 1585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인의 탄핵을 받아 대사헌 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4년 간 은둔 생활을 하던 곳이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옷깃을 적시기 시작한다. 빗방울에 젖은 돌계단을 따라 100m 남짓 오르면 노송과 대나무 숲의 호위를 받으며 송강정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현판에 걸린 죽록정이라는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 의하면 이 정자의 원래 이름은 죽록정이었는데 정철이 벼슬길에서 물러나 이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증수하고 이름을 송강정으로 새롭게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자의 앞면에는 송강정이라는 현판이, 측면에는 죽록정이라는 현판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한다.

송강정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에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로 정자 안에는 여러 개의 편액이 걸려 있다. 오래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나뭇결에서 묻어나는 선인들의 체취가 그대로 전해 오는 것을 느껴본다. 정자에 앉아 그 옛날 송강 정철이 바라다보았을

산과 들과 개울을 바라본다. 이제는 들판을 가로질러 새롭게 도로를 만들고, 개울은 깔끔하게 정비를 하여 옛날의 정감 어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송강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 개울의 옛 이름이 죽록천 또는 송강이라 불렀는데, 정철의 호인 송강도 이 개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솟아 유구한 세월 동안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송강 정철은 이 정사에서 많은 시인 묵객들과 자연에 의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멀리 북향을 바라보며 임금의 정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르리라.

그 그리운 마음을 담아 정철은 50세의 나이에 이 송강정에서 그의 대표 가사 작품인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썼다. 송강정 옆에는 1955년에 세워진 <사미인곡> 시비가 있다. 시비 앞면에는 ‘송강정선생시비’라고 적혀 있으며 측면과 뒷면에는 <사미인곡> 전문이 정갈하게 새겨져 있다. 비록 시비의 모습이 볼품은



고서면 원강리의 송강정 전경(죽록정으로도 불림)

없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 일찍 시비가 세워진 것을 보면 송강정과 <사미인곡>이 갖는 문학적 가치를 새삼 짐작해 볼 수 있다.

송강정에 오르면 이 마을에 살면서 정자를 관리하는 정철의 후손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비가 내리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도 아침마다 정자 주변을 청소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조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조심스레 성함을 물어봐도 지긋이 웃을 뿐. 그는 사람들이 이곳을 단순한 관광지 정도로 알고 찾아오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한다. 송강 정철이 은둔하여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살았던 이곳을 유배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왕권에 아부하는 유배 가사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다.

시비에 적힌 <사미인곡>의 한 구절을 읽으며 송강 정철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緣分分이며 하날 모랄 일이런가.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피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대 노여 업다.

-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 중에서

송강정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식영정이 있는 담양군 남면 지곡리로 향한다. 887번 지방도로를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그만 났을 잃는다. 그렇게 자연의 경치에 심취해 광주호 옆길을 따라 10여 분 정도를 달리면 광주호 상류

인 지곡리에 도착한다. 지곡리의 우리말 이름은 지실마을인데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가사 문학의 1번지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멀리 무등산의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소쇄원을 돌아 흐르는 물과 만나 이루는 창계천의 물줄기가 광주호로 흘러 들고 있으니 그 경치가 만들어내는 정취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창계천의 옛 이름은 자미탄(紫微灘)이라고 한다. 식영정 아래 도로 옆에는 광주호를 바라보는 위치에 자미탄 유래를 담은 작은 기념 표정이 세워져 있다. 자미는 배롱나무를 의미하는 말로서 옛날 이곳에 개울을 따라 배롱나무가 늘어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붉은 꽃구름을 이루는 것 같았다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이 광주호 물속에 잠기고 상류만 창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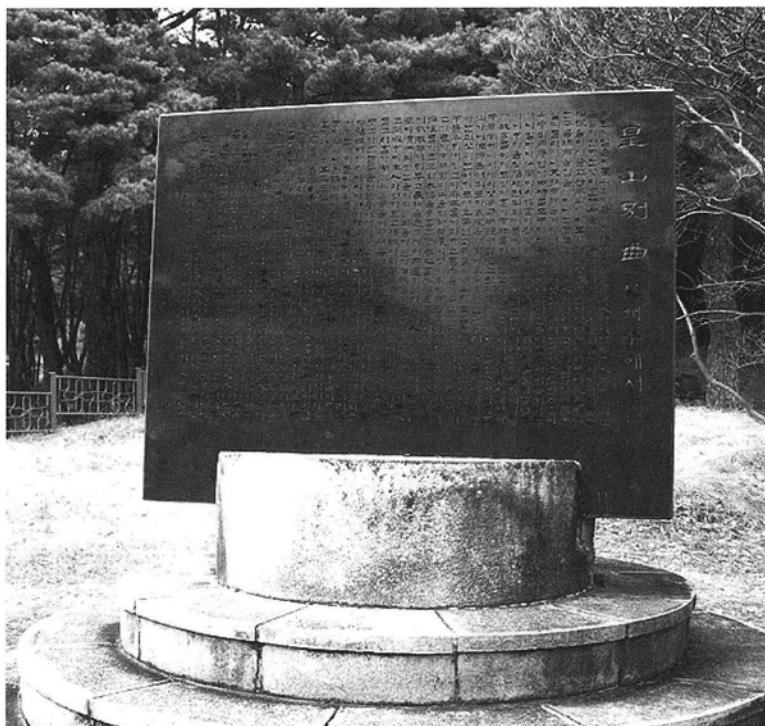
지곡리에는 식영정과 환벽당, 소쇄원, 독수정 등 이름난 정자들이 맑은 창계천을 따라 건립되어 있다. 이중에 어느 곳을 찾아들어도 옛 시인들의 풍류를 읊던 소리가 귀가에 들려올 듯하다. 이렇게 이 정자 안에 앉아만 있어도, 그것 자체가 자연이 주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담양에 올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어찌면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자연이 내게 주는 혜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은 소쇄원에 갔다가 폭우를 만난 적이 있다. ‘소쇄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는 어느 교수님이 끌어준 녹차를 음미하며 세월대에 앉아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대나무 숲에 빗방울 듣는 소리와 굵이굵이 반석을 돌아 흐르는 계곡 물, 비가 올 때만 만들어진다는 작은 폭포. 선인들이 이야기 하던 물아일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소쇄원의

참맛은 비가 와야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성산의 한 자락에 있는 식영정은 이름에서부터 풍겨나는 재미가 있다. 식영정(息影亭)이라는 이름은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그림자조차 쉬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즐겼던 것일까. 지금은 광주호가 생겨 옛 모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석병풍과 자미탄의 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돌계단을 오르면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주인처럼 손님을 맞는다. 비 오는 날 식영정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물안개 피어나는 광주호와 그 너머의 무등산과 어울려 잊을 수 없는 감흥을 준다.



식영정 앞에 있는 시비 <성산별곡>

식영정은 정철이 지은 것은 아니다. 이 정자는 조선 시대의 대문장가인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것이라 전한다. 장인인 임억령은 직접 식영정이라는 이름을 짓고 시인 묵객들을 불러들여 함께 문장을 짓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다. 식영정의 현판 옆에는 여러 개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는 ‘식영정 사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정자의 주인인 김성원과 임억령, 그리고 이곳을 즐겨 찾던 고경명과 정철의 작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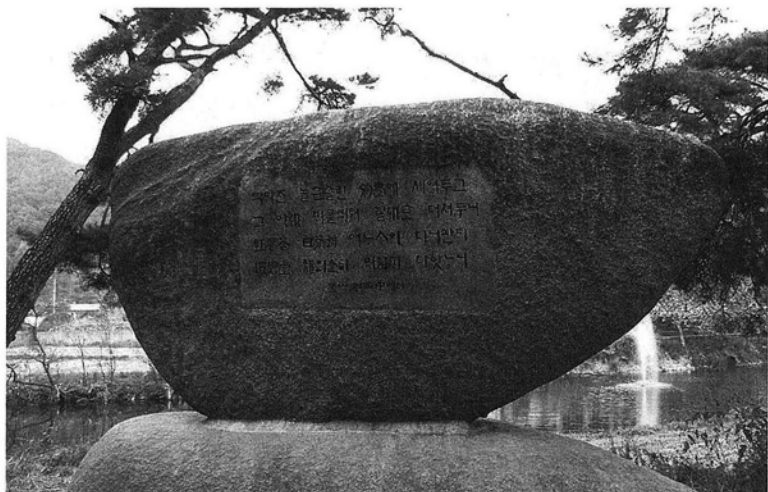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으로 그 형태가 송강정과 비슷하지만 마루가 다소 작다. 마루에 앉아 앞을 내다보면 소나무 가지 사이로 광주호의 푸른 물빛이 신비로움을 드러낸다. 식영정 뒤편에는 <성산별곡> 성주본 전문을 담아놓은 시비가 있다. 시비 옆에 서서 기념으로 사진을 한 장 찍는다. 송강 정철은 25살에 이곳에서 <성산별곡>을 지었다. <성산별곡>은 식영정의 주인인 서하당 김성원의 풍류 생활을 예찬하고 철마다 변화하는 성산의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노래한 작품이다.

식영정을 내려오면 왼쪽으로 김성원이 거처했다는 서하당과 부용당이 최근에 복원이 되었고, 그 앞에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연못 앞에는 이곳이 송강가사의 산실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에 세운 ‘송강 정철 가사의 터’라는 기념비가 다소 흉물스럽게 서 있다.

환벽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가사문학관 앞에서 창계천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난 작은 길로 접어들면 된다. 환벽당이 있는 곳은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에 해당이 된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달라졌지만 환벽당은 식영정과 함께 송강 정철의 중요한 유적지가 된다.

광주광역시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환벽당은 나주목사를 지낸 김윤제가 낙향하여 건립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교육의 현장이다. 송강 정철은 서하당 김성원과 함께 김윤제의 문하에서 학문을 공부한다. 특히, 정철은 아버지의 유배가 풀리고 이곳으로 내려온 16세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하기까지 약 10년의 세월을 이 환벽당에서 머물면서 학문을 닦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환벽당 입구에는 조대(釣臺)와 용소(龍沼)가 있는데 이곳은 김윤제가 정철을 처음 만난 사연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곳으로 지금은 <성산별곡>의 일부가 시비로 세워져 옛날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 김윤제가 환벽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창계천의 용소에서 용 한마리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꿈을 깬 후 용소로 가 보니 용모가 비범한 소년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송강 정철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환벽당에 머물며 공부를 하게 되었고, 후에는 그의 외손녀와 혼인을 하여 인척의 관계를 맺게 된다.



환벽당 앞 창계천에 있는 <성산별곡> 시비

송강 정철은 이곳에서 김윤제 외에도 김인후, 기대승 등과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 학문과 시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송강 정철이 정자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낭랑하게 글 읽는 소리가 창계천 맑은 물소리와 섞여 한껏 멋을 더한다.

송강 정철의 삶과 문학

송강 정철은 1536년 서울의 장의동에서 연일 정씨인 아버지 유침과 어머니 죽산 안씨 사이에서 4남 3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계함이고 송강은 그의 호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고, 송강 정철이 10살이 되던 해에 을사사화가 일어나 매형인 계림군이 관련되자 아버지와 큰형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한다. 형은 유배를 가는 도중에 사망하고, 아버지는 관북지방에 있는 정평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어린 그도 아버지의 유배지를 따라 다녔다. 5년 만에 유배 생활이 끝나자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의 담양인 창평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 때 그의 나이 16세였다. 창평에서의 생활은 송강 정철이 후에 대학자요, 문학가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이곳에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유학자인 김윤제, 기대승 등을 만나 학문과 시를 배우게 된다. 이 때 정철은 식영정을 오가면서 김성원, 임억령, 고경명 등과 교류하면서 <성산별곡>을 짓는다.

27세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되며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울곡 이이와 함께 사가독서(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45세에는 강원도관찰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외직에 나가게 된다. 스스로 관동 팔경의 주인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와 술을 즐기던 정철은 이 때 관동 팔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관동별곡>과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유교의 교훈을 담은 시조 <훈민가>를 짓는다.

50세인 1585년에는 사간원과 사헌부의 논척(論斥)을 받아 벼슬을 내놓고 창평으로 내려와 약 4년 간 은둔 생활을 한다. 송강 정에서 주로 생활하며 문인들과 교류하고 가사 문학의 백미인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그리고 많은 시조와 한시를 지었다.

55세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가 직위가 좌의정까지 올랐으나 왕위 계승 문제로 왕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당하게 된다. 처음에는 진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강계로 이배가 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석방이 되고 이듬해 강화에서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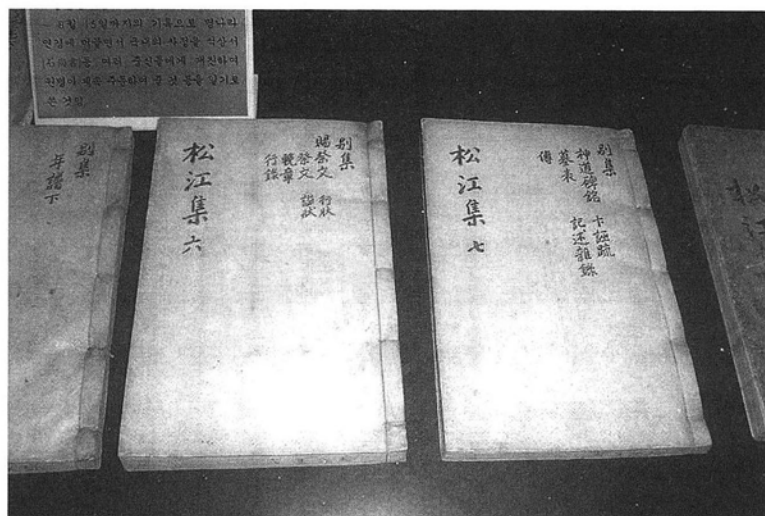
서인의 영수가 되어 유배 생활을 하고 수차례에 걸친 사직을 통해 창평에 머물며 은둔 생활을 하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바른말을 잘하는 그의 성품 때문이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면 시원리에 있었으나 1665년에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 있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야산으로 이장하였다. 묘소가 있는 봉죽리에는 송강 정철의 사당인 정송강사가 있는데 사당 입구에는 신도비가 있고, 유물전시관에는 유품과 친필 편지, 문집 등이 보관되어 있다. 사당 남쪽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 300m 정도 가면 송강 정철의 묘소가 보인다.

엇던 디날 손이 성산의 머물며서
하서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 듯소.

인생 세간(世間)의 도흔 일 하건마는
 엇디 한 강산을 가디록 나이 너겨
 적막 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송근(松根)을 다시 쥘고 죽상(竹床)의 자리보와
 저근덧 올라안자 엇던고 다시보니
 천변(天邊)의 썰는 구름 서석을 집을 사마
 나난듯 드난 양이 주인과 엇더한고.
 창계(滄溪) 흰 물결이 정자 알피 둘러시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뉘라서 버혀 내어
 낫는듯 퍼티는 듯 현스토 현스할샤.
 산중의 책력(冊曆)업서 사시를 모르더니
 눈아래 헤틴 경(景)이 철철이 절로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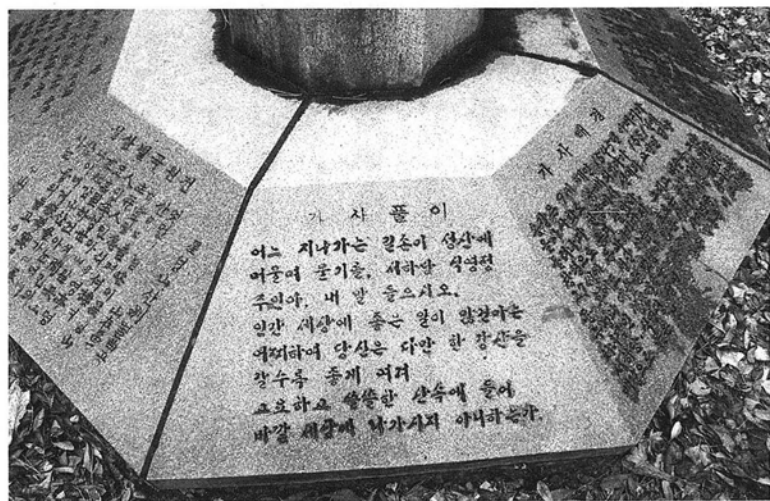
— 정철의 <성산별곡> 서사



한국가사문학관에 전시된 『송강집』

송강 정철이 25세 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산별곡>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서하당 김성원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뜻을 담아 지은 작품이다. 서하당 김성원은 식영정을 건립한 사람으로 정철과는 각별한 사이였다. 김윤제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김성원은 정철보다 11살이 많은 동문이다. 또 김윤제와 인척지간인 그는 정철의 처에게는 외재당숙이 된다. 이 작품을 감상해 보면 정철이 서하당 김성원의 삶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당시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과 사상, 자연을 대하는 태도 등을 잘 알 수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치와 식영정 주인 김성원의 풍류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송순의 <면앙정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사에서는 식영정 주인의 풍류와 선경과 같은 경치를, 본사에서는 식영정 주변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를, 결사에서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술과 거문고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신선의 풍모를 그리고 있다.



부용정 앞에 있는 송강가사 기념비

어와, 虛허事사로다. 이 님이 어대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찰 뿐이로다.
 찰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窓창 안해 번드시 비최리라.

- 정철의 <속미인곡> 결사

이 작품은 <사미인곡>의 후속 편으로 창평에 낙향하여 송강정에서 지내던 50세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연군지사라는 점에서 같다. 반면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작품 형식과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언어를 구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고유어가 갖는 말의 아름다움을 절묘하게 구사하고 <사미인곡>보다는 훨씬 소박하고 진솔한 표현을 담아내어 예술성이 매우 높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 대해 홍만중이 [순오지]에서 제갈공명의 <출사표>에 어깨를 나란히 할 작품이라고 극찬하고,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굴원이 지은 <이소>와 견주어 ‘동방의 이소’라고 극찬한 것을 보면 우리 문학사에 길이 빛나는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담양 여행의 필수 코스

광주호 상류인 남면 지곡리에 위치한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 문학의 1번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담양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가사 문학을 발굴하여 연구하고 보존하며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5

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00년 10월에 완공하여 개관한 우리나라 유일의 가사 문학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5,000여 평의 넓은 대지에 650평의 규모로 지어진 한옥 모양의 본관과 부속 건물인 자미정과 세심정 등 정자를 갖추고 있는데 문학관의 뒤를 호위하는 성산과 앞으로 흐르는 창계천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더한다. 뜰에 조성된 연못이나 나무 한 그루, 조각상 하나에도 조경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1층에는 영상실과 세미나실, 제3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제1, 제2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실에서는 담양의 가사 문학과 정자 문화를 담은 영상홍보물이 상영되는데 이 영상물을 시청하고 전시장을 관람하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시품으로는 가사 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작품과 유품 등 다양한 전시품이 소장되어 있다.



남면 지곡리에 자리한 한국가사문학관 전경

제1전시실에는 송순의 교지, 시호장, 분재기, 면양집, 면양정가 등과 정철의 문청공연행일기, 문청공유사, 송강집 목판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제2전시실에는 규방가사를 비롯한 기타 가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기증을 받은 작품들이 많다. 제3전시실은 소쇄원과 관련된 자료, 가사 문학권 인물의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장서실에는 [송강집]과 [기암집]의 목판 53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이 있는 지곡리 근처에는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이 있어 함께 돌아본다면 가사 문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면 지곡리에 있는 소쇄원은 소쇄처사 양산보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에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은둔하며 살기 위해 꾸민 원림이다. 보길도의 부용동, 영양의 서석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원림으로 불리는 소쇄원은 대나무 숲길을 따라 오르는 재미를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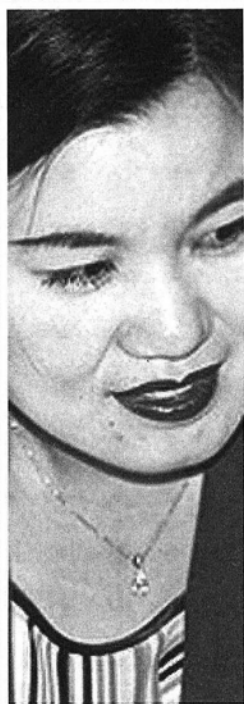
소쇄원의 ‘소쇄(瀟灑)’는 깨끗하고 시원함을 의미하고 말이다. 사실 소쇄원에 들어서면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몸과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낀다. 양산보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호를 소쇄처사라고 하였다. 소쇄원은 자연의 원형을 그대로 살려 자연에 순응하는 선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 속에 세월대와 광풍각 등을 지어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세월대에는 하서 김인후가 쓴 <소쇄원사십팔영시>와 <소쇄원도>가 걸려 있다.



소쇄원의 멋스런 정취를 자아내는 흙담

양산보가 처음 원림을 꾸밀 때에는 제월당, 광풍각, 애양단, 대봉대 등 여러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몇 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원림 앞에 세워져 손님을 맞이하던 대봉대와 주인의 생활 공간인 제월대, 풍류의 공간으로 계원의 중심인 광풍각 등이 비교적 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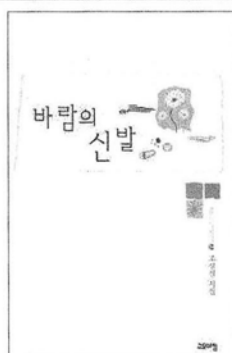
소쇄원은 단순히 풍류를 즐기고 은둔자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이야기하고 문장과 시를 지으며 문학을 이야기 하는 선비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공간인 것이다. 



열린시학기획시선_34

바람의 신발

조성심 지음 / 정가 7,000원
고요아침



조성심 시인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그 구체적 공간인 '무덤'에 대한 인식은 타자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공존의 공간이다. 여기에 시인 특유의 시적 상상력이 놓여 있다. 폐쇄적 동일성이 아니라 대립하는 것의 공존이 상상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이지엽(시인, 경기대 교수)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살아 있는 문학여행 답사기

안영선 지음 / 정가 12,000원
마로니에 북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는 문학 그리고 문학여행

『살아 있는 문학여행 답사기』는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문학 작품들을 여행을 통해서 더욱 흥미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반가운 책이다. 대학 입시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읽어야했던 아름다운 우리 문학의 진정성을 찾는 여행, 지금 떠나보자!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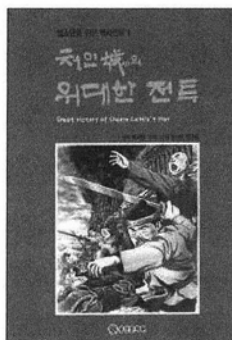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역사 만화 1

처인성의 위대한 전투

원작 박숙현/ 각색·그림 윤기현, 정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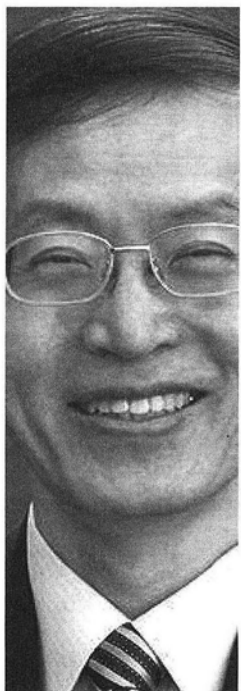
정가 13,000원

웅인문화원



세계를 제패하던 몽골제국이 고려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국토의 유린과 문화재의 손실은 물론 수많은 백성들이 몽골에 잡혀가거나 살육 당했다. 왕과 귀족은 강화도로 피신하고 백성들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했던 풍전등화의 시기. 용인의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세계 역사에 크게 기록될 위대한 승리가 있었으니…….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청어시인선_60

뒤로 걷기

최성훈 시집

최성훈 지음 / 정가 8,000원

청어출판사



최성훈의 시에는 우리의 일상적 또는 상식적 차원을 한테 묶어 여러 이미지가 자유자재로 결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들이 한결같이 시인의 영과 육의 움직임의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최성훈의 시를 찬찬히 뜯어보면 시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에 얼굴이 핫했해진다. 그것은 시의 가편들이 여기저기서 파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 정성수 시인

이 시집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초대작가로 안도현, 고영, 오주리 시인을 모셨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후 『서울로 가는 전봉준』 등 많은 시집과 『언어』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출간하고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안도현 시인의 「저녁밥」 외 2편, 2003년 《현대시》로 등단하여 시집 『너라는 벼락을 맞았다』 등과 제1회 질마재해오름문학상을 수상한 고영 시인의 「원고지의 밤」 외 2편, 젊은 시인으로 201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오주리 시인의 「은화(隱花)를 안다」 외 2편을 실었다.

■ 제13회 용인문학 신인상이 발표됐다. 시 부문의 당선작으로 고민정의 「배드민턴」 외 2편을, 산문 부문에서는 장미숙의 수필 「지붕」 외 1편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예년에 비해 용인문학신인상에 대한 문학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소설 부문에서는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고민정씨와 장미숙씨의 건필을 기원하며 용인문학은 물론 한국 문단을 이끌어 갈 재목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용인 출신의 연극학자인 유민영 교수(단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이향란 시인의 인터뷰로 실는다. 유민영 교수는 한국연극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예술의 전당과 정동극장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그 외 연극을 포함한 각종 공연 예술 분야의 심사위원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한국현대회고사」, 「한국근대연극사」, 「한국연극운동사」, 「한국 인물연극사」, 「한국 연극의 사적 성찰과 지향」 외 다수가 있다.

■ 기획특집으로 「박후기의 울림을 주는 시」를 다뤘다. 여기에 수록된 시와 글들은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후기 시인이 2년 가까이 《용인신문》에 매주 연재하고 있는 「박후기의 울림을 주는 시 한 편」에 실린 작품 중에서 10편을 선정한 것이다. 시에 얹힌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인들의 사진과 함께 수록하여 시에 대한 색다른 감상을 소개하고 있다.

■ 회원특집에서는 이인숙 시인을 다뤘다. 이 시인은 60대의 늦은 나이인 2010년 《자유문예》 신인상을 통해 시 「폭포」와 「개나리」가 당선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이해인 시인을 좋아하다가 시인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이 시인은 2009년 5월에 10년 동안 시를 써 모은 것을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벽을 바라며』라는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 ‘시인이 읽는 시집 이야기’에서는 평론에 주력하는 주영현 시인이 독특한 관점을 통해 김언 시인의 시집 『소설을 쓰자』가 지닌 철학적 깊이와 언어 속에 숨겨진 본능을 맛깔스러운 언어로 다루었으며, ‘문학기행’에서는 담양 지역을 답사한 안영선 시인이 「가사 문학의 1번지를 찾아서」를 통해 송강 정철의 문학 세계와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는 문학 답사 이야기를 담았다.

정기구독 안내

반년간지 《용인문학》은 아래와 같이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년간지 《용인문학》은 종합문예지입니다.
- 반년간지 《용인문학》은 작가와 독자가 함께 읽는 문예지입니다.
- 반년간지 《용인문학》은 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정기구독자에 대한 예우

- 할인된 가격으로 발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용인문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귀한 손님으로 모십니다.
- 우송료는 용인문학회에서 부담합니다.
- 구독 기간 중 책값이 인상되어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정기구독료 : 1년 18,000원(각권 구입 시 10,000원)

정기구독 신청 : 은행을 이용할 경우 다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농협 184-12-061742 (예금주 : 김종경)

입금 후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문의전화 : 010-9508-0335(사무국장)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5-7 성문빌딩 지하 1층

「용인문학회」 편집부

용 인 문 학 회

용인문학회 회원 모집

문학 운동에 뜻을 함께 할 창작인을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용인문학회는 용인 지역 순수 문학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용인 문화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창작을 통해 대중 문학 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문학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부문 : 시 · 소설을 포함한 모든 문학 장르

2. 모집 대상 : 창작 활동을 원하는 용인 거주 시민

3. 모집 기간 : 연중 수시 모집

4. 연 락 처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5-7 성문빌딩 지하 1층
010-9508-0335(사무국장)

5. 기타

- * 용인문학회에서 발간하는 《용인문학》에 참여할 수 있음.
- * 용인문학회 카페(<http://cafe.daum.net/yonginmunhak>)에서도 입회 가능.

용 인 문 학 회

2011년 하반기호(통권 18호)

발행일 | 2011년 12월 1일

발행처 | 북앤스토리

발행인 · 편집인 | 김종경

편집고문 | 이기형 김운배 김종성 이훈식 홍사국

편집위원 | 박후기 손영란 이향란

편집주간 | 안영선

편집장 | 주영현

편집 | 북앤스토리

디자인 | 북앤스토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35-7 성문빌딩

전화 | 010-9508-0335(사무국장)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yonginmunhak>

등록번호 | 경기도사00073

등록일자 | 2008년 12월 5일

정가 | 10,000원

ISSN 2092-5719

이 책은 2011년도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NO.1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용인신문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지방자치의 동반자, 용인신문이 되겠습니다.

용인의 정론지 용인신문!
신문 구독은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구독 신청은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www.yonginnews.com

구독문의 031-336-3133

인터넷구독신청 : 홈페이지 하단에
정기구독안내 클릭

※구독신청 :

월 5천원 / 1년 선납시 5만원

자동이체를 희망합니다

(계좌: 농협 187-01-276662)

문의: (031)336-3133

삼성전자에서는 Windows® 7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스마트의 진화를 완성시키다
모두가 소유할 수 없는 [9]
최상급 듀얼투인 소리와 프리미엄 실버 컬러의 스마트한 만남



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
삼성 센스 시리즈

How to live SMART

[삼성 센스 전속모델
프리미엄이더기이행용]

Samsung
SENS SERIES [9]



**SMART
Premium
Duralumin**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을
가장 내구성 있는
Duralumin 99%



**SMART
Aero-
Dynamic Style**
날렵하고 역동적인
곡선의 움직임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



**SMART
Ultra Thin
& Light**
1.3kg에 불과한 무게로
가볍고 두꺼운 노트북과
달리 9.3mm에 불과한 초슬림



**SMART
Performance
& Speed**
2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SSD 탑재로 강력한 퍼포먼스와
일도차이 속도

인텔, 인텔 로고, 인텔 Inside, 인텔 코어 및 코어 Inside는 인텔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삼성전자 SAMSUNG